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평화구축사업

북한지역 무속서사시 자료 연구  
-국립영상자료원 소장 망목굿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함경도 망목굿 서사무가 전사 자료

집필자 : 조현설, 윤준섭, 박광은, 정순단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알타이학연구소-

2018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 1. 국립영상자료원 망목굿 영상 자료 현황

해방 이후, 무속 연구자들은 북한 지역의 굿이 대체로 그렇듯이 함경도의 굿 역시 피난 내려온 주민들과 월남한 무당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굿을 통해 그 면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확보한 망목굿 영상 자료 역시 월남한 무당과 재갓집이 1981년 12월 9일~10일 이틀간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서 행해진 망목굿을 촬영한 것이다. 본 영상 자료는 임석재, 이보형 등 굿학회 회원들이 조사 37년 전 1944년 교통사고로 죽은 김홍식씨(함남 북청군 신포리 출생)의 망목굿을 기주(祈主)와 무당들의 허락을 얻어 촬영한 것이다. 1981년은 망자의 환갑이 되는 해로, 장성하여 여유가 생긴 자식들이 고인의 님을 위로하기 위해 굿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함경도 망목굿』이란 책자인데, 이 책에는 망목굿의 제차를 소개하고 제차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덧붙여 있다. 이 책은 망목굿에 대한 해설과 함께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 당시 망목굿의 연행 양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다만, 이 책의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여러 요인으로 인해 망목굿 전승이 끊긴 현재의 상황에서 망목굿 연행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영상 자료의 부재는 아쉬운 대목이었다. 다행히도 필자가 수소문 끝에 국립영상자료원에 소장된 영상 자료를 확보하였다. 영상 자료는 8개의 VHS테이프에 저장되어 실제 녹화된 시간은 16시간이었다.<sup>1)</sup>

일전에 조사된 『함경도 망목굿』의 해설 내용<sup>2)</sup>을 영상 자료의 영상과 대조하면 당시 망목굿의 양상을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함경도 망목굿』 해설 및 예술자료원 영상 자료 비교			
번호	제차	영상 캡처	연행자 및 제차 해설 <sup>3)</sup>
01	부정 풀이		연행자: 황복녀 해설: 주무는 평상복을 입은 채로 제단 앞에 앉아 장구를 치며 부정풀이를 창송한다. 조무(助武) 2인도 평상복 차림으로 주무 옆에 앉아서 늦대야와 바라를 쳐서 반주한다. 무신(巫神)은 부정(不淨)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부정은 물론 비물리적인 부정까지도 제거하여 무신이 내리도록 정결하게 한다.
02	토세굿		연행자: 김복순 내용: 백반 · 국 · 떡 · 술 · 나물 등을 소량으로 간소하게 공계한 제상을 마당의 한 귀퉁이나 뒤뜰에 차려놓고 제상 앞에 주무 혼자 앉아서 장구를 치며 토세굿 무가를 부른다. 집터의 토주신에게 굿의 행식을 알리고 굿의 덕을 입게 해 달라는 뜻으로 행식한다. 행식이 끝나면 제수는 모두 거두어 마당 한 구석이나 대문 밖으로 버린다.

\* 이 자료집은 본 사업의 연구원으로 활동한 윤준섭의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윤준섭, 『함경도 망목굿 서사무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 발간 예정)

- 1) 당시 국립영상자료원의 협조를 얻어 DVD 형식의 파일로 변환을 했다.
- 2) 이하 『함경도 망목굿』의 해설 내용을 ‘해설본’이라 하겠다.
- 3) 제차에 대한 해설은 『함경도 망목굿』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임석재,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03	성주국	(관련 영상 없음) 내용: 주무는 성주상 앞에 앉아서 장구를 치면서 무가를 창송하고, 조무 2인은 늦대야와 바라를 치면서 반주한다. 성주신에게 행식을 알리고 신덕(神德)을 입게 해 달라 기원하는 절차이다.	
04	문열이 천수		연행자: 황복녀(주무), 김복순(조무) 내용: 주무는 흰 장삼을 입고 흰 고깔을 쓰고 본제단 앞에 서서 바라를 치며 무가를 창송한다. 조무 2인은 그 옆에 앉아서 장고와 늦대야를 치며 반주한다. 무가는 먼저 천수경(千手經)을 암송한 뒤, 망자(亡者)가 사망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다음에는 십대왕(十大王)에게 망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명부(冥府)의 여러 문을 열어 달라고 기원하면서 48원(願)을 염송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05	청배국		연행자: 황복녀 내용: 망목국에 청해 들이는 무신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신이 내릴 것을 기원한다.
06	안택국	(관련 영상 없음) 내용: 주무는 큰상 앞에 앉아서 지성을 다하여 여러 무신에게 지성을 드린다는 뜻으로 감천의 설화가 담긴 무가를 창송한다.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중병에 어린애를 약으로 쓰는 것이 특효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아들 감천이를 약탕관에 넣고 삶아서 그 국물을 시아버지에게 드린다. 그러자 시아버지의 병이 깨끗이 나았는데, 그 후에 감천이가 살아 돌아온다. 감천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약탕관을 열어보니 그 안에 감천의 모양을 한 산삼이 있었다. 효부의 지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산삼을 내려줬던 것이다. 이러한 무가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지성을 다하면 신의 덕을 입게 된다는 것을 우의(寓意)하는 무가라 하겠다.	
07	타성풀이		연행자: 장채순(주무), 황복녀(조무) 내용: 망자는 사자와 함께 명부로 가는 도중에 끊임없는 고초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간 타성(他姓)의 망령이 나타나서 곤혹에 빠진 망자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을 서술하는 무가가 불려진다. 이를 통해 망자가 고통 없이 명부에 갈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가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08	왕당천수		연행자: 김복순(주무), 황복녀(조무), 장채순(조무) 내용: 불경인 천수경을 염송하면서 여러 신들이 좌정하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행식의 양상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09	신선국		연행자: 김복순 내용: 난선구성인, 지맹구성인(이상 신의 직능은 알 수 없음)을 비롯하여 각 방위신(方位神)인 지정과 조왕, 오방신장(五方神將), 간주, 동서남북 각 바다의 용왕들을 청해 들여서 망자의 안주와 유족의 길복을 기원하는 무가를 노래한다.

10	대감굿	<p>(관련 영상 없음)</p> <p>내용: 지정대감, 신장대감, 산령대감, 호기대감, 조상대감, 삼재대감, 호기별상대감, 재수대감, 전장대감 등등 각종 각양의 대감신을 청해 들이고, 짐달언 장수의 설화가 담긴 무가를 창송한다. 짐달언은 짐미련의 유복자인데, 아버지가 두만강 건너의 나라에서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간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 돌아온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골을 잘 매장한 뒤에 더 할 일이 없다고 하고 자결한다. 이러한 설화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p>
11	화청	 <p>연행자: 김복순(주무), 장채순(조무)</p> <p>내용: 주무는 흰 장삼에 흰 고깔을 쓰고 목에는 염주를 걸고 바라를 치며 무가를 노래하면서 의식(儀式) 장내를 도는데, 그의 뒤에는 조무와 망자의 유족이 따른다. 주무는 망자의 의복과 소지품을 얹어놓은 상 주위를 느릿느릿 도는데 이때 유족도 함께 돈다. 여기에 불리는 것은 짙막한 불경 문구와 48원(願) 등이다. 망령의 저승길이 평탄하기를 기원한다. 유족들은 간간이 인정을 망인의 의복과 소지품이 놓여 있는 상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은 불가(佛家)의 화청(和淸)과 거의 같은 양식의 절차이다.</p>
12	동갑접기	 <p>연행자: 김복순</p> <p>내용: 망자가 저승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여러 난관을 통과하고 여러 고초를 겪는데, 그럴 때마다 먼저 간 동년갑(同年甲) 망령들이 나타나 자청하여 망자를 위로하고 도와주는데, 그런 망령들을 향응한다는 사실로 된 무가가 불린다. 이는 '타성풀이'와 동교(同巧)의 거리로 보인다. 이런 무가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p>
13	도랑축원	 <p>연행자: 장채순</p> <p>내용: 도랑선비와 청정각시 신화가 담긴 무가가 구연된다. 도랑선비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삼촌의 집에서 자라면서 청정각시라는 여인에게 장가들었다. 도랑선비는 결혼식 때 인사불성이 되고 결국 죽는다. 청정각시는 도랑선비의 죽음에 슬퍼하며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한다. 둘은 다시 재회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도랑선비는 큰 강 위에 놓은 다리를 건너다가 빠진다. 그러나 도랑선비는 밤마다 청정각시를 찾아와 부부생활을 계속하게 된다.</p>
14	짐가재 굿	 <p>연행자: 장채순</p> <p>내용: 이 거리는 살(煞)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리이다. 짐가재라는 자는 그의 집에 유숙하던 여행자인 세 소년을 죽이고는 그 시체를 마구간 판자 밑에 묻었다. 그 소년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로 부자가 되고, 여태껏 없었던 아들 삼형제를 낳지만 장성하자 삼형제가 죽는다. 짐가재는 자식을 잡아간 염라대왕을 치죄해달라고 원에 청원한다. 원은 사령을 시켜 염라대왕을 불러 문초하자 짐가재의 악행을 말한다. 그리고 마구간 판자 밑을 들춰 보라고 해서 보니 세 소년의 시체가 썩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이에 죄상이 드러난 짐가재는 처형되었다.</p>

15	오기풀이		<p>연행자: 지금섬  내용: 세칭 바리데기 신화가 담긴 무가가 창송된다. 이 신화무가는 서울·양주·충남·전남북 동해안 지역에서 창송된다. 서술 내용이 지역에 따라서 다소 다르지만, 버렸던 딸이 만년을 겪어 소생약수를 길어다 죽은 아버지를 소생시킨다는 내용의 줄거리는 일치한다. 그런데 함흥 등지에서 바리데기는 신으로 승화하는 것을 서술하지 않는다. 또한 망자의 이승탈 저승탈을 벗기기 위한 거리로 되어 있어 기능면에서도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p>
16	산천국		<p>연행자: 김복순  내용: 우리나라 팔도의 명산대천에 기도하여 망자의 사후(死後) 안주(安住)와 그 유족의 길복을 비는 거리이다. 붉은선비는 서인에게서 글공부하느라 집을 떠나 있다가 어느 날 집 생각, 부인 생각이 나서 집으로 간다. 붉은선비는 집으로 가던 길에 서인이 내준 금기를 모두 어긴다. 그러자 천년고목에서 대맹이가 나와 자신의 일을 망쳤다면 붉은 선비를 잡아먹으려 한다. 이에 붉은선비는 부모님을 뵈러 가는 중이니 부모님을 뵈고 나서 잡아먹히겠다고 한다. 이에 영산각시는 대맹이에게 찾아가서 남편을 잡아먹는 대신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을 달라고 하고 그 구슬로 대맹이를 향해 죽으라고 외친다. 대맹이가 죽자 그것이 명산대천이 된다.</p>
17	문굿	<p>(관련 영상 없음)  내용: 이 거리는 망자가 저승으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저승길을 닦는 거리이다. 이 거리에서는 양산백과 추양대의 설화가 담긴 무가를 노래한다. 양산백과 추양대는 은혜사에서 10년 동안 함께 글공부를 한다. 그러나 추양대가 남북을 하였기에 양산백은 추양대가 여자인지 모른다. 그러다가 우연히 추양대가 여자인 것이 밝혀지고 양산백과 추양대는 결혼하기로 한다. 추양대는 부모에게 이를 알리나, 부모는 반대하고 추양대를 다른 곳에 시집보내려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양산백은 병들어 죽는다. 추양대는 시집가는 길에 양산백의 묘를 지나는데, 가마가 움직이지 않자 내려서 자신의 비녀로 묘를 긁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이 추양대를 끌어내려고 옷을 잡아당겼지만, 옷자락 끝만 찢어져 나오면서 나비가 되어 날아갔다. 제주의 무가 세경본풀이에 있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관계가 양산백과 추양대의 관계와 유사하다.</p>	
18	돈전풀이		<p>연행자: 지금섬  내용: 전신(錢神)의 내력이 담긴 무가를 노래한다. 공상선비는 부자였는데, 재색을 겸비한 명월각시가 그의 아내였다. 배나라 배선비는 공상선비의 재산과 아내를 탐내어 공상선비를 무인도에 버렸다. 명월각시는 수십 년 동안 정조를 지키며 자신이 키우던 학을 섬으로 보내 공상선비를 데려오게 한다. 이후에 명월각시는 큰잔치를 베풀어 걸인들을 초대한 다음에 자신이 내놓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삼겠다고 한다. 공상선비가 그 옷을 입자 둘은 재회하고 그들은 떠돌아다니다가 돈이 계속 나오는 망태기를 얻어 전신이 된다.</p>
19	상시관놀이		<p>연행자: 황복녀  내용: 이 거리에서는 무가를 부르지 않고 주무는 고깔과 장삼을 착용하고 춤만 춘다.</p>
20	동이부침	<p>(관련 영상 없음)  내용: 이 거리도 무가 창송은 없고 떡시루를 입술에 붙이고 식장 안을 돈다.</p>	

21	천디곳		연행자: 황복녀(주무), 김복순(조무) 내용: 흰 천을 길게 펴서 두 사람이 양끝을 팽팽하게 펴서 잡고 흰 천위에 망자의 의복이나 소지품을 올려놓고, 주무가 이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망령이 저승에 편히 가도록 주문으로 기원한다. 이때 망자의 유족들은 수시로 인정을 쓴다.
22	하직천수		연행자: 김복순(주무), 지금섬(조무) 내용: 이 거리에서는 천수경을 창송하여 망자가 안전하게 저승으로 가도록 빌며 작별의 주언(呪言)을 한다

위 표는 해설본에서 언급된 제차의 영상 자료를 캡처한 다음, 당시 곳을 주관했던 연행자들의 성명을 추가하여 정리한 것이다. 망목곳 영상 자료의 조사 보고라고 볼 수 있는 해설본에서는 망목곳의 제차를 22거리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표Ⅰ에서 보듯이 『함경도 망목곳』에서 언급된 제차 중 몇 거리는 해당 영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성주곳》, 《안택곳》 등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영상 자료에서도 해설본에 언급되지 않은 제차가 발견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함경도 망목곳』 영상 자료 소장 목록			
순서	곳거리[祭次]	영상 시간	서사무가
01	《부정곳》	1번 VHS 11:35~19:30	없음
02	《토세곳》	1번 VHS 38:55~45:15	없음
03	《대감대접하는곳》	1번 VHS 48:35~80:48	없음
04	《객로곳》	1번 VHS 83:30~109:00	없음
05	《문열이천수》	2번 VHS 00:00~43:50	없음
06	《청배곳》	2번 VHS 45:10~84:55	없음
07	《타성풀이》	2번 VHS 85:40~122:20 3번 VHS 00:00~48:50	없음
08	《왕당천수》	3번 VHS 49:06~121:06	없음
09	《동갑접기》	4번 VHS 07:37~18:23	없음
10	《도랑축원》 《짐가제곳》	4번 VHS 19:50~122:27 5번 VHS 00:00~4:03	<도랑선비·청정각시> <짐가제>
11	《오기풀이》	5번 VHS 6:40~79:10	<바리데기>
12	《산천곳》	5번 VHS 79:10~122:19 6번 VHS 00:00~105:50	<붉은선비·영산각시>
13	《돈전풀이》	6번 VHS 110:25~122:30 7번 VHS 00:00~33:25	<궁산이·명월각시>
14	《조상곳》	7번 VHS 33:30~83:30	없음
15	《대잡이》	7번 VHS 86:25~122:25 8번 VHS 00:00~35:20	없음

16	《상시관놀이》	8번 VHS 36:15~75:15	없음
17	《천디굿》	8번 VHS 75:15~88:00	없음
18	《하직천수》	8번 VHS 91:00~107:30	없음

앞서 확인했듯이 망목굿 영상 자료는 총 8개의 VHS에 저장되어 있다. 그런데 해설본에서는 22제차로 보고된 반면, 영상 자료에서는 18제차로 구분된다. 영상 자료의 제차는 ‘1. 《부정굿》 → 2. 《토세굿》 → 3. 《대감대접굿》 → 4. 《객로굿》 → 5. 《문열이천수》 → 6. 《청배굿》 → 7. 《타성풀이》 → 8. 《왕당천수》 → 9. 《동갑접기》 → 10. 《도랑축원》[《짐가제굿》] → 11. 《오기풀이》 → 12. 《산천굿》 → 13. 《돈전풀이》 → 14. 《조상굿》 → 15. 《대잡이》 → 16. 《상시관놀이》 → 17. 《천디굿》 → 18. 《하직천수》’ 순으로 진행된다. 영상 자료와 해설본에 차이가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두 자료를 비교하면, 《도랑축원》이 진행될 때 《짐가제굿》이 그 안에 포함되어 진행된다. 즉, 《도랑축원》에서 <도랑선비·청정각시>의 구연이 끝나면, 곧바로 <짐가제>가 구연된다. 또한 영상 자료에는 해설본에 소개된 《성주굿》, 《안택굿》, 《신선굿》, 《대감굿》, 《문굿》, 《동이부침》이 빠져있다. 반면, 영상 자료에는 해설본에 언급이 없던 《대감대접굿》, 《객로굿》, 《조상굿》 등이 추가되어 있다.

여기서 《동이부침》은 《상시관놀이》에 포함되는 제차이기에 실제 영상 자료에서 빠진 제차는 《성주굿》, 《안택굿》, 《신선굿》, 《대감굿》, 《문굿》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대감굿》, 《문굿》은 장군신을 모시는 장군굿 계열인데, 이 굿은 영상 자료의 《대감대접굿》, 《객로굿》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영상 자료에는 《성주굿》, 《안택굿》, 《문굿》이 빠져있고, 해설본에는 《조상굿》이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망목굿 영상을 서사무가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청배》에서 신들을 청하고 본격적으로 서사무가가 구연된다. 《청배》 이후, 《도랑축원》, 《오귀풀이》, 《산천굿》, 《돈전풀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도랑선비·청정각시>, <짐가제>, <바리데기>, <붉은선비·영산각시>, <궁산이·명월각시>라는 서사무가를 차례로 구연한다. 아울러 영상 자료를 통해 이 다섯 편의 서사무가를 구연할 때 주무들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뒷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이 다섯 편의 서사무가를 구연할 때는 대체로 주무들이 고깔을 쓰고<sup>4)</sup> 장구를 치며 서사무가를 진행했다. 동시에 다섯 편의 서사무가가 구연되는 제차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기에 아마도 다섯 편의 서사무가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해설본에 소개되었던 세 편의 서사무가가 영상 자료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안택굿》의 <감천>, 《대감굿》의 <짐달언>, 《문굿》의 <양산백·추양대>이다. 해설본에서 이 세 서사무가에 대해 제차의 의미뿐만 아니라 서사무가의 줄거리까지 설명이 되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상 자료에서는 세 편의 자료가 빠져 있다. 영상을 통해 세 편의 서사무가가 진행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다행히도 세 편의 서사무가 음원 자료가 남아 있다. 이에 음원 자료를 통해 <감천>

4) <바리데기>를 구연할 때는 주무가 고깔을 쓰고 있지 않다.

<짐달언>, <양산백·추영대>의 연행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기존 채록 자료의 오류도 수정할 수 있었다.<sup>5)</sup>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망목굿에 대한 조사는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1·2차 조사는 지금섬 일행, 강춘옥 일행을 대상으로 1965년 7월과 9월경에 이루어졌다. 이때의 결과물이 『관북지방무가(추가편 포함)』였다. 이 책에는 망목굿의 제차를 설명하고 여러 편의 무가가 수록되어 있다. 3차 조사는 지금섬 일행을 대상으로 1981년 12월경에 이루어졌다. 실제 의례 행식을 갖춘 채 망목굿을 연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함경도 망목굿』이었다. 이 책에는 망목굿 개별 제차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간략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아쉽게도 『관북지방무가(추가편 포함)』는 인쇄 과정에서 오기가 있어 자료적 보완이 요청된다. 아울러 『함경도 망목굿』 역시 망목굿에 대한 해설에만 그쳐서 망목굿 연행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필자가 『관북지방무가』 및 『함경도 망목굿』 조사 당시 음원과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1-3차 조사 결과물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 확보한 음원 및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에 채록된 사설을 수정한 서사무가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제차	서사무가	기 채록 자료	음원 유무	영상 유무
01	《안택굿》	〈감천〉	『관북지방무가』	○	×
02	《대감굿》	〈짐달언〉	『관북지방무가』	○	×
03	《도랑축원》 《짐가제굿》	〈도랑선비·청정각시〉	없음	○	○
		〈짐가제〉	『관북지방무가(추가편)』	○	○
04	《오귀풀이》	〈바리데기〉	『관북지방무가』	○	○
05	《산천굿》	〈붉은선비·영산각시〉	『관북지방무가(추가편)』	○	○
06	《돈전풀이》	〈궁산이·명월각시〉	『관북지방무가』	○	○

함경도 망목굿에는 6개 제차에서 7편 서사무가가 구연된다. 《안택굿》의 <감천>, 《대감굿》의 <짐달언>, 《도랑축원》[《짐가제굿》]의 <도랑선비·청정각시>, <짐가제>, 《오귀풀이》의 <바리데기>, 《산천굿》의 <붉은선비·영산각시>, 《돈전풀이》의 <궁산이·명월각시>가 그것이다. <도랑선비·청정각시>를 제외한 6편의 서사무가는 『관북지방무가(추가편 포함)』에 소개되어 전해진다. 이에 본 논문은 첫째, 채록 자료가 없는 <도랑선비·청정각시>는 확보한 음원 자료를 전사하여 새 자료로 확보한다. 둘째, 『관북지방무가(추가편 포함)』에서 전사된 6편의 서사무가는 음원 자료를 바탕으로 기왕의 오류를 수정하여 수정본을 만들고자 한다. 셋째, 새 자료 및 수정본은 단순히 전사에만 그치지 않고 주석본을 만들고자 한다. 이 주석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상 자료 및 인터뷰

5) 본 논문에서는 <감천>, <짐달언>만 망목굿 서사무가로서 분석하기로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석(33)에서 설명하였다.

자료 등을 활용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새 자료 및 수정본의 주석본은 본 논문의 부록에 수록하여 학계에 소개하고자 한다.

## 2. 망목굿 무가의 연행 양상

함경도 망목굿은 2-3일 동안 연행되는 큰 굿이다. 망목굿에서 연행되는 제차들은 각각 체계에 따라 연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망목굿 영상 자료에는 18거리나 되는 제차가 연행되었다. 망목굿은 무당 한 명으로는 진행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여러 명의 무당이 동원된다. 무당은 각자의 장기에 따라 제차를 맡아 주무(主巫)가 되고 그 제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가를 부른다. 이 과정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는 등 무적(巫的) 행동을 한다. 그 옆에 조무(助巫)는 악기 반주를 하거나 주무의 무적 행동을 돕는다. 지금까지 분명하지 않았던 망목굿의 실체를 영상 자료를 통해 각 제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sup>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sup>2)</sup> 
①	《부정굿》	황복녀(主巫)	1번 VHS / 8분	X	

망목굿에서 《부정굿》은 황복녀 무녀가 주관했다. 황복녀는 함경남도 흥남시 출신으로 당시 나이는 65세(1915년생)였다. 황복녀는 1965년 1차 조사 때는 조무(助巫)에 머물렀으나 이번 영상 자료의 망목굿에서는 많은 제차를 주도적으로 담당했다. 주지 하듯이 《부정굿》은 모든 굿의 첫 제차이다. 첫 제차였기에 조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당시 영상 촬영을 담당했던 천승요가 촬영 과정에 실수가 있어 녹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승요가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자, 황복녀는 다시 《부정굿》을 구연하다가 도중에 그만두었다. 현재 녹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정굿》 사설은 다음과 같다.

임아국에 나리소사  
 임아국에 드리소사  
 공심조자 남심부주  
 해동 이리 일만국에  
 국을 내리 조선국에

1) 망목굿 영상 자료를 해석하는데 김현선 선생님과 탁순동 무녀, 빈순애 무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2) 망목굿 영상 자료는 각 제차별로 분절하여 유튜브에 올려놓았다. 유튜브에 '망목굿'으로 검색을 하거나 본 논문에 표기된 QR코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의 자료 소개는 『한국의 무가(12) - 강릉오구굿』에서 시도한 바 있다(황루시·윤동환·신희라, 『한국의 무가(12) - 강릉오구굿』, 민속원, 2018).

어이 내리도 경기도라  
 살을 들어 서울이라 특별시오  
 근원 신지를 물을 것 같으면  
 대전하여 봉천일동에 돌아들어  
 생명삼재 혼을 열며 부르드니  
 김씨결명 임아전각  
 김씨결명 이제전에  
 김씨로도 김씨 시조 신명님아  
 연순아빠 세연아아  
 기은 아바 되옵되다  
 오십 서이 기주 실령

《부정굿》은 평복을 입은 황복녀가 장구를 치며 앉은 채로 구연했다. 이를 ‘앉은 부정’이라 한다. 굿은 언제나 제장(祭場)의 부정을 물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는 굿하는 장소를 깨끗이 한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부정을 가시고 신이 강림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의례가 바로 《부정굿》이다.<sup>3)</sup> 그렇기에 《부정굿》은 모든 지역에서 굿을 시작할 때 항상 행하는 의례이다. 영상 자료의 망목굿에서도 《부정굿》이 연행되었지만, 촬영 당시의 실수로 인해 《부정굿》 무가 사실의 채록은 어려운 상황이다. 《부정굿》은 『관북지방무가』 및 음원 자료에도 보고된 바가 없기에 망목굿의 《부정굿》을 이렇게나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쉽다.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②	《토세굿》	김복순(主巫)	1번 VHS / 7분	X	

망목굿에서 《토세굿》은 김복순 무녀가 주관했다.<sup>4)</sup> 김복순은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리 출신으로 당시 나이는 55세(1925년생)였다. 김복순은 『관북지방무가』에서 《안택굿》, 《산천굿》 등을 연행하였는데, 영상 자료에서도 《토세굿》뿐만 아니라 여러 제차를 연행했다.

《토세굿》은 김복순이 평복 차림으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대문을 바라보며 굿을 연행한다. 제사상은 백반, 떡, 술, 나물, 과일 등을 소량으로 차렸다. 《토세굿》 무가 구연을 마치자 김복순은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 중 일부를 마당 한 구석이나 대문 밖으로 버렸다. 이때 제물을 버리면서 다음과 같은 무가를 구연했다.

청령[靑龍]도 백호도 받으시고 받아 놓고  
 강안에 물이 맑게 도와주시고

3) 황루시, 『전라도 씻김굿』, 열화당, 1985, 81면.

4) 《토세굿》 연행이 끝나자 조사자가 김복순에게 이 굿이 무엇인냐고 물어보니 《터굿》이라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관북지방무가』 및 『함경도 망목굿』에서 언급된 내용을 반영하여 《토세굿》이라 칭하겠다.

밤이며 불이 밝고 낮에는 물이 맑고

이 모습은 터주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 한다. 여기서 터주신은 청룡(靑龍)과 백호(白虎)와 관련된 신격으로 추정된다. 터주신은 집터를 관장하는 가신으로서 그 가정의 재수, 특히 운수를 관장한다고 한다. 《토세굿》은 본격적으로 망자를 천도하기 전에 생자들의 복을 빌기 위한 제차라고 볼 수 있다.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③	《대감대접굿》	지금섬(主巫)	1번 VHS / 32분	X	

망목굿에서 《대감대접굿》은 지금섬 무녀가 주관했다. 지금섬은 함경남도 홍원군 운학면 출신으로 당시 나이는 69세(1912년생)였다. 일명 곱추무당으로 불리는 무녀인데, 12세부터 무업(巫業)을 공부하여 18세부터 무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는 이번 망목굿을 연행하는 무당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관북지방무가』 조사 당시 많은 수의 제차를 주관하였으며, 이번 망목굿 영상 자료에도 여러 제차를 주관했다.

세 번째 제차는 영상 자료와 해설본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해설본에는 세 번째 제차로 《성주굿》이 소개되었지만, 영상 자료에는 《성주굿》이 없다. 그 대신 영상 자료에는 《대감대접굿》이 연행된다.<sup>5)</sup> 《대감대접굿》을 연행하기 전에 제단의 본상뿐만 아니라 작은 상을 따로 마련하였다. 떡 세 접시와 술 석 잔, 삼색 과일, 쌀을 세 무더기로 깔고 작은 상을 차리고 그 옆에는 망자대가 놓였다. 지금섬은 제단의 본상을 바라보며 평복을 입고 장구를 치면서 무가를 구연한다.

남섬의 천년나라 에 헤- 에 헤-  
 한강수는 만년수라 에 헤- 에 헤-  
 도화도는 우리 금동이라 팔만세라 에 헤- 에 헤-  
 일월이 명랑한데 모셔나서 에 헤- 에 헤-  
 (중략)  
 양주목상 0000 지정대감  
 오간에 내려소사 신장대감  
 0000 내려소사 조상대감 에 헤-  
 모셔 와서 대감님이 오시는 길에  
 (중략)  
 축원을 드렸소, 천리로야.  
 오늘날에 봉천1동에 김씨 마전에 신소에 최씨 기주 올시다.  
 (중략)  
 맛있는 것 가득 먹고 점지하여 줍소사.

5) 영상 자료에서 임석재가 굿의 거리[제차명]에 대해 물어보자 지금섬이 '대감을 대접하는 굿'이라 대답했다.

지금섬이 《대감대접굿》을 구연할 때, 제가집이 나와 제상을 향해 절을 하였다. 절을 하는 동안 지금섬은 무가를 구연하는데, 그 내용은 조상대감, 별상대감, 신장대감, 지정대감 등을 모셔서 대접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감을 대접하는 과정에서 대감에게 오는 길에 여러 복을 가져오기를 요청한다. 앞서 굿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라’라는 발언이 들리는데 아마 조상신으로 불리는 대감신에게 제사를 드려 가족들의 제화초복(除禍招福)을 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sup>6)</sup> 《토세굿》과 동일하게 《대감대접굿》도 망자를 천도하기 전에 생자들의 복을 빌기 위한 제차로 이해된다.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④	《객로굿》	김복순(主巫)	1번 VHS / 26분	X	

네 번째 제차는 《객로굿》이다. 김복순이 평복을 하고 장구를 치면서 《객로굿》을 구연했다. 옆에서 장채순이 늦대야를 쳤다. 이 제차의 목적은 특별하다. 해설본에는 언급이 없는 제차인데, 해설본 중 사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제차의 목적이 언급되어 있다. 사진을 찍은 김수남에 따르면 “김복순 만신이 교통사고로 죽은 금일 망자의 극락 천도를 비는 객로굿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망목굿에는 객로굿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망자가 객사했기 때문에 행해지게 되었다”<sup>7)</sup>라고 언급했다. 즉, 객로굿은 망목굿에서 항상 행해지는 제차는 아니지만, 객사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제차로 이해된다.

그렇기에 《객로굿》의 제사상도 특별하다. 김복순이 마루 정중앙에 있는 제단을 바라보고 굿을 하지 않고 앞서 《대감대접굿》을 할 때 마련한 제사상을 향해 굿을 하기 때문이다. 이 제사상에는 망자대가 있는데 객사한 망자의 넋을 부르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ㄱ 갈 적에 보면 상도로다 어- 어화-  
 올 적에 보면 대처로다  
 상도로다 OO 연에 도라 오기만은 에- 어화-  
 황천강 서러신 망령 세계로 가오  
 이여서 하누임아 제바제바

6) 망목굿의 《대감대접굿》은 연행 양상을 미루어 볼 때, 새남굿의 《진적》과 유사하다. 새남굿의 《진적》에서 무당이 굿을 하는 동안 제가집이 나와 제상을 향해 절을 한다. 《진적》에서 무당은 상산노랫가락을 하는데, 그 내용은 장군신을 청하여 가족들의 수명장수와 부귀공명, 가정의 안위, 관재구설과 삼재팔난의 물리침 등 죽은 망자보다 살아 있는 가족들의 제액초복을 주로 기원한다(이용범, 『故 김유감 새남굿』, 『큰 무당을 위한 넋굿』,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278면.

7) 임석재,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1984, 20-21면.

백원서 열시왕상 빌려주소  
 열시왕상 다 빌리시면  
 열시왕 시왕문예다 개문을 하오  
 황천강 서로신 망령 서왕을 사오  
 황철산 높은 고개를 울고나 넘소  
 지달령 화치 고개 마주나 넘소  
 황철산 넘어 가실 적에  
 그 고개 도와주던 삼천동갑 어- 어화-  
 황천강 서러신 망령 서왕을 가오  
 황천강 대동수를 건네 갈 적  
 임진강 구기원에 마주나섰소  
 황천강으느 건네 가실 적에  
 다리로 도와주던 월천공양 어- 어화  
 황천을 빌어나야 세계로 가오  
 망령 차지를 하는 노종의 사재  
 금일 차지를 하는 객로의 사재  
 갈 적에 보면 감로왕 사재  
 올 적에 보면 인로왕 사재

㉔ 이 도 사람이 아님네다 저 도 사람이 분명하야

이대 나와 원아님아 금세상을 탄생하니  
 금 돈전 은 돈전 삼 천량 엠빈나야  
 저도 병사가 여러[如來] 세존님한테 명값으로 바치고  
 남도 칠성에 명을 빌어 복도칠성이 복을 빌어 석가여래 제도하야  
 아버님전에 뼈를 빌어 어머님전에 살일 빌어 삼태칠성에 탄생을 하시니  
 김씨의 산천하에 호걸군자르 탄생하였습네다  
 한 두 살에 철을 몰라 부모은공(父母恩功)을 알으소나  
 초 삼 세라 당진하니 강남에 대별성이 큰 손님, 작은 손님, 편히 전해 보내시고  
 훗 다섯을 이루고 삼오는 십오 열다섯이요, 십오세를 당진하니 정남 정네라  
 (중략)  
 어제 오늘이 성튼 몸이 태산같은 유명이 들어  
 광창에 달이 비치는 듯 서창에 해가 지는 듯  
 원죽영 밝은 달에 떼 구름이 싸기는 듯이  
 거기서 약을 살루로 약을 쓰니 약효력이 있을수나  
 청수나에 수아버지 백사약이 무효로다.  
 명이 그만이구나 시각이 당초로다.  
 열시왕이 불렀구나 두 맹감이 잦혔구나 사재천이 걸렸구나  
 월직사재 시직사재는 한 손에다 베 재 들고 또 한 손에 창검 들고  
 오락 사슬 비껴 차고 요리조리 활동같이 굽을 길로 화살 같이 달려왔소.  
 어 달은 문을 성명 삼재를 물으시니 누구 영이라 어길 소냐 누구 명이라 거스릴 소냐  
 한번 잡아 넘거치니 혼비백산이 넘겨주겠소 어- 아화-

김씨루 이런 망자로구나 행도학상 어지는 17년이나 되옵니다

(중략)

금일 망자에 노중에서 돌아가서

노중 사재로다 객로 사재로다 000을 강림을 하오.

③ 아- 이리로 오서 저리로 가오

아- 저리로 오서 이리로 가오

아- 육도 사상을 게다 주고

아- 잘가노라 달치마소

아- 못가노라 서지를 마오

아- 바람불어 가는 대로

아- 부는 바람은 영풍이오

(중략)

아- 구천오백 생명자라

아- 대자대비 원앙새야

아- 극락세계로 인도하옵소사.

《객로굿》의 내용을 살펴보면, 《타성풀이》와 유사한 구절이 상당히 많다. 이 두 제차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망자가 시왕세계로 가게 되는 내력을 교술[인용문②]하는 전후로 축원[인용문①,③]이 있으며, 두 제차 모두 망자의 혼령이 저승의 시왕[극락]에 잘 도달하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제차의 목적상 두 제차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다. 《타성풀이》는 망자가 타성의 도움으로 시왕세계로 가게 되는 내력을 말하는 것이기에 망목굿에서 필히 행해지는 제차이다. 반면, 《객로굿》은 망자가 객사하였기에 노중의 사재에게 시왕세계로 잘 보내달라고 축원하는 내용이다. 그렇기에 《객로굿》은 영상 자료의 경우처럼 객사한 망자를 대상으로 굿을 할 때 행해지는 것이다.

한편, 《객로굿》의 연행 목적이 망자의 저승 천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용문②에서 보듯이 망자의 저승 천도는 노중의 사재가 한다. 일반적으로 망자의 저승 천도는 서사무가의 주인공이 수행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새남굿의 <바리데기>이다. 새남굿의 《말미》에서 <바리데기>를 구연하는데, 바리데기가 망자를 천도하는 신이 되는 내력이 서술된다. 새남굿의 바리데기가 수행하는 망자의 저승 천도가 망목굿에서는 서사무가가 구연되기 이전에 다른 제차에서 언급되는 ‘노중의 사재’가 수행하는 셈이다. 이 점은 망목굿 《타성풀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타성풀이》에는 동갑의 타성들이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논의 대상이 망목굿 서사무가인데,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신이 서사무가의 주인공만은 아니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머물기로 하고 자세한 논의는 <바리데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충하기로 한다.<sup>8)</sup>

8)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논문은 V장 2절 2항[망자와의 절연]에서 살펴겠다.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⑤	《문열이천수》	김복순(主巫) 황복녀(助巫)	2번 VHS / 43분	X	

《객로굿》에 이어 《문열이천수》가 이어진다.<sup>9)</sup> 이 제차는 김복순이 장구를 치며 무가를 구연하고 그 옆에서 황복녀가 늦대야를 치며 무가를 따라 불렀다. 이 굿은 망자 및 여러 신들이 제장(祭場)에 들어와 굿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굿이다. 무가는 첫머리에 천수경(千手經)을 외며, 망자(亡者)가 사망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십대왕(十大王)에게 망혼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명부(冥府)의 여러 문을 열어 달라고 기원하면서 48원을 염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10)</sup>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⑥	《청배굿》	황복녀(主巫)	2번 VHS / 39분	X	

여섯째 제차는 《청배굿》이다. 이 제차는 황복녀가 홀로 장구를 치며 무가를 구연한다. 앞서 《문열이천수》를 통해 여러 신들이 제장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면, 《청배굿》은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제장에 오기를 청하는 것이다. 《청배굿》에 대해 황복녀는 “이거는 저승굿 내는게 아니여 귀신 오라고 하는 거여”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저승굿이 아니라는 것은 망목굿의 주요 목적인 망자 천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귀신이 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들이 제장(祭場)에 좌정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실제 《청배굿》 사설을 들어보면, 여러 신들의 이름을 나열하여 제장에 좌정할 것을 기원하고 있다.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⑦	《타성풀이》	장채순(主巫) 김복순(助巫)	2·3번 VHS / 85분	X	

일곱째 제차는 《타성풀이》이다. 《타성풀이》는 장채순이 장구를 치면서 무가를 구연하고 김복순이 늦대야로 반주했다. 장채순은 『관북지방무가』에 참여하지 않았던 무녀로 이번 망목굿 영상 자료에서 처음 등장한다. 장채순은 영상 자료의 망목굿에서 《타성풀이》뿐만 아니라 《도랑축원》 등 망목굿의 주요 제차를 연행하였다.

앞서 《청배》에서 제장에 신을 모신 바 있다. 신들이 모셔진 다음에 행해지는 것이 《타성풀이》인데, 이 굿을 함께 본 탁순동은 《타성풀이》부터 본격적인 망령굿, 즉 망목굿이라 했다.<sup>11)</sup> 망목굿은 망자의 저승 천도가 목적인데, 《타성풀이》의 내용은 망자

9) 조사자가 김복순에게 무슨 굿이냐 물어보니 《문열이》, <문굿>이라 하기도 했다.

10) 임석재,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1984, 79면.

가 고난을 극복하고 명부로 가게 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타성풀이》에서 서사무가가 구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내용이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되는 것으로 볼 때, 이 제차의 무가는 서사적인 성격을 지닌 교술무가로 볼 수 있다.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⑧	《왕당천수》	김복순(主巫) 황복녀(助巫)	3번 VHS / 72분	X	

《타성풀이》에 이어 《왕당천수》가 연행된다. 《문열이천수》가 망자의 영혼이 올 때, 천수경을 읊는 것이라면, 《왕당천수》는 영혼을 앉혀 놓고 천수경을 읊으며 회심곡을 부르는 것이다.<sup>12)</sup> 《왕당천수》는 선굿과 앉은굿 순으로 진행된다. 선굿에서는 김복순이 고깔을 쓰고 흰장삼을 입고 흥가사를 두른 채 바라춤을 추며 무가를 구연한다. 그 옆에서 황복녀는 장구를 세워 들고 무가를 따라 부른다. 이때 불리는 무가는 천수경이다. 김복순과 황복녀가 선굿을 거행할 때, 망자의 가족들은 제단에 거둬 절을 한다. 이어서 앉은굿은 김복순이 장구를 치며 무가를 구연했다. 이때 김복순은 무서(巫書)를 보며 무가를 부르는데, 아마도 <회심곡> 계열의 무가로 추정된다. 해설본에서 《왕당천수》, 《화청》이 영상 자료에서 《왕당천수》 한 제차로 연행된 듯하다. 이 점에 대해 탁순동 무녀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⑨	《동갑접기》	김복순(主巫)	3번 VHS / 11분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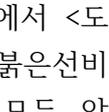
아홉째 제차는 《동갑접기》이다. 이 제차는 동갑(同甲)을 대접하는 제차이다.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도중에 고초를 겪을 때 먼저 죽은 동갑의 망령들이 나타나 망자를 도와준다고 한다. 《타성풀이》의 타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타성풀이》가 망자가 타성과 동갑들에게 도움을 받는 내용을 서술하는 제차라면, 《동갑접기》는 이러한 타성, 동갑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제차라 볼 수 있다.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⑩	《도랑축원》 《짐가제굿》	장채순(主巫) 김복순(助巫) 황복녀(助巫)	4번 · 5번 VHS / 104분	<도랑선비·청정각사> <짐가제>	

《타성풀이》에 이어 《도랑축원》[《짐가제굿》],<sup>13)</sup> 《오기풀이》, 《산천굿》, 《돈전풀이》가

11) 《객로굿》이 연행되지 않으면, 망자의 저승 천도는 《타성풀이》에서 시작된다.

12) 이 내용은 당시 사진 촬영을 담당했던 김수남이 《왕당천수》를 해설한 것이다. 임석재의 해설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다(임석재 글·김수남 사진,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24면).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⑪	《오기풀이》	지금섬(主巫)	5번 VHS / 72분	<바리데기>	
⑫	《산천굿》	김복순(主巫)	5번·6번 VHS / 148분	<붉은선비·영산각시>	
⑬	《돈전풀이》	지금섬(主巫)	6번·7번 VHS / 46분	<궁산이·명월각시>	

연행된다. 이들은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제차이다. 이 제차에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망목굿 서사무가가 구연되기 때문이다. 《도랑축원》[《집가제굿》]에서 <도랑선비·청정각시>·<짐가제>, 《오기풀이》에서 <바리데기>, 《산천굿》에서 <붉은선비·영산각시>, 《돈전풀이》에서 <궁산이·명월각시>가 구연된다. 서사무가는 모두 앞은곳으로 구연된다. 장채순은 <도랑선비·청정각시>·<짐가제>를, 지금섬은 <바리데기>, <궁산이·명월각시>를, 김복순은 <붉은선비·영산각시>를 구연했다. 이때 <바리데기>를 제외한 다른 서사무가들은 무당이 고깔을 쓰고 장구를 치며 무가를 구연했다. 특히 《도랑축원》은 <도랑선비·청정각시>를 구연하기 전에 장채순이 ‘도랑춤’으로 불리는 바라춤을 추고, 그 옆에서 황복녀는 양푼을 치고 김복순은 장구를 치며 바라지를 했다. 게다가 <도랑선비·청정각시>의 구연이 끝나면 곧바로 <짐가제>가 구연된다. 여러 무당이 참여하고 <도랑선비·청정각시>를 구연하기 전에 춤을 추고, 구연한 이후에는 다른 서사무가[<짐가제>]를 구연한다는 점에서 《도랑축원》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 영상을 함께 본 탁순동도 망목굿에서 제일 중요한 제차는 《도랑축원》이라 했다.

해설본에서 임석재는 각 서사무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도랑축원》[《집가제굿》]에서 이승과 저승을 교류시키기 위해 <도랑선비·청정각시>를, 살(煞)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짐가제>를 구연한다. 이어서 《오기풀이》에서는 망자의 이승탈, 저승탈을 벗기기 위해 <바리데기>를 구연한다. 이때 다른 지역의 <바리데기>와 달리 망목굿의 <바리데기>는 주인공이 죽거나 신으로 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아하게 여겼다. 다음으로 《산천굿》에서 <붉은선비·영산각시>를 구연하여 팔도의 명산대천에 기도하여 망자의 사후 안주와 그 유족의 길복을 비는 제차로 보았다. 마지막 서사무가인 <궁산이·명월각시>는 망자가 저승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사자에게 고초를 당하고 험난한 난관을 넘길 때마다 돈을 써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전신(錢神)의 내력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망자가 저승에서 돈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돈전풀이》를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sup>14)</sup> 이와 같은 임석재의 해설은 소략하지만 망목굿에서 구연되는 서사무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13) 영상 자료에서 《도랑축원》과 《집가제굿》은 제차의 구분이 없이 연행된다.

14) 임석재,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1985, 81-88면.

한편 영상 자료를 확인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다섯 편의 서사무가가 다른 제차의 개입 없이 연이어 구연된다는 점이다. 특히 다섯 편의 서사무가는 망목굿의 중심에 위치하여 구연되는 듯하다. 여기서 망목굿의 중심이란 의례적 맥락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데 도움을 주던 동갑들을 대접하는 《동갑접기》 이후, 이 네 제차는 실질적으로 망자의 저승 천도와 관련한 여러 신들의 내력을 서술하는 서사무가, 즉 본풀이를 구연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둘째, 서사무가에 따라 의례적 중요도가 달리 여겨진다.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영상 자료를 보면 《도랑축원》과 《산천굿》이 중시되는 듯하다. 이 점은 《도랑축원》은 여러 무당이 참여하는 동시에 서사무가의 구연뿐만 아니라 도랑춤을 추는 등 여러 무적행식(巫的行式)을 표현하고, 《산천굿》 역시 <붉은선비·명월각시>를 구연할 때 그 옆에서 망자의 가족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이 모습은 지금 섬 홀로 앉아서 장구를 치며 <바리데기>, <궁산이·명월각시>를 구연하는 《오기풀이》, 《돈전풀이》와 대비된다.

이러한 영상 자료를 통해 망목굿 서사무가가 구연되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망목굿에서 서사무가가 죽음과 관련하여 어떤 체계를 가지고 구연되는지 그 의미는 분명치 않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이후 진행되는 제차에 대해 살펴보겠다.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⑭	《조상굿》	황복녀(主巫)	7번 VHS / 50분	X	

열네 번째 제차는 《조상굿》이다. 《조상굿》은 해설본에 언급되지 않은 제차이다. 이 제차는 황복녀가 재가집을 데리고 주관하는 것이 특징이다. 황복녀는 베를 말아 무릎에 놓고 축원하면서 보시기에 놓인 쌀을 집어서 점을 치며 공수를 한다. 이때 공수는 재가집 조상들의 말이다. 조상신이 내린 황복녀는 재가집에게 망목굿을 너무 늦게 했다며 혼을 내기도 하고, 재가집이 복을 받기를 축원했다.

《조상굿》은 망자의 천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인다. 필자가 망목굿에서 《조상굿》이 연행되는 이유를 탁순동, 빈순애 무녀에게 각각 물었더니, 모두 망자의 조상을 잘 모셔야지 망자가 극락에 가는 것이라 대답했다. 아울러 조상을 잘 모셔야지, 재가집도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조상굿》은 망자의 천도보다는 조상을 잘 모셔서 망자와 생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차라고 정리된다.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⑮	《대잡이》	지금섬(主巫) 장채순(助巫) 황복녀(助巫) 김복순(助巫)	7번·8번 VHS / 71분	X	

이어서 모든 무당이 참여하는 《대잡이》가 연행된다. 《대잡이》 역시 해설본에 등장하지 않는 제차이다. 《조상굿》이 망자의 조상을 제장에 부르는 것이라면, 《대잡이》는 망자를 부르는 것이다. 이번 영상 자료의 《대잡이》에서는 망자의 부인이 대를 잡아 망자가 왔음을 확인하였다. 빈순애 무녀는 무당들에게 《대잡이》가 망자천도굿에서 중요한 제차 중 하나라고 했다. 망자를 위한 굿을 하면 망자가 굿을 잘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망자의 가족들에게 직접 신내림을 받도록 굿을 주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4명의 무당이 모두 《대내림》에 참여하여 망자의 부인에게 망자가 내리기를 청하였다. 영상 자료에서는 약 30여 분이 지나자 망자의 부인에게 감응이 온 듯했다. 그러자 지금섬 옆에 있던 황복녀가 감응이 온 망자의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황복녀: 차근차근 마전도 돌아보고, 일어나서 잠깐 놀고 가요. 너무 기운이 없어 놀기가 힘들다? 그래 원통한 삶이 있어, 구천에 가도 원통하죠?

망자의 부인 : (망자대를 놓치고 그 옆에 딸을 끌어안고 운다)

황복녀: 대를 쥐어야지. 말씀 하오, (중략) 말씀 하오, 이 좋은 세월에 왜 죽었소?

망자의 부인 : (오열하며) OOOO 어디를 가고 OOOOO.

황복녀: 그래 말씀 하오. 차근차근 말을 하오. 어찌 죽었는지 말도 하고, 이바이, 모두, 오 늘 굿을 잘 받았는지 말을 하오. 아바이가 OO이 커서 나라에서 나와서 굿을 했지요. 모두 인사를 잘 하고 가야죠. 다 왔던 손님들 재수 있게도 해주지요.

황복녀는 망자의 혼이 내린 망자의 부인에게 굿판에서 잘 놀다 가라고 말한다. 그러자 망자의 부인[망자]은 그 옆의 딸을 끌어안고 운다. 황복녀가 망자대를 계속 잡으라고 하며 망자에게 굿을 하게 된 내력과 굿을 잘 받았는지 물어본다. 망자의 부인은 대를 계속 잡고 흔들다가 이후 일어나 춤을 추며 집안 구석을 돌아다닌다. 나중에는 망자의 부인뿐만 아니라 집안의 친인척들이 모두 춤에 참여했다. 이와 같은 《대잡이》의 모습은 새남굿의 《뒷영실》과 오구굿의 《넋일구기》와 상당히 유사하다. 《뒷영실》에서 무당은 《도령돌기》를 할 때 입었던 망자의 옷을 입고서 가족들과 마지막 대화를 한다. 《넋일구기》 역시 무당이 무당의 넋을 불러 가족들과 만나는 것이다. 《뒷영실》, 《넋일구기》 모두 망자가 저승으로 가기 전 무당을 통해 망자의 말을 남기는 것이다. 망자와 생자의 감응을 표현하는 제차가 망자천도굿의 후반부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은 흥미롭다고 볼 수 있다.

《조상굿》, 《대잡이》는 망자의 조상과 망자가 제장에 온 것을 확인하는 제차이다. 아울러 망자와 그 조상을 대접하여 잘 보내는 제차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망자의 가족들은 춤을 추며 망자나 그의 조상들을 맞이한다. 해설본에는 누락되었지만, 필자는 이 제차가 망목굿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김효경이 지적했던 ‘Kimeung’이 바로 이 장면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김효경은 생자들이 망아경에 빠진다는 ‘Kimeung’을 사신굿, 즉 망목굿의 핵심으로 보았다.<sup>15)</sup> 김효경의 연구에는 ‘Kimeung’의 중요성만 언급했

지, 그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설명했는데 영상 자료를 통해 이 제차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이렇게 보면, 앞서 빈순애 무녀가 이 제차를 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납득된다.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⑯ ⑰	《상시관놀이》 《천디굿》	황복녀(助巫) 장채순(助巫) 김복순(助巫) 지금섬(助巫)	8번 VHS / 52분	X	

‘Kimeung’을 마치자 어느덧 날이 밝았다. 그 이후 《상시관놀이》와 《천디굿》이 연이어 거행된다. 이 두 제차는 황복녀가 주무가 되어 연행했다. 《상시관놀이》에서 황복녀는 쾌자를 걸치고 부채춤을 추며 굿을 연행한다. 이 제차는 해설본에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은 소략하다.<sup>16)</sup> 이에 필자가 망목굿 영상을 관찰하며 빈순애 무녀에게 물어보니, 《군웅굿》의 하나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주로 별신굿에서 연행되는 《군웅굿》은 망자천도굿인 오구굿에서도 연행된다고 한다. 이때 《군웅굿》을 연행함으로써 군웅들이 망자의 극락길을 닦아주고 생자들의 복을 기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웅굿》에서 늦동이를 무는데, 이 모습은 해설본에 있는 《동이부침》과 무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상시관놀이》에 이어 《천디굿》이 연행된다. 이 굿은 제장에 왔던 망자가 제장을 떠나 극락으로 가는 길을 갈라주는 제차이다. 흰 명주를 길게 펴서 두 사람이 양끝을 팽팽하게 펴서 잡고 그 위에 망자의 의복이나 소지품을 올려놓는다. 이때 황복녀는 망자의 입장이 되어 이 굿을 잘 받고 떠난다며 가족들에게 하직 인사를 한다. 즉, 《천디굿》은 죽음과 삶이 완전히 갈라지는 순간을 극적으로 표현한 희곡적 성격을 지닌 무가라 볼 수 있다.

번호	제차명	연행자	영상 위치 / 연행 시간	서사무가 구연 여부	
⑱	《하직전수》	김복순(主巫)	8번 VHS / 16분	X	

《천디굿》을 끝으로 망자는 극락으로 천도되었다. 그러나 굿을 받기 위해 굿판으로 찾아든 것은 무속에서 모시는 신격이나 망자의 혼령만이 아니다. 머물 곳이 없이 떠도는 객귀들이 굿소리를 반겨 듣고 찾아와 무엇인가를 얻어먹으려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sup>17)</sup> 이러한 잡귀잡신들을 대접하고 제장 밖으로 몰아내는 것을 뒷전이라 한다.

15) 김효경 저, 「巫堂に於ける辭神賽神」 『日本宗教學會第三回大會紀要』, 立正大學宗教學研究室, 1935, 293면; 전경수 편, 『김효경저작집(3)』, 민속원, 2017, 189면.

16) 임석재는 《상시관놀이》에 대해 “이 거리에는 무가를 부르지 않고 주무는 고깔과 장삼을 착용하고 춤만 춘다”라고 설명하였다(임석재,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1985, 88면).

17) 황루시, 『전라도 씻김굿』, 열화당, 1985, 88면.

망목굿의 뒷전은 《하직천수》이다. 이 제차는 김복순이 연행했다. 마루에서 대문을 향해 제사상을 차리고 무가를 구연한다. 빈순애는 《하직천수》에 대해 처음에 천수경을 외우고, 마지막에 지장본원경을 외운다는 점에서 오구굿의 시석[뒷전]과 유사하다고 했다.

이상으로 망목굿 영상 자료에서 연행되는 18개의 제차를 살폈다. 먼저, 《부정굿》에서 굿판의 부정을 물리고, 《토세굿》, 《대감대접굿》에서 집안의 터주신과 대감신에게 굿의 내력을 설명하며 제화초복을 기원한다. 《청배》에서 여러 신들을 청하고 본격적으로 망자의 죽음과 관련된 굿이 시작된다. 《청배》 이후, 《도랑축원》, 《오기풀이》, 《산천굿》, 《돈전풀이》를 순차적으로 거행하면서 <도랑선비·청정각시> · <짐가제>, <바리데기>, <붉은선비·영산각시>, <궁산이·명월각시> 서사무가를 차례로 구연한다. 그 이후 《대내림》에서 망자의 가족과 망자가 만나 서로 감응을 하며 굿판이 절정에 이른다. 마지막에는 《천디굿》, 《하직천수》에서 망자와 여러 신들을 굿판에서 떠나보내고 잡귀잡신을 대접하며 굿을 마무리한다.

### 3. 함경도 망목굿 무가의 실재

#### ㉠ ① 《동갑접기》, ② 《도랑축원》, <도랑선비·청정각시>

唱 : 池金織(女, 五四歲)

장구 : 同人

양푼 : 韓英子(女, 四八歲)

임석재) 다음에는 왕당천수는, 들어가는데 문열이천수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 다음에는 왕당천수 뒤에 동갑접기를, 지금섬 여사가 하겠습니까.

-장구 치면서-

(노래)

으어나- 에- 나- 잔차<sup>18)</sup>- 올- 세-

(말)

에- 잔차 잔차나 한들산아.

천지 동지 선옥<sup>19)</sup> 잔차도 아니요.

예순 하나 한갑(還甲) 잔차도 아니요.

(노래)

새 선달의 도문<sup>20)</sup> 잔차도 아니- 올세.

(말)

에- 신랑신부의 열락(悅樂) 잔차도 아니요.

(노래)

은혜 많구 신세 많은 동갑님의 후연 잔차를 디레-에오.<sup>21)</sup>

(말)

---

18) 잔차: 잔치의 함흥 방언.

19) [璿璣玉衡]

20) 도문(到門): 과거에 급제하여 흥패를 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일.

21) 은혜 많구 신세 많은 동갑님의 후연 잔차를 디리시오: 은혜가 많고 신세를 많이 진 동갑님께 후한 잔치를 드린다는 의미이다.

에- 고개 다숫, 구비 다숫, 영(嶺) 다숫, 말이<sup>22)</sup> 다숫, 다리 다숫,

(노래)

넘겨주던<sup>23)</sup> 삼천동갑(三千同甲) 후연 잔차르 디레세오.

(말)

에- 매사(每事) 끝에 도바주고 성장 끝에 도바주던<sup>24)</sup> 삼천동갑의 후연 잔치를 받으시  
옵고, 은혜 많고 신세 많은 동갑님, 이십육갑(二十六甲)에 앵기신 동갑님아, 을축(乙  
丑), 정축(丁丑), 계축(癸丑), 신축(辛丑)하니<sup>25)</sup>

(노래)

축(丑)에나 다숫 앵계신 동갑.<sup>26)</sup>

(말)

에- 갑자(甲子), 병자(丙子), 무자(戊子), 임자(壬子), 경자(庚子), 정자(丁子)하니<sup>27)</sup>

(노래)

자(子)에나 다숫 앵계신 동갑

(말)

에- 병인(丙寅) 무인(戊寅) 임인(壬寅) 기미하니<sup>28)</sup> 느이 다섯<sup>29)</sup> 앵긴 동갑님아,  
도화신 앵기신 육갑이 앵기신 동갑님 내리실 적,

(노래)

한 살 아래 망령 동갑, 한 살 이상으 망령 동갑.

(말)

에- 두 살 아래 망령 동갑, 두 살 이상 망령 동갑, 시 살 아래 망령 동갑, 시 살 이상  
망령 동갑,

(노래)

---

22) 말이: 마을이.

23) 넘겨주던: 넘겨주던.

24) 매사(每事) 끝에 도바주고 송장 끝에 도바주던: 『관북지방무가』에는 ‘어- 매치 끝에 도바주던 동갑이  
요 성장<刑杖> 끝에 도바 주던’으로 구연된다.

25) 육십갑자에는 ‘을축(乙丑), 정축(丁丑), 기축(己丑), 신축(辛丑), 계축(癸丑)’으로 되어 있다.

26) 축(丑)의 다숫 앵계신 동갑: 12간지 중 하나인 ‘축(丑)’으로 앵긴 동갑을 말한다.

27) 육십갑자에는 ‘갑자(甲子), 병자(丙子), 무자(戊子), 임자(壬子), 경자(庚子)’로 되어 있다.

28) 육십갑자에는 ‘병인(丙寅), 무인(戊寅), 경인(庚寅), 임인(壬寅), 갑인(甲寅)’으로 되어 있다.

29) 느이 다섯: 문맥상 ‘인(寅)의 다섯’이 적절하다.

삼십(三十)의 육동갑(六同甲)이 후연 잔차를 데려나 놓으서.

(말)

에- 은혜 많고 신세 많은 동갑님들 왕당천수 불도문 뒤에<sup>30)</sup> 후연 잔차를 디리있습네다.

황철사 된 고개여 넘겨주던 삼천 동갑에 받으시웁고, 칼치령 고개 넘겨주던 무새장 동갑이 받으시고,

(노래)

가시원 고개 넘겨주던 나무꾼 동갑 후연 잔차요.

(말)

에- 불치령 넘겨주던 각천각방<sup>31)</sup>에 널리신 동갑 후연 잔차를 받으시웁고, 오늘날에 드실 적이요, 장기원 저 고개 넘겨주던 무당 동갑으 후연 잔차를 받으시웁고,

저실적이요 도와실 황천강 대다리, 임진강 태기원, 모래원 세왕다리, 원양산 큰가에,

(노래)

넘겨주던 월천 동갑이 후연 잔차요.

(말)

에- 후연 잔차로 받으시웁고, 불쌍한 망령으는 조금 질긴도 편히 쉬게<sup>32)</sup>

(노래)

아- 무얼 무엇을 내났소다?

아- 청세지라 홍세지라.<sup>33)</sup>

아- 홍산이라 백산이라.<sup>34)</sup>

아- 겨란이라 수란이라.<sup>35)</sup>

아- 어적(魚炙)이요 산적(散炙)이요.

아- 물은 편이요 더분 편이요.<sup>36)</sup>

아- 물 아래는 기는 괴기.

---

30) 왕당천수 불도문 뒤에: 앞서 구연한 <왕당천수>를 말한다. <왕당천수>는 불경인 千壽慶을 염송하면서 여러 신들이 좌정하기를 기원하는 곳이다.

31) 각천각방: 각처각방(各處各方).

32) 조금 질긴도 편히 쉬게: 아래 노래를 참고하면 '좋은 길도 편히 쉬게'로 이해된다.

33) 청세지라 홍세지라: 청세주(酒)와 홍세주(酒)로 추정된다.

34) 홍산이라 백산이라: 홍삼(紅蔘)과 백삼(白蔘)으로 추정된다.

35) 겨란이라 수란이라: 계란(鷄卵)이라 수란(水卵)이라.

36) 『관북지방무가』에는 '물은 평이요 더분 평이요'라고 구연된다.

아- 물 우에는 뛰는 괴기.  
아- 야들 가달에 대물에여.<sup>37)</sup>  
아- 예물(禮物) 예단(禮緞)을 받아들 놓고.  
아- 불쌍하신 망령들은  
아- 좋은 질로 편히 지게.<sup>38)</sup>  
어여- 나에- 에- 나- 발원이요.

(말)

에- 도화실 서호방 발원이요, 동발원 부르지며 동방국이 서제시오,  
동갑으 산천못하니 집불산 들어기어세,

(노래)

지금세 천하님아 오육사제 발원하주소

(말)

에- 동발원(東發願), 남발원(南發願), 서발원(西發願), 북발원(北發願), 중앙발원(中央發願)

(노래)

천하지야 인발원과 명부발원을 다 올리거든.

(말)

에- 다 각배 돌우시면 문타래 삼도를 면하는 법이요, 무석국 부치시면 삼중례 삼범을  
잡으시며 꽃이 피고 풍요소리 창천하고 인간사람 절시(絶世)하며,

(노래)

삼석(三色) 병풍 돌려채고 옥소(玉簫) 소리 진동하거늘,

(말)

에- 발원시 망자고 가고,

(노래)

아천 대한의 선무당이 OOOO에 동네 귀공을 쥐라.

---

37) 야들 가달에 대물에여: 『관북지방무가』에는 ‘야들 가달 大文魚에’로 구연된다. 여덟 가닥의 대문어를 준비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동여지승람』에는 문어가 함경도의 특산품으로 적혀있다.

38) 아- 불쌍하신 망령들은 아- 좋은 질로 편히 지게: 불쌍한 망령들을 좋은 길로 편하게 보내달라는 의미이다.

(말)

에- 동방국을 돌아보니 손아서 돌이요 남방을 돌아보니 고소리 물이요 서방을 돌아보  
니 백일 황자,

(노래)

에- 에- 어- 어- 우리미 돌에.

(말)

에- 북방을 돌아보니 흑모초<sup>39)</sup>를 두르시라, 중앙에는 황모초를 걸으시라.

(노래)

동방명월(東方明月)을 월모태백이여, 구동심산(九重深山)에 환돌(還都?)로 들이.

(말)

에- OOOOO

(노래)

육체법<sup>40)</sup>도 다 돌리닷소. 육체법이 OOOO

(말)

에- 육도법도 다 돌렸습네다.<sup>41)</sup> 그만저만 휘다두고<sup>42)</sup> 옛날 옛 자즉<sup>43)</sup> 근본이라,

(노래)

칼을 갈아 손에다 쥐고 장대<sup>44)</sup> 갈아 품에다 품고,

(말)

에- 서울로 귀송가자 시가올로 송새가자. 적선<sup>45)</sup>가자 OOOO 송새가자 하오시니, 하  
는 피 없지 못하여 있는 법인데, 귀신의 근본을 뜨시면은,

(노래)

도랑선배, 청정각시, 무슨 남단에 피어져서 받는 법을<sup>46)</sup> 내돌리대.

---

39) 모초(毛絛): 모초단의 준말로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한 종류.

40) 육체법: 육십갑자와 연관된 듯하다.

41) 이하 <도랑선배 청정각시>가 구연된다.

42) 휘다두고: 치위두고(?)

43) 옛 자즉: 옛 자식.

44) 장대: 은장도(銀粧刀)를 말함. 이와 유사한 대목이 <오귀풀이>에도 보인다.

45) 적선: 적송

46) 나무에 죽어서 제사를 받는다는 결말과 관련이 있는 듯.

(말)

에- 옛날에 이 시절에 하도둥그르는 옥황에서 아침으면 오늘으 비룻물<sup>47)</sup>을 싱기다가 비룻돌을 댕돌에 떨귀 깨트려 삼통객<sup>48)</sup>이 난 득죄(得罪)로 지하궁에 귀신정배를 내리 와서,<sup>49)</sup> 매화궁정의 도화부인으는 아침에는 세숫기를 나르고 낮이면은 양치기를 나르고 저녁이면 다릿기<sup>50)</sup>를 나르다, 세숫대를 지하궁에 내리띠리 삼통객이 난 득죄로 지하궁에 귀신정배를 내리왔어.<sup>51)</sup>

(노래)

하도둥그가 매화궁정의 도화부인이 청실홍실이 배필을 묵으<sup>52)</sup>-

(말)

에- 배필 묵어 살았더니만은, 삼십 오 세, 서른다섯이 되야도, 남자 간에 여자 네도 지양 없 어 하둥- 사지절이 가서<sup>53)</sup> 백일기도를 드렸습시다. 백일기도를 디렸더만은 그날 밤 몽사(夢事)여 천지 아득한 구름을 헤치구, 서여동자<sup>54)</sup> 한 쌍이 내리와서 가른 없이<sup>55)</sup> 안자있는 디 안자있는 기, OOOO

“너는 어디서 오는 동자야?”

“나는 하방정토에 내리와 각방(각방향?)음소 땡기는데 하지절에서 이 댕으로 가라구 해서 왔습시다.”

사되시니,

깼더나이 남가일몽(南柯一夢)을 받았습네다.

(노래)

이 곳서 해리<sup>56)</sup>하면 자손으느 불명도 하오.

(말)

에- 그날부터 하도충군과 도화부인은 무쇠비단 꽃 이불을 구비구비 펼쳐놓고 원앙금 침 자물베게 머리만침 놓고 셋별같은 늦요강을 손질만큼 놓고 일기동품이 들었으니만

---

47) 비룻물: 벼룻물.

48) 삼통객: 세 조각.

49) 도랑선비의 부친이 하도둥그가 벼룻물을 씻다가 벼룻돌을 깨트린 죄로 지하궁[지상]으로 적강하였다는 의미이다.

50) 다릿기: 자리끼.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방안에 떠다두는 물.

51) 도랑선비의 모친이 매화부인이 아침에는 세숫대야, 낮에는 양치기, 저녁에는 자리끼를 나르다가 세숫대야를 깨트린 죄로 지하궁[지상]으로 적강하였다는 의미이다.

52) 하도둥그가 매화궁정의 도화부인이 청실홍실이 배필을 묵으: 도랑선비의 부모인 ‘하도둥그’와 ‘매화부인’이 배필을 맺었다는 의미이다.

53) 하둥- 사지절이 가서: 도랑선비의 부친인 하도둥구가 하지절에 갔다는 의미이다.

54) 서여동자: 선녀동자.

55) 가른 없이: 가이없이, 불쌍하게 불쌍없이 / 가이 없이

56) 해리: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은,

도랑선배여 석 달이 되었습니다. 석 달에 늦을 받아 다섯 달에 반짐 설어 아홉 달에 고이 설어 열 달에 헐어 설어 나니.

(노래)

달 같은 남자- 애기- 얻어- 낳습네다.

(말)

에- 남자 애기 나니, 물명지 간명지<sup>57)</sup> 석 자 세 치 끊어 내어 도툼마리 외운 듯이 가리맹기<sup>58)</sup> 실맹기 명실 맞차 묶어 놓구, 그러저러 석 달 열흘이 되니, 하도충군두 한 자식이라 이름을 짓겠는데,<sup>59)</sup>

(노래)

하늘이다가 비(比)하겠네, 땅에다가 비(比)하겠네.

(말)

에- 어디 비할 데 없습네다. 낭개<sup>60)</sup>다 따라 짓자니 나무는 오래면 구새두 먹고새 니<sup>61)</sup> 먹고 쓰러지니 그두 못 짓겠다. 흠에 도태 흠이다 따라 짓자니 흠으느 구슬을 만나면은 OOOO 그거두 못 짓겠다. 묵은 솔에 물이다 따라 짓자니

(노래)

구년진수(九年之水)여 칠년대한(七年大旱)<sup>62)</sup>을 만나는 도도 조차<sup>63)</sup> 거두 못 짓겠다.

(말)

에- 불을 하테 섞이자 따라 짓자니 불으는 물을 부으면 도도시<sup>64)</sup> 죽어지니 그것도 못 짓겠다. 그러면은 한늬<sup>65)</sup> 평상 썩지도 않고 재미<sup>66)</sup>도 아근<sup>67)</sup> 아니 먹으니<sup>68)</sup> 돌이다 따라 짓는 썩에 백이는 없다.<sup>69)</sup>

57) 물명지 간명지: 물명주와 가는 명주.

58) 가리맹기: 머리맹기.

59) '하도충군도 자기 자식이라 이름을 짓겠는데'라는 뜻이다.

60) 낭개: 나무.

61) 구새두 먹고새니: 나무에 벌레가 먹어 속이 썩는다는 뜻이다.

62) 구년진수(九年之水)여 칠년대한(七年大旱): 구년진수는 중국 요나라 때 9년 동안 계속되는 흉수를 말 하는 것이며, 칠년대한은 중국 은나라 때 7년 동안 계속되는 큰 가뭄을 말하는 것으로 극심한 흉수와 가뭄을 뜻한다.

63) 도도 조차: 그것도 쫓아서.

64) 도도시 : 당연히.

65) 한늬: 한 평생.

66) 재미: 바구미의 방언(경북), 곡류를 파먹는 벌레의 일종.

67) 아근: 근방, 근처의 북한 방언.

68) 재미도 아근 아니 먹으니: 바구미와 같은 벌레도 가까이 와서 먹지 않으니.

69) 썩에 백이는 없다: 수 밖에는 없다.

(노래)

길 도째(字) 돌 석째(字) 따라서 ‘도랑선배’라고 이름을 졌소.<sup>70)</sup>

(말)

에- 이름을 지어놓고, 젓은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히 양정(良正)하여 유극나무 봉황산<sup>71)</sup>-성 같이 기른 애기,

(노래)

초 세 살을 근만하니<sup>72)</sup> 어머니를 외왔소데.<sup>73)</sup>

(말)

에- 네 살을 거따보니<sup>74)</sup> 아버지, 모친 부친 다 잃습네다. 도랑선배 기물은 한 동우 노솔<sup>75)</sup>에거늘<sup>76)</sup> 내 어찌 있어도 뉘기 지신기 니기 서래니,<sup>77)</sup> 지향 없어 방방곡곡이 문전걸식하여 땡기는데, 하루는 한 노인이 하는 말이,

“야, 도랑선배야, 너 어머니 만지 죽구 너의 아버지 하는 말이, 남경땅 지미두루<sup>78)</sup>에 외삼촌이 너의 외수<sup>79)</sup>다. 우상선배, 외삼촌이다.”

찾아가라고 사로시니,<sup>80)</sup>

(노래)

거기서 문전걸식 하여 남경땅으로 돌아도 간다.

(말)

에- 남경땅 지미두루에 가, 길 아래 채찍 내어놓구<sup>81)</sup> 길 우에 쌍채찍이 들어가서,  
“이 댁에서 하루밤 서이 가면<sup>82)</sup> 어떻겠소?”

70) 장채순 구연본에는 돌에다 비양하니 돌 석자에다 선비 사를 새겨나니 도랑선배가 되었소다.라고 구연된다.

71) 봉황산: 함경도 덕원군에 있는 산.

72) 근만하니: 꼭 차니.

73) 어머니를 외왔소데: 어머니를 여의었다는 뜻임.

74) 거따보이: 되니.

75) 노솔: 늦쇠 솔.

76) 도랑선배의 기물이 한 동이 늦쇠 솔만 남았다는 의미이다.

77) 뉘기 지신기 니기 서래니: 누가 계시고 누가 슬퍼하냐의 뜻이다.

78) 두루: 땅, 들판의 함흥 방언.

79) 외수: 외숙(外叔). 외삼촌. 참고) 이고본본에는 외수를 신직과 관련하여 구연된다. “어머니 우리들은 외수굴 주구 가야 되는데요 / 아버지 계서 아버지계서 외수굴 바다라. / 어머니계서 외수굴 바다야지요. / 그레 그때 앉아서 / 야, 그런 것이 아니다. 너이가 새명제(三兄弟)는 삼태자(三台星)를 앉ारा. 그 답이는 칠성(七星)으루 앉아라. 그리구서리 너이 그 답이는 시왕(十王)으루 앉아서 열두시왕으루 다짓을 지어서 앉아라.”

80) 사로시니: ‘사뢰다’와 관련하여 ‘말하시니’, 혹은 ‘하시니’라는 뜻임.

81) 내놓구: 내려 놓고.

82) 서이 가면: 쉬어 가면.

어른이 주인을 찾는가 하고 어서 날래 들어오느냐 하는 거 보니, 아니, 쪼끄만 애가 마니 먹으면 한 서너, 다섯이 먹었겠거늘,

“니가 어디서 오는 애가 그렇게 온돌(?) 집에 주인을 찾고 들어오느냐?”

“저는 남서문 밖에 하도충군의 소자올시다. 초 시 살에 어머니 떴고, 초 네 살에 아버지, 모친, 부친 다 외이고, 나의 기물은 한번 묵는 스비(?), 그늘 리음 비스던 누비, 주신거 미길 사람이지 지향 없소.<sup>83)</sup>”

남경땅 지미두루, 우상선배 외삼촌이라 하니,

(노래)

옆어지다 엇나무도 남으라 하구, 외삼촌으가 찾아도 간다.

“에- 니가 도랑선배야? 니가 도랑선배이든 내 생질(甥姪)이 불명[분명]도 하다.”

(말)

“에- 너으 어머니 먼지 죽구 너 아버지 이리 됐지 마다. 부부죄 한죄라는<sup>84)</sup> 게 무엇이냐? 그러나 할 수 없다.”

정성지어 미기시고,<sup>85)</sup> 그날부터 독서당을 무어놓구<sup>86)</sup> 글공부를 시키는 구나. 천자책을 옆에 끼고 모래삼판<sup>87)</sup>을 손에 쥐고 독서당에 댕길 때는 날이 가고 달이 오시니 삼오(三五)는 시오(十五), 열다섯이 되니, 천자는 유학이 두시<sup>88)</sup>는 당학이 동문 서식<sup>89)</sup>이 점지 초곤이 사략(史略) 당곤이 통감(通鑑)은 일권이 논어(論語) 맹자(孟子) 시전(詩傳) 서전(書傳) 소학(小學) 대학(大學)을 맞차내니,<sup>90)</sup>

(노래)

선학<sup>91)</sup>이도 명필이요, 대학에도 명필이로데.

(말)

에- 글을 짓는 구나.

(노래)

동서에 밤 한권이, 길위서는 영흥서이를<sup>92)</sup>,

83) 도랑선비의 기물인 듯 하나 정확히 알 수 없다.

84) 부벽제 한죄: 부부가 지은 죄가 한 죄라는 것으로 초반부와 연관된 듯. 부모님의 죄.

85) 정성지어 미기시고: 우상선비가 도랑선비를 정성스럽게 먹이며 키웠다는 뜻이다.

86) 무어놓구: 지어놓고.

87) 모래삼판: 예전에 학생들이 필기구로 쓰던 모래로 된 노트나 칠판.

88) 두시: 두보의 시.

89) 서식: 소식의 시.

90) 맞차내니: 앞의 나열한 책들의 공부를 마쳤다는 뜻임.

91) 선학: 소학(小學)의 와음인 듯.

92) 길위에서는 영웅소리를?

(말)

에- 볼 때마다 귀신 천신이 노는 듯이 글을 짓는 구나.

(노래)

글썸<sup>93</sup>)는 이적선<sup>94</sup>)이 두레미 다체 돌백으로 글을 외네.

(말)

에- 공부를 그만하면 지 이름자 가는 지나 알겠고, 처가 같은 여식은 대번 문우새 잡고 놓거늘, 방방곡곡이 성화하니<sup>95</sup>) 후토부인(后土夫人)의 여식이 임기도 길 세기 고<sup>96</sup>) 재지두 비상하다네 아마도 도화실 백옥문는게 닫곤 없다. 초연에 서말[첫말] 붙이 낫설이요, 이연에 이말 붙이 받느라고 받을 적에.

(노래)

고개 이 짝에 지어내니, 고개 저 짝에 지어내니.

(말)

에- 고개 한 마디, 고개 한 마디 사신을 부리 놓고, 고개 이 짝에 길썸에 핀 연꽃으는, 고개 저 짝에 내주소. 고개 저 짝 피신 연꽃으는 재를 넘어 고개 이 짝마저 졌습네다. 한 연에 삼 말 건네와 하지 납장 덕은 내고 구합<sup>97</sup>)을 캐는 구나.

(노래)

갑자을축느 해중기미요 병인정묘는 노정하라.<sup>98</sup>)

(말)

에- 구합을 캐니, 고진감래(苦盡甘來)여 흥진비래(興盡悲來)라. 한 번은 흥하고 한 번은 해하리라.

“구합을 캐니 너희 둘이 구합은 수화상극(水火相剋)<sup>99</sup>)이구나. 도랑선배, 이 혼사를 파정<sup>100</sup>)하자.”

“아버님, 나는 갔다 돌아올 길이 없으니 이 혼사를 파정을 못하겠습네다.”

“그러면 니 생각대로 하장.”

---

93) 글썸: 글씨의 발언

94) 이적선: 이태백.

95) 방방곡곡이 서마하니: 문맥상 방방곡곡에 결혼할 처자를 구한다는 의미이다.

96) 임기도 길 세기고: 인물도 잘 생기고.

97) 구합: 궁합.

98) 갑자을축느 해중기미요 병인정묘는 노정하라: 갑자을축(甲子乙丑)은 해중금(海中金)에 병인정묘(丙寅丁卯)는 노중화(爐中火)라는 것으로 궁합을 보는 방법의 하나인 ‘납음오행법’을 말하는 것이다. <산천곳>에도 이와 같은 궁합이 보인다.

99) 수화상극: 물과 불이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서로 원수와 같이 지냄을 비유하는 말.

100) 파정: 파경(破鏡).

하고,

아부임은 서산 나귀여, 말부담<sup>101)</sup> 지어타고 초한장 지으시고,

(노래)

칭개 기석<sup>102)</sup> 남의 땅에 일약 선상님 지땅으로 날고누나, 가는 구나.

(말)

에- 일약 선상님 지땅에 초당 중당이 있는데, 초당이 동쪽에 당남귀<sup>103)</sup> 섰을 때다. 당남귀라 부담을 두리우고<sup>104)</sup>, 중당에 올라서니 서쪽에 상남귀<sup>105)</sup> 섰을 때다. 상남귀다<sup>106)</sup> 말을 매고 창당[상당]에 올라서니 바둑을 두러 해죽이 두러 만발하오. 설~연하 말~연하 만발하여 일약 선생님 당중에 잼피방에 넘어들어 인사연 패사정 후여,  
“선생님, 저는 소문 잔차날을 받으러 왔다.”

고 사로서니,

선생님의 연주한데 부치 무신 연후야, 뱃길[배삐] 한 장 삼사질을 만져놓구 잔차날을 고르는 구나.

(노래)

은장네 계란기, 하루 책상 드리지, 짐장 점피를 내어 놓구, 응진년에 말을 갈아, 000 000, 봉황 황실 장단에, 임실디실 하실, 풍산을 빗으니 용산은 00에, 잠기고 나 짚는구나, 예산 선녀 여중추[일사 삼경 이중첩], 도화실적 좌중호, 오송 하하 육중 복도 000,<sup>107)</sup> 재(字)를 골라 짚어 보이, 금재 패재 집어 보니, 금재는 서울(세울) 금(建)재, 패재는 파할 파(罷), 옴파에(금패에) 살가장도 되는구나<sup>108)</sup> 이 날도 못쓰게 (다), 정재 패자 집어 보니, 정재는 일정 정(定)재, 패재는 달을 폐(閉)재, 승재 남재 집어 보니, 승재는 일불(이룰) 승(成)재, 남재는 아들 남(男)재, 이재 저재 삼사장을 (집어보니) 나드레 나는구나, 나드리라구 나는구나.

(말)

에- 도랑선배 예장<sup>109)</sup> 갈 날은 삼월 삼일<sup>110)</sup> 날이 전실<sup>111)</sup> 좋고, 도랑선배 장개가 실 날은 갑인년 윤사월 초파일<sup>112)</sup> 날이 좋고, 어어- 청정각시 시집 올 날은<sup>113)</sup>

101) 말부담: 말포단[馬蒲團]. 부담은 포단의 옛말.

102) 칭개 기석: 칭계기석(淸溪奇石).

103) 당남귀: 당나무.

104) 부담을 두리우고: 당나무에 말포단을 둘렀다는 의미이다.

105) 상남귀: 향나무.

106) 상남귀다: 향나무에다.

107) 일상생기이중천하 삼하절재사중유혼 오상항하육중복덕 칠하절명팔중기혼 생기복덕 날을 받아.

108) 나쁜 날이 되었다는 뜻.

109) 예장: 납폐(納幣).

110) 삼월 삼일: 삼진날.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 하여 제비 집을 손질하고 화전놀이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

111) 전실: 의미상 ‘정말’의 뜻이나 함경도 방언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노래)

유월 유딘<sup>114</sup> 날, 에- 헤- 이- 오- 에이- 종소.

(말)

에- 납채고나 사돈댁이 전하시구, 그렇저렁 예장 갈 날이 당진하는구나. 천하으 비단 지(至) 하이 비단 다 걸을 적, 어찌 어찌 그 정성일까,

(노래)

푸른 푸른 청세단, 붉세 붉세 홍세단, 희숫 희숫 백세단, 남실 남실 녹세단, 노랫 노랫 황대단<sup>115</sup>, 오록도록<sup>116</sup> 단논에<sup>117</sup>(다홍녹홍, 담요, 장롱?) 세모시 지피<sup>118</sup>)에, 물명지 곤명지 원앙금침 기봉침(九鳳枕)<sup>119</sup> 어삼선, 도삼선<sup>120</sup>, 양초단<sup>121</sup>이야 모초단(毛綃緞) 금초단(金綃緞), 일만도 일만필 끊어내어, 돛도자를 불러내어 글을 봉하고,<sup>122</sup> 부담자<sup>123</sup>를 불러내어 글짐을 지우되,<sup>124</sup> 천량짜리 함에다 만량짜리 지전에, 오자라라<sup>125</sup> 등채<sup>126</sup>다 등쪽에나 잡시다. 월하일모(月下日暮)-이고, 한 모로이 올라서니 보천국수 대대국수 절상국수 적국수여,<sup>127</sup> 상물라지 상물사,<sup>128</sup> 무른 귀신 노근 귀신, 아칫발<sup>129</sup>에 서 골근<sup>130</sup> 모네<sup>131</sup>, 옆어지자. 못 주겠니 만치자<sup>132</sup> 못 주게, 한 모로 두 모로 올라가는 두 채 질, 내리 오는 시 채 질,<sup>133</sup> 외가<sup>134</sup> 처가 운돌이(?) 자힐 처다.<sup>135</sup> 그 수별이<sup>136</sup> 대명전에 당진하이 내창은 밀어넣어 장창을 싸고, 미달이 왔지

112) 윤사월 초파일: 사월 초파일(석가 탄신일)

113) 이북가망굿, 도랑청천굿. 이북의 가망굿 - 세존굿과 연결할 수 있음. / 살을 막아주는 날임.

114) 유두.

115) 황대단: 황세단의 와음인 듯.

116) 오록도록: 알록달록.

117) 단견(緞絹)일 가능성이 있음. 단 넘어, 알록달록한 비단 넘어.

118) 지피: 깎을 이르는 듯.

119) 기봉침으로 들리나 구봉침(九鳳枕).

120) 어삼선, 도삼선: 삼베의 일종인 삼승의 일종인데 어떤 삼승인지 분명하지 않음.

121) 양초단: 영초단(影綃緞). 비단의 한 가지. 모초단과 비슷하나 질이 좀 낫다.

122) 도도자를 불러내어 글을 봉하고: 도도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치 않으나 영상자료원본에는 삼갈 금(禁)와 봉할 봉(封)자를 새겨놓는다고 했으므로 그와 유사한 뜻으로 보임.

123) 부담자: 등짐을 질 사람으로 보인다.

124) 영상자료원본에는 삼갈 금(禁)자를 봉할 봉(封)자를 새겨놓는다고 한다.

125) 오자라라: 등채의 모습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수식어로 보이니 뜻이 분명치 않음.

126) 등짜래다: 등짐을 질 때 사용하는 비단 끈.

127) 영상자료원본에는 영흥국수, 대대국수, 보천국수를 당진한다고 한다.

128) 상물은 상문(喪門)으로 보면, '상물라지 상물사'는 여러 흉한 귀신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129) 아칫발: 위태로운 걸음걸이를 말하는 듯 보임.

130) 골근: 오래된 뜻을 지닌 '골은'으로 보임.

131) 모네: 길을 가다가 길가에 있는 '논'으로 보임.

132) 만치자: 만치자는 '만지다'의 방언.

133) 길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장면으로 한 모퉁이, 두 모퉁이로 올라가는 둘째 길, 내려오는 셋째 길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134) 외가 처: 외가(外家)는 집의 바깥, 혹은 집의 문간과 과

135) 자힐 처다: '대다'의 옛말인 '다히다'의 변화형인 '다힐'의 구개음으로 보임.

밀어놓구 알자(曰字)밀창을 가려놓구, 향상<sup>137)</sup> 중에 넘어도 하처평풍<sup>138)</sup> 들어내, 한 짝에는 국하느 한 짝으는 000,<sup>139)</sup>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추는 한 두르,<sup>140)</sup> 이 덕에 연화(蓮花) 만발하니 왜 떠나니 전재느<sup>141)</sup> 어깨춤이 절로나 예장예물을 받아내, 주홍반<sup>142)</sup>에 받아내니 얼씨구 좋다, 노는구나.

(말)

에- 예장예물을 받아들여 조홍반에 받아 넣고 글봉을 킅어 보니, 어른예 예단이고 호가자제(豪家子弟) 예물이 분명하옵니다. 거개 서화부인은 점شم끼<sup>143)</sup>를 잡수시고 예장예물 건네고 집당에 돌아오니,

어리신 도랑선배,

“우리 양반으 혼사고, 양반으 잔찬데, 그대 풍속을 돌아보니 어떠습덥니까?”

“야야, 그 말을 말아라. 0000 도화실<sup>144)</sup> 집이고, 총신이 되길 분명하드라.”

도랑선배는 안심하고, 그렁저렁 날이 가고 달이 오더니,

(노래)

장개 갈 날이 당진을 하오.

(말)

에- 장개 갈 날이 당진 하느이, 옛날에 다 한짝 나드레<sup>145)</sup> 했습네다. 신랑이 먼지<sup>146)</sup> 가고 새로 날을 받아 신부가 오는 법입네다. 도랑선배는 관대관복을 지어 입히시고, 도화실 어느 앞이여 송배<sup>147)</sup>를 뜨고, 각대를 두르시고 삼오각대 도와주고, 00 같아 갓을 쓰고 나비같아 무채지구.

(노래)

마당 동 뜰에서 도화실 마차소리 들여채고 정채소리 나였소데.

(말)

---

136) 수별이: 수별감의 뜻으로 여기서는 하인을 뜻함.

137) 향방: 한 잡의 주인이 거처하는 상방(上房)의 뜻임.

138) 하처평풍: 화초병풍(花草屏風).

139) 한 쪽에는 국화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 쪽에 있는 것은 음질이 불량하여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음.

140)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추는 한 두르: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추는 학 두루미. 남도민요의 <새타령>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보인다. (용례 추가 할 것)

141) 왜 떠나니 전재느: 미상.

142) 주홍반: 붉은 빛깔의 소반.

143) 점شم끼: 점심.

144) 도화실: 높은 집(?)

145) 나드레: 나드리=혼례(함흥 방언)

146) 먼지: 먼저.

147) 송배: 흉배(胸背). 관복의 가슴과 등 쪽에 수놓은 형질의 조각으로 붙이던 표장.

에- 모삼선(어삼선?) 십 여자 끊어내어 맛을 그려보고(끓이부구),

(노래)

송산서(도삼선?) 십 여자 끊어내어 길삼백이를 들여도 보나.

(말)

에- 무인지간(無人之間) 삼십 리(三十里) 나도 가니,<sup>148)</sup> 여물<sup>149)</sup> 업고 조물 업은 저  
기 지배 물동이를 옆에 끼고 또바리<sup>150)</sup>를 손목아리에 걸구, 말머리를 앞선 듯이 건네  
가거늘, 가여 손이 하나 코으로 단지만[그냥] 보내고,

(노래)

말을 소골라여<sup>151)</sup> 또 한 모로 내려도 간다.

(말)

에- 또 한 모로 나도 가니, 뒷동산에서 놀가지<sup>152)</sup> 내리워서 말머리를 앞선 듯이 건  
네가 거쩍거저기여,

“아부임, 우리으 천년 유책이 만년 해리기여 백년 봉사하구 살겠는데, 산짐상이 산에  
이숙기숙 버리내리와 우리 말머리를 저렇게 건네가이 서해비네 분명합니다.<sup>153)</sup>”

“야, 대신이 되야 쇠신의 길을 가다니,<sup>154)</sup> 길정새라 속석이라. 또 한 생원을 청원을  
길로트니 여니라. 노루, 장재라? 너으 부부해리[부부해로] 하러 갔지만 장생불사(長生  
不死) 하느리다.”

(노래)

어서 날래도 내려도 가자.

(말)

에- 영(命)을 거영치 못하고 또 한 모로 내리가니, 꼬리 아홉 가지 천년 구무여<sup>155)</sup>이  
말머리를 건네가므 청천(淸天) 새마디 울거늘,

“아버님, 우리 좋은 날 좋은 시를 받아가지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야, 대신이 되어 소신의 길을 가다니냐? 한뉘<sup>156)</sup>여 하나로 신지 못했는데 두시나로

148) 나도 가니: ‘내려가니’의 함흥 방언.

149) 여물: 우물물(?).

150) 또바리: 파리.

151) 말을 소골라여: 말을 몰아서.

152) 놀가지: ‘노루’의 함흥 방언.

153) 서해비네 분명합니다: 아래 ‘흉해비네 분명합니다’와 관련하여 ‘흉조가 분명합니다’로 해석할 수 있  
다.

154) 대신이 되야 쇠신의 길을 가다니: ‘대신(大臣)이 되어서 소신(小臣)의 길을 가다니’의 뜻으로 보임.  
큰 신하가 어찌 작은 신하가 다니는 길을 가냐는 뜻으로 추정된다.

155) 구무여: 구미호.

어디니 있겠느냐? 그것은 해리하면 좋은 늦이다. 부모 영이라. 너으 도화실 영이자 하늘이다.”

(노래)

어서 날래도 내려도 가자.

(말)

에- 또 한 모로 나도가니, 머리 푼 상재(上佐) 머리 풀어 비발<sup>157)</sup>하고, 애곡성(哀曲聲)을 둘러치며 말머리를 건네가니,

“아부님이, 우리 질에는 상재가 뒤센데,<sup>158)</sup> 멀리 푼 상재 저렇게 말머리를 건네가니 흥해비네 분명하시오.”

“야, 너으 오늘으 잔차 날에 몽둥 대살(大煞)이 뺀친 날이다. 살생을 할라 그러는 채 어서 날래 내리가자.”

영을 거영치 못하고 말을 소굴라여 또 한 모로 내리가니, 까마귀, 오재끼 저증상이 말머리 아득히 덮어 오며 ‘까옥, 까옥’ 하거늘.

“아버님, 이승 사재는 까마귀 분명한디, 웬일이오?”

사로시니,

“야, 잔말 말아라. 우리 양반으 잔차고 어른으 잔찬디, 때가 늦고 시간이 늦는다. 각자 살(煞)을 쌓는다고 그러는 데 잔말 말고 어서 가자.”

또 한 모로 내리가니,

(노래)

지구가던 채근찌<sup>159)</sup>니 세상봉객[死狀○○]이 나섰내다.

(말)

“에, 아부님, 흥해비네 분명하시오. 가만히 지구가던 채근찌니 시상총객이 났으니 이게 웬일이오?”

“야, 그것도 좋은 일이다. 흥으는 길로 텅이는 노니라.<sup>160)</sup> 너으 부부 해리 하라 같은 면은 아들을 삼사형제 날러지다. 어서 날래 내리가자.”

또 한 모로 내리가니,

(노래)

포천국수 대대국수 설상국수여 당진을 한다.

---

156) 한뉘: 한 평생. 한뉘은 늘(?)

157) 비발: 변발?

158) 뒤센데: 드물다(?)

159) 채근찌: 초군(樵軍)꾼.

160) 흥으는 길로 티하는 것이라: 흥조(凶兆)는 길조(吉兆)로 통하는 것이라는 뜻.

(말)

에- 그때 그적에는 도랑선배, 이승 총기 강귀졌고,<sup>161)</sup> 저승 총기 밝아오는 구나.<sup>162)</sup> 아버님의 벽력같이 소리치며,

“양반으 자리미고, 양반으 자손인데, 날래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시간을 넘구지 말고 배뻐 가자.”

거기서 정신을 겨우 가다듬어가지고, 말을 서불라여 또 한 모를 내리다니,

(노래)

십 리 허에 그만장이요, 오 리 안에 말방서다고이,

(말)

에- 청정각시 대문 전에 당진하였습네다. 집을 돌아보니 당태실로 엮은 듯하고 집 위예다 삼지 꺾어서 구리 지동 심은 듯하거늘, 거기서 요리저리 거구는 생겨지방이 말멋디 지방이라 동 시변을 읊하시고,

(노래)

연하연꽃 바우를 너븐 증마, 에- 에- 으- 어- 넘어도 간다.

(말)

에- 연하연꽃 바우를 넘어가시는데, 여긴 서디 들있던 자리마다 몽창 몽창 나갑네다. 가여 서이 하이, 굳이 없거늘 연하연꽃 바위 들어가 큰상을 드려오는 거 보니, 초 팔년 연하연꽃 상이 심댄 것이 어뻐 생겼거늘, 대방에서,

“우리 천년 유책하고 만년 동창하고 백년 해리하고 살겠는데, 우리 옛날 **환자법(換字法?)**이나 하면 어떻겠소?”

“글랑 그러시라.”

(노래)

점지여, 점지하야, 청정각시 초회사(初回事)에 울거보니 환자하라 들어도 본다.

(말)

에- 청정각시, 도랑선배 술을 한 잔 부어 청정각시 매기시니 청정각시 넉지시 맛을 보오, 청정각시 술을 한잔 부어서 도랑선비 매기시니, 세상에 술이라 하는 것이 피가 가득하구, 그 다음에 큰 상을 돌아보니, 가꾼공이 어금뽀두두 하구, 뒷동산으로 올라가는 듯하구, 삼오날에 부추지구 헤헤 웃는 듯하구, 굶이라 굴은 방이니 사리워 놓은

161) 강귀졌고: 사라졌다.

162) 이승 총기 강귀졌고, 저승 총기 밝아오는 구나: 이승 총기가 사라지고 저승 총기가 밝아온다는 뜻임. 곧 도랑선비의 죽음을 의미함.

듯하거늘, 가여 소여 하기를 그지 없어.

(노래)

큰 상을 짚에 한 짝을 보니, 큰 상 다리 시상 통객이라서 나떠는 데다.

(말)

에- 서이 하나 큰 상을 잠시 물리시라. 날 생각하거든 이 큰 상을 잠시 물리주시라. 큰 상을 물리시고 주홍반에 덧직하고 옷을 지어 디리오는 거 옷을 깃을 잡아 질쳐 입고, 정성을 지어 들이가고 참서는 눈질 지양하고 저는 지어 디리가도 서는 일 지양 없고, 초경에 이경에 당진하니, 청정각시 석 자 세 치 그 머리로 늦양푼에 얼렁절렁 희여 내어 반달 같은 얼굴로 어설서리 빚어내야 천방 같이 따아서 낙시 같이 희여 올 든 비어느 쉼이네 좌우 곁이 금봉채 지으시고 칠보단장에 노인행장을 챙기시고 도랑 선배 각신을 내다시고,

(노래)

바깥문으로 나가는 구나, 남창문으로 방개 어이,

(말)

에- 큰어마이 안도해야주고 갔습니다. 도랑선비 당중에 당진하이 아마도 초경이 이 경이 삼경이 말당에 당진하야도, 양반에 호적을 양반에 후손이라도, 금정도 태도스럽 구나.

나도 나거니와 청정각시네 저으 사람이 분명한데 걱정하시니, 청정각시 말하기를, “큰어마이, 추주객 바람에 내 집 온 손님을 내가 먼저 깨운시로 끈어서, 큰어마이 나가시오.”

큰어마이, 정지여 돌려내어 보내시고, 도랑선배 몸뚱에 당진하야 부끄러봐 바짚러 밀 기적 밀기적 깨우니, 깨떠나는 일 기양 없고, 다시 나서서며, 비질 같은 저 손질을 간 절 같은 누리를 흔들만들 깨우시니 도랑선배 깨떠나며,

“이어서 청정각시야, 듣던 말과 같아구나,

(노래)

한 짝 없디 해가 떴구나, 한 짝 없디 달이가 돋드네.”

(말)

“에- 영니 가니 별이 돋은 듯하구나.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아픈디 이 법이 무슨 법이 겠네? 서둘러 머리 벗어 병푼<sup>163)</sup>이 보고 어서 날래 눅으시라.”

청정각시 무쇠비단 꽃 이불을 굽이굽이 펼쳐놓고 원앙금침 잔물 배게 머리 만침 놓

---

163) 병푼: 병풍(?)

고, 셋별 같은 늦요강을 손절 만큼 놓고, 일기동품<sup>164</sup>)을 들었습니다.

도랑선배 말씀하대,

“우리여 또 하재 천년 유책<sup>165</sup>)하고 새기는데 내가 글기 한 구지<sup>166</sup>) 글기 새기라.”

“어서 그러시라.”

“‘충신은 불새애경이요 충효는 불공이부<sup>167</sup>)’란 뜻이 무슨 뜻이냐?”

“예, 신하는 임금 하나 샘기라는 뜻이고 여자는 남자 하나 샘기란 뜻입니다.”

(노래)

깊은 거를 읽었구나. 어서 날래 누버재를.

(말)

“에- 이어서 청정각시야, 나를 잠시 내 집으로 보내 주시라.”

집으로 보내 달라 저러시니, 정지여 나가서,

“어무이, 아버지 듣소! 오늘으 신랑이 사상축문<sup>168</sup>)이 이르렀습니다. 코느아를 치고 바들날을 치고, 앞 걸어 치고, 뒷 걸어 치고,<sup>169</sup>) 방자 고티리 병자 정객에 사상축문이 이르렀으니, 집당으로 보내달라이 하는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야! 어린 신랑이 머나 먼 길을 막히여 치어 공진줄 안 나겠네, 잠인들 안 오겠네? 잔말 말구 어서 날래 들어줘라.”

객기 삼척이라, 방중 이셔두고, 지경문 열어 놓구 어머니 두러서,

“가서 부모라 하여도 반절 반부모고, 사우라 하여도 반절 반자식이니,

(노래)

나는 여기서 죽으면은 객사했다 할 터이니 내 집으로 빨리빨리 보내나 주소.”

(말)

“에- 이어서 도랑선배야!

(노래)

왓골선풍<sup>170</sup>) 같은 선배던 게 간단 말이 웬 말이냐? 죽는 단 말이 웬 말이여?”

(말)

164) 일기동품: 일기동침(一氣同寢).

165) 천년유택: 千年遊宅(?)

166) 글기 한 구지: 글귀 한 구절.

167) 충신은 불새애경이요 충효는 불공이부: 장채순 구연본을 참고하면 ‘충신(忠臣)은 불사이경(不事二卿)이요 열녀(烈女)는 불사이부(不事二夫)’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168) 사상축문: 사상(死相)?

169) 코느아를 치고 바들날을 치고, 앞 걸어 치고, 뒷 걸어 치고: 도랑선비가 병이 들어 몸부림을 친다는 뜻임.

170) 왓골선풍: 옥골선풍(玉骨仙風). 옥같이 아름다운 모습과 신선 같은 풍채를 갖춘 사람.

에- 그때 그적에 도랑선배, 말을 없어 사정 뺏이 건나채를 없어 질디 채, 종자끈 없  
어 종자래기를 정매를<sup>171)</sup> 들리어 마당 동쫘이 나타서며 하는 말이가,

“바람벽에 춤<sup>172)</sup>을 쥐어 받을 것이, 내일 아침에 저 춤이 쉬기 물이 되어 내려오면  
내가 산 줄 알고, 공기 말라붙으면 내가 죽은 줄 알아라. 아침에 뒷동산에 올라가 노  
가재 상나무<sup>173)</sup>를 치며 보아라. 꼭디때 고양 꼬옥까지 올라가면 내가 산 줄 알고, 꼭  
디때 또옥 부러지면 내가 죽은 줄 알라 하고”

(노래)

인후불견이 나서떠매 바람질에 날겼는지 구름질에 풍겼는지.

(말)

에- 청정각시는 이매<sup>174)</sup>에 손 올려놓구, 아침에는 잠도 못자고 바람벽을 보니 춤이  
검게 말라붙었구나, 배뻐 뒷동산에 올라가 노가재 상나무를 치며 보니 꼭디때 또옥  
부러졌거늘,

(노래)

“에고, 죽었느냐? 살았느냐? 내 어찌겠소?”

(말)

에- 그런데 우이서 팔마(탁마?) 한 사람이 허이 허이 내려오거늘,

“이 곳이 청정각시 데죠?<sup>175)</sup>”

“예, 어디서 오는 손님이오?”

“예, 남서문 밖에서 왔시오.”

“남서문 밖에서 오시르는 도랑선비 병환이 어떻소?”

병환이 조아서 살으시면, 편지를 내 놓는 것 뜯어보니,

(노래)

간 날밤 잘추시어도태[자축시] 절세(絶世)하였소.

(말)

에- 청정각시는,

“세상에 이 년의 팔이 무슨 년의 팔이냐?<sup>176)</sup> 첫날밤 섯을 못뜨고 어지(어제) 머리

---

171) 종자래기를 정매를:

172) 춤: 침.

173) 상나무: 향나무?

174) 이매: 이마.

175) 데죠: ‘청정각시가 있는 댁이오?’ 혹은 ‘청정각시가 있는 곳이오?’라는 뜻임.

176) 세상에 이년의 팔이 무슨 년의 팔이냐?: ‘세상에 이년의 팔자가 무슨 년의 팔자냐’라는 뜻으로 도  
랑선비가 죽고 혼자 남겨진 청정각시가 한탄하는 장면이다.

언구, 오늘 머리 풀라는 팔자, 어디...”

우다가, 내리가는 애껴수 걸잡아 떠나 놓구, 무산잔 부어 넣구,

(노래)

아침 갈색에 철무다 가니, 무디 액동에 집으러 대네.

(말)

“에- 어머니, 아버지 듣소, 여자의 말에 외뉴월에도 서리가 찬다는 데, 내가 어제 머리를 언고 오늘 머리를 풀어도 도랑선배 사람이 분명하니, 내가 병색이나 돌아보고 오갔습네다.”

“글랑 그러시라.”

뱀때기<sup>177</sup>)를 지었으니 뱀때기를 타고 동시오구터 고개 올라가니, 헛말<sup>178</sup>)인 줄 알았더니 도랑선배 관 짜는 소리, 손나무꾼이 장작을 패는 소리 같구나.

동지역에 당진하니, 허공소리는 팔만 대덜 때 주인 대는 디 소리 같이 나는구나.

대문 전에 당진하니,

“시자나 옛날이나<sup>179</sup>), 청정각시는 산 사람이고 도랑선비는 죽은 사람이니 새사람을 정지<sup>180</sup>)여 들이자.”

뱀때기 저그 속에서 청정각시 말하되,

“죽으나 사나 도랑선배 사람이 분명하니, 아무더래도 도랑선배 있는 방중에 나를 디리주소.”

“글랑 그러시라.”

(노래)

도랑선배 있는 방에 청정각시를 디리는구나.

(말)

에- 도랑선배 방중에 넘어들어,

“에고, 에고, 왓골선평 같은 선배, 무슨 잠을 이리 자오? 병풍으 사이사이 들래두 자던 잠을 일어나오.

(노래)

저으 동산에 떴던 해도 제 동창에아 비추웠거들.<sup>181)</sup>”

---

177) 뱀때기: 문맥상 여자가 타는 ‘가마’로 보임. 맬대와 연관된 듯.

178) 헛말: 핏말?, 헛말(헛말의 와음?)

179) 시자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180) 정지: 정주간, 부엌(의미 확인)

181) 동창(東窓)에 해가 떴다는 것으로 날이 밝았다는 의미임.

(말)

에- 배를 맞차도 사는 일 지양 없고, 등을 맞차도 사는 일 지양 없네.<sup>182)</sup> 이쁘물 들이니 사는 일 지양 없구나. 거기서 병풍으 다시 펼쳐놓구, 샘 일(三日)만에 웅거하겠다고 하거늘,

“내가 어제 머리 언고 오늘 머리 풀어도 도랑선배 사램이 분명하니, 나는 신병을 시켜주면 수모를 살겠습니다.<sup>183)</sup>”

“글랑 그러시라, 열녀 충신이 분명하다.”

문을 마께 문모래 파드리 분창을 들었습니다. 우느 신병을 시겨놓구, 청정각시는 석달 열흘이 되어도 물 한 모금을 안 먹구 수모를 서는 디,

에- 안해산 금상절에서 지하궁 기집 울음으는 열녀 울음이고 충신 울음이 분명하니, 헌정의 헌목 따거지어 헌정산 잎이 헌 것 가득의 씨워서 방방곡곡에 요돌아 당기니, 동지역에 당진하여 글으 쇠공소리 납니다.

샘일 날은 새는 샘일 만에 한미대를 아쉽게 됐어.

나무-아비타불, 나무아비타물, OOOOO 나미아비타불, 지나강소사 나무아비타불.

염불을 늦늦이 올리시니, 청정각시 밀창문 밀어놓구 쌍쌍문 짜리치구 냅다보니, 서인대사<sup>184)</sup> 오셨거늘, 대사님 오란 데서 갈 디 가면은 얼마나 시장하겠어. 정지여 모셔드리 놓구 얼른 진지 지어서 드비 차서 갖춰서 엄숙하게 챙겨드리니, 대사가 그걸 다 잡수고 나갑네다.

마당 동뜰에 나타서느니 냅다보니, 어서 그렇게 챙긴 걸 다 잡수더니만은 오양낙만 했거늘,

“아타불짜! 몰랐구나! 대사 줄을 알았더니,

(노래)

도랑선배 뵈아 주자고 서인님이 오셨구늘.”

(말)

에- 나가 상산이배<sup>185)</sup>를 드리시구,

“서인님 재간으로 도랑선비 뵈아 주십사.”

“죽은 사람 보는 뱀이 어디 있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서인님 재간으로 뵈아 주십사.”

“그러문 이 뵈주박<sup>186)</sup>을 채우시라.”

182) 배를 맞차도 사는 일 지양 없고, 등을 맞차도 사는 일 지양 없네: 청정각시가 도랑선비의 배와 등을 만져도 도랑선비가 아무런 기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임.

183) 신병을 시켜주면 수모를 살겠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돌봐주면 시묘살이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184) 서인대사: 김근성 구연본에는 황금산성인이 중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다.

185) 상산이배: 삼삼이배 예의를 갖춰서 절을 했다는 뜻. 더 찾아 볼 것.

186) 뵈주박: 표주박. 김근성 구연본에는 ‘되지박’으로 구연되며 그것은 神靈한 것이라는 김근성의 언급이 주석으로 달려있다.

아니, 피주박을 보이, 많이 들면 하나비 들겠거늘, 이어서,  
“서인님이 양손으로 호불러 달라문 되로 났구,<sup>187)</sup> 되로 달라면 말로 났구, 말로 달라면 섬토로 났을 것이니,<sup>188)</sup> 도랑선비나 뵈어 주시오.”

"글세, 이 피주박 채우라."

하거늘,

도랑선배 잡숫던 여섯쌀을 함그미줄에 이리 저리 쓸어 놓구 한 바가지에 펍 들어부르마, 하나두 간디 없거늘. 구덕<sup>189)</sup>의 쌀을 다 퍼다 모아도 하나도 간디 없새,

“애고 서인님, 내가 이뿐느 하시오, 도랑선배! 기물을 다대기<sup>190)</sup> 담아도 하나도 간디 없이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면, 엄동설한 찬바람에 나무들이 짱짱한데 쟁기 하나 지진하고<sup>191)</sup> 마당 가운데 물을 꾸득 섭질 하면 손을, 열 손을 파거늘, 그 안에 들어가 첫날밤에 이불 속에서 니가 벗어 담으라.”

하니,

거기서 엄동설한 찬바람에 나무들이 짱짱한데 열 손으로 마닥 가득 물으 꾸득 빠득 빠득 팍습네다. 석 길 남짓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삼나발 입은 속옷을, 지금으로 말하면 뻘스 올시다. 벗어 담아 이 옷가 가지런 하거늘,

“이만하면 도랑선배 못보겠소?”

(노래)

“때가 너무 시간이 멀었구나. 죽은 사람을 언제 보겠소.”

(말)

에- “서인님 재간으로 도랑선비 뵈아 달라.”

조르시니,

서인님은 마당 동뜰에 나서며 하는 말이,

“이어서 청정각시야!<sup>192)</sup> 우리 조랑말따다리라는 거는 돌을 걷어 돌을 갈라지구 물을 걷어 물을 갈라지게 하는 터이니 조랑말따라는 거를 찾아 안혜산 금상절에 오라.”

하니,

(노래)

오라하고 나서더니, 바람짚에 날겼는지 구름짚이도 풍겼는지.

---

187) 호불러 달라문 되로 났구: 흙으로 달라고 하면 되로 놓았다는 뜻임.

188) 흙, 되, 말, 섬의 순서로 보임.

189) 구덕: 광주리, 혹은 구덩이.

190) 다대기: 모두. 다대하다(맏고도 크다), 다독대다(흩어지기 쉽거나 허벅허벅한 것을 좀 크게 다지는 모양)

191) 쟁기 하나 지진하고: 쟁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192) 이어서 청정각시야 : ‘이 어리석은 청정각시야’의 준말?

(말)

에- 온디 간디 없거늘, 거기서 청정각시 발버둥 부리며 우는구나.

“도량선배를 잃어버리고 서인님으로 한어손으로 잡았으니, 서인님께서 잃어버리시니 어찌하다?”

우다가, 조랑말따서니 찾아 나따서니 대한거리같이 나섭디다. 거기서 조랑말따다리 찾아 안혜산 금상절을 올라가시니, 서인님이 하는 말이,

“서인님, 도량선비 뵈야 주십사.”

“니가 그러면, 너의 집당에 가서 참깨 닷 말, 들깨 닷 말, 화산깨<sup>193)</sup> 닷 말 열 닷 말을 매어내아, 후이 기름을 짜가지고 열 손가락에 문치말려,<sup>194)</sup> 문치말려 해가지고 열 손가락에 불을 당가드면 아득짜득 타들어가니 딱 다 마르면 도량선배를 뵈야 주마.”

“글랑 그러시오.”

집당에 내려와 참깨 닷 말, 들깨 닷 말, 화산깨 닷 말, 열 닷 말을 매어내아 열 손가락을 불을 담가 들었습네다. 아득짜득 타들어가이,

“니 따거니라매?”<sup>195)</sup>

“아이고, 따거니 지양 없습네다.<sup>196)</sup> 어리신 도량선배만 뵈야 주시오.”

사로시니,

지부왕<sup>197)</sup>에서 오봉산<sup>198)</sup>에 불이 붙는다고 도량선배를 불끄러 내어보냈습네다.

불붙는 손찌<sup>199)</sup>를 냅다보니 도량선배 어스거스 덩기니, 불붙는 손찌르 옷자락을 냅다지니,

(노래)

대못에 들어가노 몽땅 보이고 관대를 보대.

(말)

에- 팔버다 버리는구나.<sup>200)</sup>

(노래)

유지는 화살을 기여, 옥황을 조차 천덕을 후에

(말)

에- 버들가지는 가지가지는 시시느 푸르러 가고, 복사꽃으는 천지미 붉어가는구나.

---

193) 화산깨: 구비공식구?, 검은 깨? 김근성 구연본에는 ‘아주깨’로 구연된다.

194) 문치말려: 손에 기름을 바르고 말린다는 의미이다.

195) 니 따거니라매: ‘(손이) 뜨겁지 않냐?’라는 서인대사의 물음이다.

196) 따거니 지양 없습네다: ‘(손이) 뜨겁지 않다’라는 청정각시의 대답이다.

197) 지부왕: 염라대왕을 달리 이르는 말.

198) 오봉산: 여기서는 청정각시의 다섯 손가락을 비유한 것이다.

199) 손찌: 손가락.

200) 팔버다 버리는구나: 발버둥치다.(?)

어리신 옛골(玉骨)같은

(노래)

도랑선비는 만나지도차 날거도진다.<sup>201)</sup>

(말)

에- “워여 그려 못 오시오? OOO하니 문 닫고 자는 야윈 밤이 삼천 개가 짚어 못 오시는고?”

(노래)

말년 장개 허봉 중에 해, 달 같이 보고지어.<sup>202)</sup>

(말)

에- 우다가 날새없으니<sup>203)</sup> 다시 나사서며,

“도랑선비, 봐야 주십사.”

“그러면 너의 집당에 올라가 머릿기를 두 개씩두 뽑지 말고, 외 한 대씩 뽑아서 삼천 이물 받아 삼천 벌 매듭<sup>204)</sup>을 매서 한 끝은 법당에 매고 한 끝은 공중에 매고, 손바닥은 손이 다타 몽구러 망가진 거, 궁구 뚫어 꿰어가지고 올리 후터, 내리 후터 아프다마이<sup>205)</sup> 도랑선비 봐와 주마.”

집당에 올라가서 머릿기를 외 한 대씩 뽑아서 삼천 이물 받아 삼천 벌 매듭을 매서 몽그려망가진 손바닥을 궁구 뚫어 꿰어가지구 올리 후터 내리 후터 하니, 에고 피는 흘러 한강수 되는 구나, 눈물이 흘러 소(沼)이 되니,

“니(내?)가 아픈 일이 지양 없네?”

(노래)

“아픈 일이 지양 없소. 도랑선배를 봐야나 주소.”

(말)

“에- 어리신 청정각시야! 죽은 사람 보는 뱀이 어디 있느냐? 그만 적덕을 드리고 보겠느냐?”

거기서 발버둥을 치며,<sup>206)</sup>

“무정한 도랑선배야! 그리 가겠거 던 남으 자석은 시집(희집)이나 비치든 하제, 워여

---

201) 만나지도차 날거도진다: 만나지도 못하고 날이 간다는 의미이다.

202) 말년의 해와 달과 같이 보고 싶다는 뜻.

203) 날새 없으니: 날이 켜었으니(?), 방법이 없으니(?), 시간을 보내니(?)

204) 삼천 벌 매듭: ‘벌’은 가닥을 뜻하는 ‘발’의 와음으로 보아 ‘삼천 가락의 매듭을 매서’라는 의미이다.

205) 아프다마이: 이본을 참조하면 ‘아프다고 안 하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6) OOO을 치며: 가슴을 치며(?)

못 오시오? 어르신 도랑선배,

(노래)

찌저믄 할리문이요, 0000 무사 띠니?

(말)

에- 어르신 도랑선배, 선비여 낮을 부키 모두 등고,<sup>207)</sup>

(노래)

청산은 저비절이요 눈물이 나고 인정을 드리네.

(말)

에- “이 청산에 산 허름이 잡고, 이 만지리 살아 다치를 면하여 못 오시오? 워여 그려 못 오시오?”

(노래)

청산은 만사택이요, 하오늘조차 하얗게 보이데.

(말)

에- “도랑선배 오는 길에 본이<sup>208)</sup> 높아 못 오시오? 큰성<sup>209)</sup>을 먼저 다니 강물을 깊어 못 오시오? 워여 그려 못 오시는구?”

어르신 도랑선배 우다가 말 말대 없으니 다시 나서서며,

“도랑선배 뵈아 주십사.”

“한 번 고생을 더해라.”

“황철사 된고개라 하는 거는 이 짝도 아흔 아홉 구비, 저 짝도 아흔 아홉 구비를 쟁기 하나 지지 말고 열 손으로 다닥같으라면<sup>210)</sup> 도랑선배 뵈아 주마.”

“예, 글랑 그러지요.”

황철사 된고개 허이허이 당진하시니,

“시상에 하늘이 다 가망 중에<sup>211)</sup> 어찌 달겠느냐?”

부헌데 박달에 자작나무 향철나무 진대나무 새술에 배재 아직나무 기절도 도시 들어섰구나. 어 하정나무 쭉쭉 뽑으니 쭉쭉 뽑아지구 아름들이나 환도로 구부러 내리뜨리는구나.

“어여 그려 못 오시고? 내 낭군의 도랑선배님아. 보고지여! 보고지여!”

---

207) 선비여 낮을 부키 모두 등고: 선비여서 낮을 가려 못 오는고?

208) 본: 봉(峰)?

209) 큰성: 정성(?), 저승(?)

210) 다닥같으라면: 이본을 참조하여 ‘뉘아놓으면’라는 의미이다.

211) 하늘이다가 가망 중에: 하늘이 까맣다?

(노래)

그여 야밤에 엇장에 버슨 듯이 보고느지요.”

(말)

에- “워여 못 오시오?

(노래)

하소에 생리천이요, 000 문안 가겠네.”

(말)

에- “새가 슬프서기서 운동산에 그리미 눈물을 받고, 어디난가 납디서 우는들 사나, 우리비 무슨 소리 들었겠소. 내가 여기서 고생하는 줄을 하나님<sup>212</sup>이 알았설까?

(노래)

외따님<sup>212</sup>이 알아나 보세.”

(말)

에- “워여 못 오시오?

(노래)

동서는 일월무니 남북은 좋다, 풍아노를.”

(말)

에- 남북은 그러고 드리고 동서는 해가 달이 우는 디,  
“어리신 도랑선배, 무이 엇고 길이 없어 못 오구, 우신부디 저리 저 산중에 남으 산 가운데 있거만은,

(노래)

워여 그러고 못 오시거늘.”

(말)

에- “워여 못 오시오? 어리신 도랑선배님아

(노래)

청천으 0000 조차 하겠느비.”

---

212)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신.

(말)

에- 어리신 도랑선배, 우다가 황철사 된고개르 호이호이 갔다온다 하니, 도랑선배가 청정각시, 아니, 도랑선배가 백발노인의 장기를 씌우는 구나.

“장군들이여, 장군 받자! 장군 받자!

(노래)

말이 간다, 걸이 온다. 장군 받자, 걸이 드니.”

(말)

에- 대풀 가서<sup>213)</sup> 도랑선배를 안으니, 도랑선배도 간 곳이 없고 장기판도 없고, 백발노인도 간 곳이 없구나. 시상에 백모래 000 청정각시 혼자 때굴때굴 이노불견에

(노래)

천금 같은 이 냉군이 혼자도차 울고 있어.

(말)

에- 우다가 날세 없으니 호이호이 닦아 가옵네다.

상산나나<sup>214)</sup> 안 오던 잠이 와서 길가에 누웠는데, 도랑선배 와서 밀기적 밀기적 깨우며,

“천금 같은 몸을 길가에 허다에 바르고 이렇게 자느냐?”

깨떠나이 도랑선배거늘,

‘예고, 내 이거를 마저 닦자. 꿈이 선몽을 시킨다.’

그 고개를 다 닦고, 삼천강 대다리 임진강 피기원 모래원 생원다리 다 닦고, 월양산 큰가에 가서, 히이히이 닦는데, 아이 냇다보이 파룻파룻 청초립에 난초와 같은 버선 쓰고 **질**이 같은 갓을 쓰구<sup>215)</sup> 세부작 세부작 오거늘,

‘저것이 내 낭군 도랑선배나 다르라.’

하고,

그냥 닦는데 머리말에 와,

“청장 각시 욕을 보오.”

하거늘,

치떠보이 도랑선비거늘,

(노래)

웃고름을 가마 췌이고 길질손을 하얏구나.<sup>216)</sup>

213) 대풀 가서: 대뜸 가서. 얼른 가서.

214) 상산나나: 문맥상 ‘그동안(?)’, ‘잠깐 동안(?)’으로 이해됨.

215) 파룻파룻 청초립에 냇초와 같은 버선 쓰고 OO 같은 갓을 쓰구: 도랑선비의 형용을 묘사한 것임.

(말)

에- “청정각시, 정신을 가다듬으라.”

조무 한 탄푼<sup>217)</sup> 맥기시니, 정신을 가다듬어 가주구, 앞서며 뒤서며 내리오다, 청정각시 창부일언으 충정금이라.

“청정각시, 여자가 노르개를 삼아 앞이 서지 뒷궁덩엘 서는 법이 없으니 내 앞에 똑 서라.”

앞에 서서는 너무 중하고 자해서 뒤만 해끈해끈 들여다 보거늘,

“내 아마, 우리 양반에 딸이고 양반에 아들인데 녀미 보면 잡년과 잡놈이 내려간다 할 터이니 암만 또옥 보고 걸어라.<sup>218)</sup>”

영을 거역치 못하고 암만 또옥 보고, 삼천강 대다리 임진강 퇴기원 모래원 새다래 월양산 큰 강에 가서,

‘내 먼저 건네가 도랑선배 건네오는 행장 거동 보겠다.’

고 하고,

먼지 건네가 서는데, 도랑선배 한 절반이나 오갔는데 천지 맞들어 붙구, 뇌성벽력이 둘러치구 호리, 회리바람이<sup>219)</sup> 둘러쳤더니,

(노래)

도랑선배 건네오는 다리뺨 반이 몽창몽창으 나가는구나.

(말)

에- 청정각시는 발버둥 부리며,

“남으 자식이 귀신질이나 어찌하겠는고? 물고기 밥을 써랬구나. 괴기 구리며 남의 자식이 귀신질이나 어찌하겠는고 물고기 밥을 써랬구나. 어부디 만들었구나.”

도랑선배는 물가분이 내리가며<sup>220)</sup> 한번 솟구더니, 노릿노릿 초가등은 000 내리가 오. 또 한번 솟구더니 팔이팔이 첨첨매어 저또하실 첨도보고는 팔랑팔랑 내리가오. 또 한번 솟구더니 청정각시 날 잡아달라,

(노래)

빗질 같은 저 손질로 빠닥가닥 내리두 간다.

(말)

에- 거기서 우다가 할 수 없어, 안혜산 금상절으 또 올라갔습니다.

---

216) 옷고름을 가마 쥐이고 길질손을 하얏구나: 도랑선비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옷을 쥔 채로 길에 쓰러졌다는 뜻임(?)

217) 조무 한 탄푼: 기력회복제(?)

218) 암만 또옥 보고 걸어라: 앞만 꼬옥 보고 걸어라.

219) 호리, 회리바람이: 회오리바람이.

220) 물가분이 내리가며: 물거품(?) 속에서 내려가며.

“도량선비 뵈아 주십사.”

“네가 연등 발력 할 적에 폐적<sup>221</sup> 있느냐?”

“예, 열 손에 불을 당가슬 적에 폐적이 있습니다.”

옷자락을 보이던 거 내어두며,

“니가 그러면 도량선배 빠진 다리뺨<sup>222</sup> 알겠느냐?”

“예.”

“그 너는 도량선배는 선간사람이고, 너는 지하사람이니 그 다리뺨에가 니가 빠져라.”

청정각시 거기 가 도량선비 빠진 다리뺨에 가 치마를 거꿀러 쓰고 빠져 내리가니,

(노래)

도량선배를 보소, 일월을 명랑한데, 대명천자으 밝은 세계라.

(말)

에- 도량선배는 나가서 꽃산에서 뛰어 노는 구나.

“도량선배! 이어서 도량선배! 그리고 무정하오, 나무[남의] 딸아 나무 아들이 그 세경 전 아니오.”

도량선배 불을 넣구 청정각시 밥을 하는 구나.

(노래)

이로세 경사로다. 에혀 지아, 경사로다.

(말)

에- 도량선배가 청정각시, 석 달 열흘으 백 날을 살고, 한날한시에 지부왕에 잤히었습니다. 한날한시에 다시 지부왕에 둘 다 잤히어 한날한시에 갔습니다.

거 천출(천출)으로 나면, 천택으로 나이 이르고, 인간사람이 사다가 노다가 명부황천에 갈 것 같으라면, 거 도량선배 죄목으로 청정각시 도량선배 거기나 바끼 법을 냈습니다. 큰 도량은 망령이 받고 적 도량으 내어 도량선배 청정각시 혼을 받고, 금일 망령 그 모양으로 선간환도를 시켜달라고 축원이구, 도량선배 청정각시는 선간환도를 하였습네다.

---

221) 폐적: 표적(表迹)?

222) 다리뺨: 자리뺨(?), 다리뺨(?)

㉔ 《짐가제국》, <짐가제>

唱 : 池金織(女, 五四歲)

장구 : 同人

양푼 : 韓英子(女, 四八歲)

거기 따라서 옛날에는 옛 시절에

(노래)

강림 질재비라도 윗돌으 돌고.

(말)

에- 강림골에서는 김정승의 아들이 이정승의 아들이 박정승의 아들인데, 삼동갑(三同甲)인데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졸업을 했는 기지.

공부를 하고, “우야! 고가 자재으 자식인데 우리 각 고을로 귀공<sup>223</sup>을 땡기자.”

“귀공처를 땡기는 데 어떻게 땡기는냐?”

“그러면 물건을 지고 향애 장시<sup>224</sup>를 땡기자.”

“그러자.”

물건을 하나이 백량(百兩)어치씩, 서이 삼백량(三百兩)어치씩 지구 각 골[고을]로 귀공을 땡깁니다. 시골에 내리오니 강림골에 왔습니다. 강림골에 내리 오니, 아이 짐가재 예편네 나따서며,

“우리 집이 국도 뜨소,<sup>225</sup> 우리 집이 방도 뜨소, 우리 집이 들라.”

하거널,

“어드메 해도 일모(日暮)하니 여기 들자.”

들어서, 저녁을 지어서 먹구,

“쥐인[주인]이 어디로 갔는가?”

하니,

“쥐인이 어데 나섰다.”

하거늘,

거기서 저녁을 지어 먹고 보따리 비고[베고] 척척 누볐는데,

강림골에 짐가제 들어오며 하는 말이가,

“저거는 어디서 온 손님이냐?”

“거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 사는 김정승으 아들이, 이정승으 아들이, 박정승으 아들인데, 아예 조우박을 각 골 귀경을 땡긴다 하오, 향아 장시 하러.”

“그래? 우리 그러면 질역<sup>226</sup>으로 손등을 시쳐 먹지 말고, 저거 한 칼에 찔러 찍이고

223) 귀공: 구경. 관북지방무가에는 귀경(求景)으로 되어 있음.

224) 향애장시: 향아리 장수.

225) 뜨소: 따뜻하다.

226) 질역: 길넉.

단번에 부자 될까?”

“여보, 우리도 자식 없어서 질역에서 적덕(積德)을 들이고 자식을 보자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자식을 보겠소.”

(노래)

짐가제느 식칼을 내려다 우르렁 부르렁 갈무,

“이 년아! 그러며 첫 칼에 니가 죽구, 둘째 칼에는 내가 죽세.”

(말)

“에- 그러면 당신 생각대로 하시오.”

가 애들이 던 소, 식칼의 갈아 들어 방중(房中)에 들어가 목을 또옥 또옥 쓸어 땀습니다. 백엑에[바깥에] 내 가면 냘이 알겠고, 외양간 내려서 외양간 말판에 들고서 말판 밑에 책책 엮습니다[넣었습니다]. 그날부터 짐가제 예편네 남 감사 고리메 부지락 갈아 있습니다.

“아니, 저 예편네라 지난 밤에, 아이 항아장사를 드리더니 부치는지 친했는지 남감사 고리메 으지작, 단번에 부재 됐거덩.”

그날부터 가들의 죽은 혼이 지부왕(地府王)에 들어가서 대문 두드리며,

“고시레<sup>227)</sup> 주오, 고시레 주오.”

하거늘,

“너으 귀신이야? 사람이야?”

“예, 귀신이면으 지부왕에서 잡졌는 귀신이 어디 있겠소? 고시레 주오, 고시레 주오.”

하니,

“너 그러면, 정월(正月) 한 보름날 밤에 시우물이 은붕어가 금붕어가 돼서 원수를 갚고 고시레 하니라”<sup>228)</sup>

그렇저런 정월 한 보름날 밤이 당진하니, 시우물에 은붕어가 금붕어가 되어 떴습니다.

짐가제 예편네 땡기다 더대지 못해서 물동이를 옆에 끼고 따리[또아리]을 손에 쥐고 웅덩이를 드다짐어 물 도둑질을 갔습니다.

한 우물이 가이, 출렁 출렁 하더니만으 금붕어 띄었거늘,

“아이구, 이거 보겠소! 우리 기물(貴物)을 얻었소. 큰 일이 있겠다.”

동이다 안 치우고 또 한 우물이 가 또 은붕어 띄어씁니다.

“아이구, 이거는 기물을 얻어도 큰 기물로 얻었도다”

또 한 우물을 가니 또 금붕어 있다.

“여보, 기물이고 뭐이구 이거느 자석 늦이 분명하니, 구버서 뼈대를 내놓지 말고 싹

227) 꼬시레: 귀신에게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내쫓는 소리임. 동시에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뜻이기도 함.

228) 정월보름날: 귀신이 달고 오는 날.

씹어 먹어져라.”

짐가제 예편네 그거 은붕어 금붕어 서(三) 구버서 빼대도 아이 내 놓고 싹 씹어 먹  
었습니다.

(노래)

그날부터 태기(胎氣) 있었습니다. 석 달으 늦을 받아 다섯 달으 반 짐 걸어

(말)

에- 열 달으 고이 설어 나니, 아이, 달같은 남자 아이 낳구나.

“에이구! 우리 그래두 산통이 그러젠데, 아무 때 나어도 나오겠지.”

짐가제르 백브르 흥재르다.

아이 또 시무 해태루 하구 시무 또 아들을 낳구나.

(노래)

얼시구 정 좋구나 절시구두 정 좋구나.

(말)

에- 짐가제 산천에 쌍애기 울렸구나, 말똥구리<sup>229)</sup> 텃구나나. 또 해태르 하여서 또  
아들을 낳구나.

(노래)

얼씨구 아들이 삼태재(三胎子) 어디 갔다가 한 날 한 시에 이렇게 나오는 구나. 얼씨  
구 좋다, 절시구 좋다.

(말)

에- 엉덩이를 그다지며 춤을 녀실적실 추거든, 가에 들어서 물명지 간명지 석 자 세  
치 끊어 내어 도툼마리 외운 듯이 떠억 묶어 놓구, 그러저령 저 강남(江南)서 건너오  
는 혼두야 닳두야 왕대추 여름여겨 소대추 소음도치 적은 강남 적은 손님 큰 강남 큰  
손님, 호이 호역 대역은 다 돌가 보내신 연후에, 훗 칠 세 일곱 살이 되니, 독서당(獨  
書堂) 무어 놓고 글공부 시키는 구나.

서이[셋을] 독서당 무어 놓구 글공부를 시키는데, 서재에 가서, 선생이 하늘 천(天)하  
면, 따 지(地), 검을 현(玄)하면 누를 황(黃), 집 우(宇)하면 집 주(宙)하거늘, 이놈으  
새끼들 선비여 발각하겠거던.

가 애들이 그러저령 하니 공부를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통달하고,

“아버지! 우리 서울으 과거 보러 가갔소.”

“그리해라.”

---

229) 말똥구리처럼 아이가 생겼다는 뜻.[애기집]

“과거 보고 내레온 날에 잔차를 챙기겠소?”

“없어 못 챙기겠네, 어서 그래라.”

가 애들이서,

(노래)

동소문(東小門)<sup>230</sup> 안에- 들어두 셧소.

(말)

에- 동소문 안에 들어서니, 상시관, 부시관들이 앉은 디 다리 넘어서서 맏아들이 글을 지어 드리시니 김정승이 받아 보고,

“내 아들 글씨는 시 여 년 만에 어디 갔다 이제 나섰느냐?”

두째 아들이 글을 써 드리시니, 박정승이 받아 보고,

“내 아들 글씨는 시 여 년 만에 어디 갔다 이게 나섰느냐?”

세째 아들이 글을 적어 드려 보내니, 이정승이 받아 보고,

“내 아들 글씨는 시 여 년 만에 어디 갔다 이제 나섰느냐?”

편지를 모두서 모두까지 가애들을 들어 서게 해서

(노래)

팔도 도장완[八道都壯元]에 알선급제[謁聖及第]되었구나

(말)

에- 팔도도장완 암행어사[暗行御史] 알선급제를 주었습니다. 가 애들이 취이 집으로 내리오는 날에, 내리 온다고 편지를 했드니만은,

짐가제는 오는 쌀장수 쌀이나, 가는 새장수 새나, 억지로 싸악 앓아해서[빼앗아서], 떡을 치구 국시를 누르고 쇠(牛)를 잡고 대잔치를 챙기거닐, 각 골 선배 모두 뒀어 와서 잔치를 보러 왔다.

짐가제는 반침하고 떠억 누벳거늘, 아들 삼태자 춤을 녀실 녀실 추며,

(노래)

공인재 공인재 짹히고, 풍이재 풍이재 짹히고, 춤을 추며 들어가서

(말)

신 사당에 하직하고, 구 사당에 호제<sup>231</sup>하고 도읍을 하고 나와 찾아보겠다고,

짐가제는 반침하고 누벳는데 서이 차악 챙가 업히더니 일어 안 나거늘,

“야들아 어저느 일어나라.”

230) 동서문: 혜화문. 1397년(태조 5) 도성을 에워싸는 성곽을 쌓을 때 도성의 북동방에 설치한 문(門).

231) <扈跪?>

종시 일어 안 나가든,

“어저 일어나라.”

안 일어난다. 각 골 원시 뒤흔던가 머리채 들고 머리채 들어보니, 입에다 피르 가득가득 물고서 서이 죽었거늘, 짐가제는 거기서 칼을 내 후리는구나.

“오늘은 대잔치를 쳤더니 과거 보고 내 아들 삼태자이 한 날 한 시에 죽었으니.”

하면서 칼날을 내부리며 각 골 원시 모였다가 모도다 못 먹고 말을 거꾸로 타고 간다. 갓을 배배구 간다. 신이르 끌구 막 지루 간다. 먼지 부여케 싹 쫓겨났거늘.

그날부터 관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로 말하면, 경찰서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관개에 들어가서,

“고시레 주오, 고시레 주오. 내 아들을 잡아간 삼사재를 붙들어 주오.”

하니,

관개 자세하기로 그지 없거늘, 강림골에 손사령이라고 있는데, 한 짝 눈이 멀고 한 짝 다리 받고, 한 짝 팔이 받고, 이런 것이 있소.

“사령!”

“예!”

“너, 짐가제 아들을 잡아간 삼사재를 잡아오겠느냐?”

“예! 샘일 연기<sup>232</sup>)를 주옵소서.”

샘일 연기를 타 가지고 집에 와 식음(食飮)을 전폐(全廢)하거늘.

사령 에미나,

“당신의 워여 이러시오? 요새 식음을 전폐하시오?”

그 말을 하오.

“관개서 ‘짐가제 아들을 잡아간 삼사재를 잡아오라’고 하니 내 그래 그런다”

“아이구, 저게 멍텅구리는 멍텅구리라 하겠지. 사램 일로 어디 가 귀신을 잡아 오겠소. 날래 진지를 뜨고 쪽쇄지[닭?] 잡아 쪽쇄배지르 뜨고 내 떡 시우고 소를 한 짝 해다가 기망산 다리목에다 냅다 펼쳐 놓시오.”

그렇게 해서 기망산 다리목에다 내다 펼쳐놓으니, 이처버리 곳 챙겨 낚는가 하고 열시왕 사재 있는 거 모두 나오거던, 나오다 귀신 잡으란 밥이거던.

“아, 우리 잡아오란 게, 귀신이요, 사람이요?”

“예! 지 올시다”

아, 나오는 거 보니, 한 짝 눈이 멀고 한 짝 다리 외이고, 이런 것이 내떠 부리 부리 시우고 나온다.

“그러면 잼히 온 장소<sup>233</sup>)로 걸어라.”

잼히 온 장소로 데리고 가는 기라. 아이- 삼사재를 잡으라 오란 것이 열시왕을 모시고 어디게 장하랴.

어느 지라! 물러나이, 물러거라! 치어거라! 군군도라 넘어지어 잔담으 쓰러지리라!

232) 샘일 연기: ‘삼일(三日)의 기한을 달라’는 뜻임.

233) 우두머리?

엄명을 치고 관개에 데려갔습니다. 관개에 데려가니,  
“이 놈아! 관개에 잡히니 짐가제 집에 데리가라.”  
짐가제 집에 데리가니, 열시왕 사재는 그 마루 밑에 채켜 엮드리며,  
“말씀하시오.”

하니,  
“방중이<sup>234</sup> 넘어 오시라.”  
“에, 잦히 온 귀신이 어떻게 방중에 넘어 오겠소. 어서 날래 말하시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삼십 오 세 서른다섯이 되어도 남자 간에 여자도 없다가 질  
역에서 적덕을 드렸더니만은 한 날 한 사이에 아들 삼태자를 봤는데 공부 시켜서 서  
울이 가 과거 보고 내려온 날에 그렇게 뜻 없이 한 날에 모두 잃어서버려 그래서 관  
개에 침범했습니다.”

“그렇겠다.”  
“그러면 짐가제 죄가 없느냐?”  
“죽을 때라 죄가 없습니다.”

(노래)

죄가 없으면 이 동네 관개를 불러드레 외양간 말판을 들어 봐라 어- 서- 들어도  
보소.

(말)

에- 그때사 짐가제 때굴때굴 구부시며,

“적이 주오, 살려 주오.”

어느 명(命)이라 거역하겠소.

외양간 내리 가 말판을 드니, 개들이 썩지도 않고 새파르고 있습니다.

열시왕이 분부하되,

“관개서 둥굴 황쇠[황소] 다섯이 구루마 다섯이 일시 가추시라.”

둥굴 황쇠 다섯에 구루마 다섯이 일시 미워 가주고, 짐가제를 양쪽 팔을 벌기 매고  
양쪽 다리 벌기 메고 한 구루마는 형틀에 땀습니다.

쇠르 한 시에 매워가지고 나가는대로 마구 쫓으라 하니, 그때부터 오채법<sup>235</sup>이 나지  
고 **광쇠다리법**이 났습니다.

짐가제 예펜네는 시지루 우에 내다 놓고 머리 우에 대톱을 걸어 썰어 죽였습니다.

열시왕이 떠날 적에 이 동네 살을 들리지 못하게 했어.

아이고, 그 살이 무서워서 원이 원지를 못하소 간이 간지를 못하겠네.[살풀이]

그럼 000를 못하겠소?

그럼 門前 나그내 휘원(欣然)대접이라고 왜 바른 사람 못드리겠소.

---

234) 밤중?

235) (五車法?)

(노래)

열시왕 사령으로 바리우라 데리구 나갔구나. 열 샘일이 되어오 아니 들어오니

(말)

사령 에마나 샘일이 되어도 아니 들어와 손낙금에 나가 비슬 비슬 찾아댕기니, 혼  
방아깨요, 혼이 호박에 이승서는 호박이라 저승서는 남괘요. 혼이 호박에 현 치, 현  
비짜루 잔뜩 시워놓고 혼을 쏙 빼갔거덩.

“아이, 여보 어찌 거기서 ‘머영’ 하고 있소?”

가서 툭 차느거이 히득 번더지거늘.

아이구 그래 밥이라두 먹구 살겠다고 호박이라 지라지라 지구서는,

(노래)

얼어 죽었느냐 굶어서라도 죽었느냐

(말)

에- 이제 살아서도 날을 지내는 기 말은 기 이기 죽구두 내가 살아 무얼 하랴  
사령 애미네를 살아 웃고름에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도랑축연에다가 강림 직지애비도 바칩습니다. 거 오늘 선간 축원으로 다 올렸습니다.  
뒤이는 축연인데 그것들은 다 걸어 치우고.

(노래)

아- 선간 환도를 시겨 가요.

아- 여보지고 가실 적에

아- 십사연불이 어땀섭데[소원들어주는 염불]

아- 소호소 내해사[살]요

아- 빛나느 황철사요

아- 사모느 육회사요

아- 윤서느 축에사요

아- 선사느 수도사요

아- 후해(회)느 황애사요

아- 노원으 천보사요

아- 상님은 밀방사요

아- 팔사연불은 지고 가고

아- 칠사연불에 윗덱서데

아- 나무 무정 정성사요

아- 나무 정성 육에사요

아- 나무 팔가 유리사요  
아- 나무 미시 수양사요  
아- 나무 양모는 평저사요  
아- 나무 백화는 원교사요  
아- 나무 범패는 범내사요  
아- 나무 황소는 지구사요  
아- 나무아미 타불이야  
아- 나무 티불에 불국 가네  
아- 나무 염불에 되어 가오  
아- 선불에 되어(대양?) 가오  
아- 학을 타구서 승천하니  
아- 선간 낙출이 되어 가오  
아- 월양생 월양생 극낙으로 보내 주세……

(끝)

### ③ 《오기풀이》, <바리데기>

창: 池金織(織)(여, 54)

장구: 同人

양푼: 黃福女(여, 51)

제금: 韓英子(여, 48)

-장구 치면서-

(독창)

이마국아 돌아들 오소사

이마 실데 들으소사

실리도 역들 실적 고금새 등녹하고<sup>236)</sup>

삼오 애기 시르 팔적

사적에 근본 말삼이 있습니다.<sup>237)</sup>

(말)

옛날 옛시절에 나무들이 말을 하고 구렁뱀이 세를 갈길적<sup>238)</sup><sup>239)</sup> 그때 그시절에 하늘 위에 수차랑 선배 옥항에서 비릿물(硯水)을 싱기다가 비릿돌을 댕돌에 떡떨귀 지하궁에 네레띠리<sup>240)</sup> 심통객이 낭득찔러 지하궁에 귀신정배를 네레왔오

덕주아부인이 옥항에서 아침이면 자리끼<sup>241)</sup>를 나리시고 낮으면 양추기<sup>242)</sup>를 나루시다가 쇠싯대<sup>243)</sup>를 지하궁에 내리띠리 삼통객이 난 죄로 지하궁에 귀신 정배를 네리왔오

그때 그시절에 칼을 갈아 손에 쥐고 장띠(砑刀) 갈아 품에 품고 서울로 귀송 가자 시골로 송세(訟事)가자 적성 가자 귀송 가자 송세 가자 아송 가자 하는 폐 없지못하야 있는 법이요 귀신의 근본을 떠시며 수차랑선배과 덕주아부인과 어하 내 호적에 나졌다 웃은 낙단이 피어져 받는 법이요

수차랑선배가 덕주아부인과 청실 흥실이 배필 무아<sup>244)</sup> 예장 썩노라고 석三年 장개가

236) 고금새 등녹하고: 고금의 역사서에 등록하고.

237) 이마국아 ~ 사적에 근본 말삼이 있습니다: 곳을 시작할 때, 상투적인 어구이다. 강춘옥의 「쟁긔」에서는 “이마국이 아르시오 이마국이 들으시오 삼능애기 와인뜻이 고금새라 등녹하니”와 같이 유사한 어구가 나온다. ‘이마국’이 신, 혹은 곳에 참여한 청중 등을 의미하는 것 같으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238) 옛날 옛시절에 ~ 세를 갈길적: 현세와는 달리 나무들이 말을 하는 신화적 공간을 설명하는 것이다. 강춘옥의 「쟁긔」에서는 “그때나 그 시절에는 새가 말이 말을하고 나무들이 걸음 짓고 烏鶻까지 말살하고 말 머리는 뿔이 나고 개머리어(예) 뱃이 돛는 이런 時節입니다”와 같이 유사한 어구가 나온다. 석 이와 유사한 어구가 나온다.

239) 세를 갈길적: 세상을 누리고 다닌다는 의미로 보이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240) 네레띠리: 내려 떨어뜨려.

241) 자리끼: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방안에 떠다두는 물이나 그 물을 담은 그릇을 말한다.

242) 양추기: 양치기. 양치질하는 때에 물을 담은 그릇.

243) 쇠싯대: 세숫대야.

244) 배필 무아: 배필을 맺어.

노라 석三年 시댁으로 오노라 석 三年 구륙년 아홉해 묵으니 그렁저렁 날이 가고 달  
이 오니 三十五세 설은 다섯이 되었구나

남자간에 여자네도 지양 없이<sup>245)</sup> 한날으느 일기도 잠잠하고 보람이(風) 풍양하여 인  
물 귀정 고끼공(꽃求景) 나두 가니 강남 갔던 구제비두 새끼를 처 가지고 뒤에 새끼  
앞에 세워 앞에 새끼 뒤에 세워 오마 자자 아바 자자 하는 소리 뒤에서 쟁쟁 눈에서  
솨솨 하는구나 그때에

“대감이 낭군이 우리도 남남같이 나고 남 난 時에 나기마는 저 날아가는 저 즘상만  
도 못하다 어찌하면 좋겠소다”

집당에 네리와

“점이나 처 보소.”

천지국 천지 무당 지리부 지리 무당 어석국 삼 무당이 묘하다니

점치러 가는구나

몸 하인 상 하인 앞세우고 뒷세우고 점바치 집에 찾아 갔오

점바치라고 보니 누드기 세 이비치(三葉)이 칠푼이치 걸머 미고<sup>246)</sup> 외유월(五六月)에  
느 불개미 집도 다치지못하는데 보리짚으로 엿게를 예는 구나<sup>247)</sup>

저 거 속이 무슨 국이 있거나 재간이 있겠느냐

(노래)

몸 하인님아 상 하인님아 말 머리르 돌가 시워라 저 거 속이 무슨국이 있겠니 무슨  
재간이 있겠느냐

(말)

아 그 소리 보람질이 날느는지 구름질이 핑겟는지 점바치 그 말을 듣고

“허허 그래도 너 사지판단(四柱判斷) 나뻑이 내 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이 보람질이 날느는지 구름질이 핑겟는지

“몸 하인님아 상 하인님아 말 머리 돌리 시워라”

“선상님 선상님 사지 판단 내 주시요”

“누드기 세 이비치 이 칠푼이치 걸머 미고 외유월 보리짚으로 엿게를 메는 그 속에  
무슨 국이 있거나 재간이 있겠오”

“잘 못했오 사지 판단 네리주오”

겨우 빌어 들어내니 사지 판단을 내는 구나

(노래)

---

245) 지양 없이: 자식이 없어 기약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보면 '기약 없이'라는 의미이다.

246) 누드기 세 이비치(三葉)이 칠푼이치 걸머 미고: 점쟁이의 형색을 표현한 것이다. 누더기 세 조각으  
로 몸을 칠푼 정도 가렸다는 의미이다.

247) 보리짚으로 엿게를 예는 구나: 보리짚으로 이영을 인다는 의미이며 보통 이영은 추수를 마친 늦가  
을에 이는데, 여기서 점쟁이는 외유월(五六月)에 이고 있다.

첫 산을 던지시니 만명곳 걸린 걸립산이요 두채 산을 던지니 지음 지정산이요

(말)

셋채 산을 던지시니 사지 판단이 나온다 어지깨라 오는 깨라 금지깨라 거불에 밧씩 한 개라 갱 건너 뛰는 개라

“당신너 백일기도를 드리시요 방초 되초 소초 백미 백지 三三은 九 아홉쌍을 가차 가지고 안혜산 금상절에 올라가 석달 열을을 백일기도를 디리면 첫 자석이 아들이 나며느 구남매를 낳고 개귀의 치를 떨고 첫 자석이 딸을 나면 칠남매를 낳고 다부지(草)를 안고 구직(九族?)이 亡하리라”

그 소리를 듣고 집당에 올라 가서 황초 되초 소초 백미 三三은 九 아홉쌍을 가차 가지고 안혜산 금상절에 올라 석달 열을 百日기도를 디리시고

(노래)

석달 열을이 되니 황초 백초 소초 재미 백지 다 떠러졌읍니다.

잡당으로 돌아 온다 동기억에 네레 오니 공기(痲氣?)두 나고 잡이 와서 어-

(말)

덕주아夫人은 은절방울을 놓으시고 수차량선배 늦철바우(岩) 놓으시고 한씩 팔을 떡개 삼고 한 짝 팔을 비개삼고<sup>248)</sup> 반순 건순 잠을 드니 강남 갔던 친비우리새가 불근 구술을 물구 와 바른 어깨 앓아 윈 어깨 녕귀 팔쪽 치매 쪽쪽이 싸 품에 들어 뵈옵네다 하니 대감님 이러나오 낭군님 이러나고 남가 일몽을 받았도다

질가에서 해리 마라 질가에서 해리하면 우리 자손이 못되고 질이 질자손이 된다

집당에 네리가서 해리하니 그것은 반드시 자석의 느지<sup>249)</sup>를 받았다 정성이 미꺼 적덕이 미졌다 무쇠비단 큰 이불을 구비구비 펼쳐 놓고 원앙 금침 재 물 비개 머리만침 놓고 샛별같은 늦요강을 손질만침 놓고 일기 동품을 들었오 초방 중방 상방 다 휘여 나니 애기 들었오

석달이 되니 천가지 지물에 만가지 내가 나고 만가지 지물에 천가지 내도 나고 물에서 매갈내<sup>250)</sup> 나고 밥이서 찌개내 나고 장이서 덩내나고 떡에서 가루내 나고 다섯달에 반짐 설어<sup>251)</sup> 아홉달에 고이 서러 열달에 혈<sup>252)</sup>이 설어 일월 산적을 받아내니 달같은 딸애가 났읍니다

물명주 간 명주 석자 석치 끈어내여 도토마리 외운듯이 명실마차 묶어 놓고 젖은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혀 양정하니 초 세살에 금만하니 또 태기 있음데다

석달이 되니 또 천 가지 지물이 만 가지 내도 더 나오

248) 한씩 팔을 떡개 삼고 한 짝 팔을 비개삼고: 한쪽 팔은 떡개를 삼고 한쪽 팔은 베개를 삼고서 누운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249) 느지: 조짐(함경의 방언)

250) 매갈내: 매감내, 혹은 해감내.

251) 설어: 서다. 아이가 들어서다.

252) 혈: 혈(血).

(노래)

“여보 앞서번은 먹고싶은 거이 없더니 이번에는 먹고싶은 거 있습니다. 머이 먹고싶소 먹었으면 먹었으면” 에-

(말)

“밥에서 찌개내 나고 장이서 덩내나고 떡이서 가루내 나고 먹것으면 먹것으면 시금 텀텀 개살귀 문배 돌배라 동지섯달이 명덕 딸개좀 먹겼으면 먹겼으면……”

다섯달에 반짐 설어 아홉 달에 고이 설어 열 달에 혈이 설어 일월 산적으 받아내니 또 달 같은 여자아이입더다.

아바분데(아쉬운네) 이밥 조밥 가리겠오 물명지 간명지 석자 석치 끈어내어 도토마리 외운 듯이 묶어놓고 날이 가고 달이 가니 초세살에 금만하니 또 태기 있음데다

석달이 되니 이제는 문제보다 먹고싶은 게 땀니다. 먹었으면 먹었으면 알금살금 녹두채라 짹짹 바라지 콩나물채라 먹었으면 먹었으면 천방지방 호박채라 먹었으면 먹었으면 다섯달으 반짐 설어 아홉달을 고이 설어 열달을 혈이 설어 일월산적을 받아내니 또 달같은 여자애기 낳읍네다.

(노래)

“애이고 애이고 이런 변이 어데 있소 남은 딸을 둘을 낳고 삼만에 아덜을 낳는다는데 또 저런거 낳소”

(말)

대감님 하는 말이

“여보시요 아모 말도 마오 쥐(自己) 침(唾液) 받아 꿈게 낳다고 피나 지(稗)서 말이면 찌면 찌이 한 말이 난다고 딸이라도 많이 나오”

물명지 간명지 석자 세치 끈어내어 외운듯이 도투마리 묶어놓고 날이 가고 달이 오니 초세살에 금만하니 또 태기 있음네다.

“아이고 쥘이 듣소 가쟁이 듣소 저런이 듣소 상이서 듣소 앞방애비 듣소 뒷방 애비 골방 애비 골소 사랑 애비 듣소 이번에는 먹고싶은 거이 따오 먹었으면 먹었으면 갱 건너 미나리 채라 올통 볼통 가지채라 이므 저모 드비(豆腐)채라 흐들 흐들 청파채라 무슨지 단지 메지콩물 짹어 먹었으면---”

다섯달에 반짐 설어 아홉달에 고이 설어 열달에 혈이 설어 일월산적을 받아내니 또 달같은 여자애기 낳읍니다.

(노래)

“애이고 애이고 이런 변이 어데있소 개도 양개도 낳고 숫개도 낳겠만은 나는 개만 듯하오 볼서 딸을 다섯을 낳소”

(말)

“그 점배치 말이 맞일나는 갑다 첫자석이 아들을 나면 九男妹를 낳고 개귀에 체(糠)를 떨고 딸을 나면 七男妹를 낳고 터에 다부지(雜草名) 들 안고 구직이 망하리라 하더니 그 점배치 말이 맞이는가 보다 아이고 아이고---”

“여보 夫人 그런말을 마시요 딸이라도 많이 낳노로라면 아들을 낳겠지 딸이라도 없을 적에는 개지라도 나아지라 하더니 삼통산에 문다리(물은 다래 즉 쓸모없는) 같은 말을 하지 마라 딸이라도 한 백개 나문아들 하나 낳겠지”

물명지 간명지 석자 석치 끈어내여 도토마리 외운듯이 명실맞아 묶어 놓고 그러저렁 세살에 금만하니 또 태기 있음네다.

석달이 되니 먹기싫은 게 있음네다 이제 보니 먹고싶은게 탄 거 보니 아들이 분명하오

월은 다섯을 낳고는 여섯만에 아들을 낳는다 하는데---

“먹었으면 먹었으면 通川 맥국(미역 국) 나대(北靑의 有名한 米產地) 이밥 南大川(北靑의 게 많이 나는 내) 계젓에 먹었으면 푹푹 꺾어 고사리채라 쥐었다 찢다 개비채라 이 산 저 산 넘어 가 三代 독재 외나물도 먹었으면---

노란 노란 탕가장 장굴도 먹었으면 동심 굴망래장굴도 먹었으면---

“아이 먹고싶은 거 있으면 아무거 먹고 아들을 낳소”

다섯 달 반짐 설어 아홉 달 고이 설어 열달을 혈이 설었는데 이거 이저번은 앞세우고 노는 구나 왼 쪽이서 운뜻 하는게 아무래도 따다 배를 쥐어 보며

“여보 대감님 이 우에 마귀할미 배를 쥐어 보면 아들인동 딸인동 안다는데 그 할마 이 네레다가 배를 주물러 뵈울까?”

“그러면 데리다 뵈우지”

그 할마이 데레다가

“할마이 내 배를 쥐어 보오 아들인가 딸인가 배를 좀 쥐어 보오”

할마이 배를 올리 만지 내리 만지 하더니만

“애 애고 이 배를 가지고 아들을 나겠지비”

다리고 마당에 나가서

“올리 걸어라 행장 보자

네리 걸어라 맴씨 보자

뺨 돌아 서라 거드러 보자

행장을 봐도 아들이요

거드러 봐도 아들이요

올려다 봐도 아들이요

네레다 봐도 아들이로다”

“할마이 그러면 내 몸을 풀 때까지 있소”

“아 에미 그전에 애 설적에 방치 푹떡<sup>253</sup>을 해 먹었소?”

“방치 툇떡을 해 먹으면 어땡소?”

“방치 툇떡을 해 먹으면 애 자재 생가지요 그 전아 설적에 동지오그래<sup>254</sup> 해 먹었소?”

“동지오그래 해 먹으면 어찌오”

“아 부랑이 생가지오 그 전 아 설적에 가래 녁떡 떡을 해 먹었소?”

“그러면 어찌오”

“가래 녁떡 떡을 해 먹으면 아 녁떡 가래 같고 흘령 방수같고 참떡 구시같소”

그날부터 방치툇떡 동지오그래 가래 녁떡 떡, 이 떡 저 떡 다 해먹었소

어저는 애기 날라고 매감 조감 아파하오

“아 에미 이 슴을 앓기전에(태줄을 끊기전에) 아들 나면 뒤 돌아다 보지 마오 뒤으 돌아다 보면 수명장수치 못하오”

어저는 아 낫소 툇 떠러진 거 보니 딸이요 할머니는

“넋이 낫다(아들 낫다) 넋이 낫다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 내가 설땡기(黍稷, 쉬쉬때 껍질로 태줄을 끊는다) 꺾어 가지고 올게 가만이 업데 있어라”

할머니는 그래 놓고 짤룩 짤룩 냅대 뺏소

아 에미 진진 해를 그냥 업땡다 나니 잡기도 하고 애기도 울고 해서 죽을 방 살 방 돌아다보니 또 딸을 낫소

(노래)

“애구 애구 아이구 시상에 그 노친 앞에서 속이웠소 아들이라고 그래서 진진 해 업 데나이 또 저런거 낫구나 애이고 애이고 애이고 내 八字야 내 신세야 山川도 고이없 소 하나님도 무정하오 나도 나거니와 저 녁땡에 신세 어찌하오 남으 山川낫다 호적을 등에 지고 가겠구나-----”

(말)

수차랑 선배도 어이고 어이고 올다가

“이거 올 거 없오 이래도 우리 팔재고 저래도 우리 신세요”

물명지 간명지 석자 세치 끈어내어 도투마리 외운듯이 가르땡기 실땡기 명실 맞아 묶어 놓고

그령 저령 어저는 세살이 금만하니 또 아그 설 때가 됐는데

“이보 올 것 없오 우리 어저느 서로 절으르 가지안으면 올 일 없으니까 우리 각가로 잡시다 서로 절으로 오며느 서로 때려 쥐길 내기 합세다”

초정에 二更에 三更말당이 되니 수차랑선배 오좁 쇠패 이러나서 아래방을 네레따 보니 독주아夫人님이 누땡는 거 네레다 보니 보름이나 되였는지 달이 죄열해서 훌닥 벗

253) 방치 툇떡: 방망이 모양을 한 썩떡. 남자의 성기를 상징한다.

254) 동지오그래: 조참쌀, 쫄쌀, 밥수수쌀 등의 가루를 반죽하여 햇담알만큼 하게 동그라미를 빚어서 열 콩을 삶다가 그 물에 넣어 끓여댄다. 떡물이 없이 하여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다. 남자의 불알을 상징한다.

고 다리를 들어 걸고 누웠으니 그것을 보고 소담스럽고 예쁘고 먹음적 하여 숯탄 맹세를 해 놓고도 맞아 죽을 숨하고 초방 중방 상방 휘여다 나드리 또 달라 부트니 또 애기 들었소

아이구 구든 맹세를 다 했는데 사람을 어떻게 낚는지 전 가지 지물 만 가지 내도 나오

“여보 내가 옥항에서 득죄를 짓고 지하국에 귀신정배를 네레 왔는데 그 죄상을 다 말했으니 옥항으로 올라 가기 되었으니 내 간 뒤에 아들을 나면 편지를 하고 서신을 하고 딸이가 나문 장가락 끈어 알년지똥(귀신단지)에 영고 석쇠쟁이 불러다 돌함을 짜서 돌함에 여서 올리 채와 가리 채와 건네 채와 치 채와 용왕높이 더지고 바리오”<sup>255)</sup>

(노래)

“에고 에고 이기 무슨 말이야 죽어 이별은 가문가문(間間히) 있다 마는 사다 생이별은 생초목에 불이 붙네 내 먹겠다는 거 닥에다 맥이든 내 남편 어디가요”

(말)

우다가나이 바람질에 살렸는지 구름질에 핑졌는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이저뻘에는 국적이 노적이 벌적을(남편에게 아양떨지못한다는뜻) 못쓰고 뒷방에 가만이 들앉아 다섯달을 반집 설어 아홉달을 고이 설어 열달을 혈이 설어 일월 산적을 받아내니 또 달같은 여자아이 났읍니다 어저는 울음도 안나고 十年工夫 아미타불---

“초사래 이사래 삼고분이 사답답이 오통분이 무안이 (또는 안방 네 뒷방네 고방네 사랑네 납중네 집중네) 애들아 이우 올라가 석쇠쟁이 아방이 잡은거메고 오라 하라”

딸이 여섯이 석쇠쟁이 아방이 한테 올라가

“아방이 울어머니 몸을 풀어서 오래요”

“이 년들아 너 어머 몸을 풀었는데 내 가 머 허니 짜개졌네 메졌네 늘어 났네 내 가서 국을 끄리겠네 내 가서 머 하니”

그래서 애들이 찌끼 네레 와서

“옴마 그 아방이 너 어매 몸을 풀었는데 짜개졌네 메졌네 이스막겠네 때겠네 국을 끄리겠네 그러머 막 옥합데”

“꿈(꿈) 간나들아 아무 말도 말고 자분 거 메고 오라 해라”

아이들이 다시 올라 가서

“아방이 울어마이 잡은 거 메고 오라 해요”

석쇠쟁이 어쩐지 몰라 자분 거 메고 네레 왔오

“아방이 우리 일을 다 알지요 우리 친이 갈적에 아들을 나면 편지하고 서신하고 서간하고 딸이가 나면 돌함을 짜서 돌함안에 여러 용왕 갈높에 더지고 바리라고 합데다 돌함 하나 짜 주오”

255) 적강의 이유? 서대석 샘 논문과 비교 검토 필요/ 수차랑 선배가 떠남/ 해모수와 유사, 유화 <= 남겨진 덕주아 부인의 모습, 조현설 샘 유화 연구 논문 더 보기.

아방이 돌함을 짜서 애기를 장가락꿌어 알년지똥에 열고 애기를 돌함안에였소

(노래)

하인임이 돌함을 이고 용왕 갈눌으루 나가는데 일월이 명란한데 뇌성 벽력이 드러치고 天地 맛들어 붙는구나

(말)

하인님이 하늘에다 피복(축수)한다

“내한테는 죄 없오 죄를 주겠거덜랑 덕주아夫人 수처랑선배를 죄를 주오”

하늘을 피복했더니 천지 맛들어 붙든 뇌성벽력이 간데 없더라 용왕갈 높에 돌함을 빠져 었소

하늘 우으 수궁용왕 큰덱이 三十五세 설흔 다섯이 되여도 남자간에 여자 뒤도 없어 용왕 갈높에 나가 빨래를 하는데 강난 석부정이라 돌이 물밑에 까라 앉고 나무 물위에 뜨겠는데 돌이 물위에 둥둥 떠 가문 아 울음소리 니거덜 방치로 후리 오며

“귀신이거던 열리지말고 보배거던 열여라”

하였는데 돌함이 짝 열리는 거 보니 달 같은 애기 있오 빨래랑 방치랑 짝 던지고 애기를 안고 집이 들어 가서 종재 닭을 목을 빼서 고방에 들어가 이구석 저구석 피칠하고 애기를 품고 눕는다

그전에는 천이 어데 갔다 오며는 짝지(大門)을 연다 대문 연다 연보나온다(마중나온다) 마중 나온다 야단이던 것이 오늘으느 뒤어졌는지 썩어졌는지 몰새(沒殺?)를 했는지 쥐도 강가 새도 강가(고요하다) 하니 대문을 막 차고 들어오니 아 울음 소리 난다.

“애기 울음소리 무슨 울음소리냐”

“애구 그말 마오 나 오늘으 혼자 아를 낳느라고 생전 죽을 번했오”

“아니 아도 서는 눈치 없이 아 낳는가?”

“오래만에 아를 서니 정일인지 험일인지 몰라서 내 입밖으로 말 안내고 있었었는데 내가 열 달을 밥 먹습데이”

“아니 그러는가”

팔을 부르 거두고 밥을 한 양푼 국을 한 버치 해 디레 놓니 비젠속이 어디다 다 먹겠소 조금 먹고 뒷집에도 청 삼사리 앞집에도 흥 삼사리 위랄 축축 바둑개들 다 불러 디리다 멕였소

가이(그 애기)를 젖은 자리 말은 자리 갈아 높히 양정하는 구나

초 세살이 되니 저 江南서 건너 오는 혼두야 닷두야 왕대추 여름 열고 소대추 소음도치 저 강남 적은 손님 한강나 풍손님 다 돌가 보내시고 그렁저렁 三五 十五 열다섯이 되니 하루느 아버지 식음 젠피 하거너

“아버지 웨 식음 젠피하시요”

“야 그말을 말아라 내가 관대 관복을 지치못해 식음 젠피한다”

“아바지 내가 지여 나쏘리다”

“야 그 말을 말아라 너 어머니 못짓는 걸 너 어찌 지켰뇌”

“아버지 그말을 마시오 설모 후객(先毛後角)이라오 맨제 난 털은 못써도 후에 난 뿔은 쓴대요.五色가지 바늘에五色가지 천에五色가지 실을 구해 주오.”<sup>256)</sup>

(노래)

아버지가五色가지 바늘에五色가지 천에五色가지 실을 구해주니 관대 관복을 지워 뵈오.

아버지 하는말이가 앞뒤에 순배(끈)을 떠라 청용화도 그려라 황용화도 그려라 진달레 만달레 이석담범나비도 그려라도 그려라

(말)

아버지 입어보니 각더줄<sup>257)</sup> 두루시니 아조 맞고 딱 맞고 꼭 맞고 머금물을 지핀듯 하고 대금을 맞인듯 하고나 수궁용왕이 관복을 입고 오제용왕(五帝龍王?) 있는데 올라가니 오제용왕이 하는말이

“당신에 그 관대 관복을 뉘기 쟈소?”

“저 여식이 쟈소”

“당신에 여식이 양재요? 가는 부므느 가르 버린 날부터(그애의 父母는 그애를 버린 날부터) 내 배꼐를 내 가지라 네 배꼐를 내 가지라<sup>258)</sup> 시간 도툼<sup>259)</sup>하고 알으니 가가 가야 희재돼서 날겠으니<sup>260)</sup> 가를 보내주라 가를 안 보내 주면 당신너 집이 구직이 亡하게 할터니 빨리 보내시라”

아버지 그 말을 듣고

(노래)

집당으로 내리오니 이고재(일곱채) 바디덕이 막 다라 나오니 아버지는

“이 간나야 물러까라 치여까라 건네 까라 내 눈에 보이지 마라”

“아버지 워요 그래요 내가 관대 관복을 잘 못지여 수책<sup>261)</sup>을 맞았소 워여 그렸오”

“야 그런 거 아니다十五年 양한 공덕없고 하르 아침 낳은 공덕 나타난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요”

“야 그렇거 아니다 너를 더졌다 더진에 바룻다 바른에 이루채 바리덕이라고 주어다 양정했단다 오구두루이(地名) 너의 父母 있단다 찾아 가라”

“나는 나는 난 오마닌줄 알고 나를 난 아버지인줄 알았더니 나를낳은 아버지는 어데

256) 바리의 어릴적 비범성이 없음(?) 그러나 직모신적 능력이 이 부분에서 나옴.

257) 각더줄: 예전에, 벼슬아치가 예복에 두르는 띠를 통틀어 이르던. 각띠.

258) 내 배꼐를 내 가지라 네 배꼐를 내 가지라: 배꼐를 생명을 상징함. 덕주아 부인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말함. 네 배꼐를 내 가지라는 구비 공식구로 보임.

259) 시간 도툼: 시간 다툼한다. 덕주아 부인이 목숨이 위태롭기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260) 가가 가야 희재돼서 날겠으니: 그 아이가 가야 (그 아이가) 효자가 되어 (덕주아 부인을) 낳게 하니.

261) 수책: 책망을 받음.

있는가 나를낳은 어머니는 어데있는가 지명없이 어데를 찾아가는가”

(말)

하며 울다가 시내 갱변에 나갔오

“나를 난 어머니는 어데 있는가”

하늘에 축소를 하며 앉아 우는구나 우로서 서인님 네레 오시며

“야- 너 더졌다 더진에 바렸다 바린예 이구채 바리덕이 바리덕이구나. 이 우에 올라 가면 오구두루이 너의 父母네 있곤”

“우구두루이라고 어떻게 찾아 갑니까?”

“이 우에 올라 가면 용왕 갈높역에 여섯이 빨래를 하느리라 그기너으성이네라”

주먹을 바루 쥐고 올라 가니 여섯이 빨래를 하거널

“성이네 옥을 보오”

“성이라니 누구냐”

“내 이구채 바리덕이요”

“아이 이구채 바리덕이 물괴기 밥이돼서 뼈대도 없고 신체도 없간는데 저 거는 어데 서 저런 여귀 또 하나 생긴다”

여섯이 들어 가더니 대문을 딱 걸어 놓고 세인밥(粟飯)<sup>262</sup>을 해 가지고 나와서

“여귀도 받아 먹고 객귀도 받아먹고---”

세인밥을 허영게 씨워 놓니 제우 대문 베끼고 들어가서

“엄마 엄마 내 왔오”

어머니 말이

“저 여귀를 몰아라 저 객귀를 몰아내라”

“오마 나를 바릴 적에 장가락 끈어, 알년지똥 연 게 있으니 장지가락 내디다 맞추어 이조 맞아 들어부르면 어머니 자손이고 안들어부르면 어머니 자손이 아니라 해요”

“야들아 알년지똥에 들어가 장가락을 내 오나라”

문의 궁구를 뜯고 손 디리 보내니 장지가락 마추니 아조 맞고 딱 드러 부텨오

그 다음에 문을 열어 놓고 마주 우오

“오마 오마 무슨 병을 만났소?”

(노래)

“에구 에구 내자석아 내 자석아 물괴기밥이 된 줄 알았더니 밀오리(木名)같이 잘도 자랬구나”

그래 우다가

“오마 이렇게 알아서 어데가 점이나 쳐 봤소?”

“못 쳐 봤다”

262) 세인밥(粟飯): 상문 부정을 풀 때도 조밥을 쓰기도 함. 어부슴. 음력 정월 보름날 그 해의 액막이를 위해 조밥을 강물에 던지기도 함.

“내가 어디 가 점을 쳐 오겠소”

안다 하는데 가 점을 치니 西天西域國(이)가 양취물<sup>263</sup>)을 이여다가 자우(尺)로 매끼고(測) 자로 시추며(洗)<sup>264</sup> 병이 났는다 하니 집이 왔소

(말)

우다가

“여머니 칠가지 외인(出家者外人?)이라고 쓸대없소 어느 딸이 희제질<sup>265</sup>) 하겠능가 수품(다짐)이나 받아보오”

“그래 너의 모도 오너라 너의 어느 자석이 희재질 하겠능가 수품이나 받아 보자”

“신당 요귀같은 게 썩어도 지지않고 벌적이(아양) 방치 같다 국적이 다듬대(홍두깨) 같다.”

“말 딸아 너 어매 죽으면 어찌하겠니?”

“죽으면 어때 죽으면 별수 있겠나 썩은 새끼 솥을 매서<sup>266</sup>) 가시방탕이 끄시고<sup>267</sup>) 땡기다가 가시냉기<sup>268</sup>) 올려 걸어 놓고 불을 땡기노면 이를 양들시고<sup>269</sup>) 타 죽으면 그제 제일인지”

“너도 내 자석이 못된다 두채 딸아 내 죽으면 넘어찌겠니?”

“죽으면 어째 성이 말한가지 그러지요”

“세채 딸아 너는 내 죽으면 어떻게 하겠니?”

“썩은 새끼 목을 매서 가시방탕이 끄시고 땡기다가 가시냉기 올려 걸어 놓으며 오는 가마귀 눈깔을 빼 먹구 오는 가마귀 눈깔을 빼 먹으면 그것이 도모시(모두) 제일이지”

“너도 내 자석이 못된다 네채 딸아너 내 죽으면 어찌하겠니?”

“죽으면 별 수 있겠능가 이자성이 말한 것같이 그러지”

“다섯째 딸아 너 엄매 죽으면 어찌하겠니?”

“썩은 새끼 목을 끄시고 다니다가 언장(언덕) 밑에 놓고 언장을 꼭 밟아 놓면 언장 뜸<sup>270</sup>)이 도모시 제일이지”

“너도 내 자식이 못된다 여섯째 딸아 너는 내죽으면 어째겠니?”

“오마이 죽으면 어째 이재 성이 말한것같이 그러지”

“너도 내 자석이 못된다”<sup>271)</sup>

일곱채 바리덕이는

263) 양취물: 약수물.

264) 자우(尺)로 매끼고(測) : 조사자는 ‘매끼고’를 ‘測’으로 해석하였지만, 뒤에 나오는 ‘자로 맥이다’등과 관련하여 ‘자우로 매끼고’를 ‘잘 먹이고’, ‘조금 먹이고’라는 의미로 추정된다.

265) 희제질: 喜齋. 불교적 용어. 어머니를 위해서 서천서역국에 약수물을 길러가는 길.

266) 썩은 새끼 솥을 매서: 썩은 새끼 줄로 목을 매서.

267) 가시방탕이 끄시고: 가시 바닥에 끌고 다니다가.

268) 가시냉기: 가시나무. 냉기는 나무의 함경도 방언임. 여기서 가시나무는 앞의 가시의 구시 공식구임.

269) 이를 양들시고: 이를 악물고.

270) 뜸: 떼.

271) 어머니의 물음에 바리의 여섯 누이의 대답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기본적으로 썩은 새끼줄로 목을 매서 끌고 다니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화장을 하거나 시체를 방치(풍장)하거나 매장을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노래)

“나는 엄마 죽으면 이를 入棺禮法도 하겠소 三日 건조 예법도 하겠소. 사일 성복 예법도 하겠소. 오일 성왕제 예법도 하겠소. 초 하루 보름 朔望之禮法도 하겠소 이테 소항예 三年 대타상법도 하겠소 우망무 대망무 법<sup>272)</sup>도 하겠소 그런데 어머니 그런 말일랑 하지마오 어찌하면 빙이 났겠는가 어더가서 병점이나 쳐 보시요”

“점이 무슨 점으 치겠느냐 병이 사병에 이르렀는데 점을 친들 났겠느냐”

일곱채 바리덕이는

“내가 안다 하는데 가서 물어 보겠소.”

하고 은돈 금돈 가차 가지고 복술이 있는데 와서 문점하니 시천시역국이 가 약쉬물을 질러다가 자로 맥이고 자로 시츠야 나올 병이라 하였고 집당에 돌아와서 성이들과 이 논하는구나

“야야 내가 그 먼더 먼 곳을 어찌 가겠니 나는 못가겠다”

만딸이 못가겠다고 잡아 떼다

“서이 못가는데를 내가 어찌 가겠니 나도 못간다”

두채 딸이 못가겠다고 잡아진다

“큰 성이 작은 성이 못가는데를 내가 어찌 가겠니 나도 못간다”

세채 딸도 못간다 하오

“성들이 셋이나 못 가는데를 내가 어찌 가겠니”

네채 딸도 못간다 하오

“나도 못가겠다”

다섯채 딸도 못간다 하오

“나도 못간다”

여섯채 딸도 못간다 하오

성이 여섯이 모다 못간다 하니

일곱채 바리덕이가 말한다.

“성이들은 못간다며는 내가 가겠소 약이 없어 못난는다면 몰라도 약쉬물이 약이라니 내가 가서 질러와야지 성네 달비<sup>273)</sup> 한 폭씩 모시 치매 한 폭씩 주시요 내가 시천 시역국이 가 약쉬물 질러 가지고 오겠소”

“그러면 저년을 매와 주자<sup>274)</sup> 어데 가 남방을 얻겠으면 얻고 서방을 얻겠으면 얻고 시리 뵈아 주자”

달비를 얻어서 윗재 머리<sup>275)</sup>를 얻고 치매폭을 얻어서 씨개 치매<sup>276)</sup>를 해 쓰고 은 다 발에 닷 동이 받히고

272) 우망무 대망무 법: 함경도 지역의 망목굿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73) 달비: 다리. 여자들의 머리술이 많아 보이라고 덧널렸던 판 머리

274) 매와 주자: 달비와 모시 치마로 바리의 몸을 맨다는 의미임.

275) 윗재 머리: 여자 머리는 아니라고 함.(선생님)

276) 씨개 치매: 부녀자가 나들이할 때 머리와 상체를 가리어 쓰는 ‘쓰개 치마’를 의미한다.

(노래)

“내 엄마 내 엄마 내 갔다 올때에 꺼지 죽지마오 죽지마오”  
한 모로 두 모로 쟁계산 아흠 모로로 네레 간다.

(말)

한 모로이 당진하이 할마니 하나 방아를 찧읍데다.

“할마이 예게 세천 세역국이 가는 질이 어데요”

“예기는 무슨 선심이 자룩하여 세천 세역국이 갑니까 올적에 내 죄상 물어 오오 이리 저리 가문 푸르고 누른 질이요”

또 한 모로이 네레 가니 다리는 논는데 당진하얏소 새원노 다리를 늦소

“새원님 여기 세천 세역국이 가는 질이 어데요”

“애기는 무슨 선심이 자룩하여 볼세 세진 세역국이 갑니까 올적에 내 죄상 물어 오오 이리 저리 가문 푸르고 누른 질이요”

또 한 모로이 네레 가니 물가에서 할마이 하나 실을 낚다 당갔다<sup>277)</sup> 하고 있었소

“할마이 여기 세천 세역국이 가는 질이 어데요”

“애기는 무슨 선심차로 볼세 세천 세역국이 가시오 올 적에 내 죄상 물어 오오 이리 저리 가문 풀으고 누른 질이요”

또 한 모로이 네레 가이 할머니 하나가 물 가운데 채를 쓰구<sup>278)</sup> 있었소

“할마이 세천 세역국이 가는 질이 어데요”

“애기는 무슨 선심차루 하야 볼세 세천 세역국이 가시오 올 적에 내 죄상 물어오오 이리 저리 가문 풀으리 누른 질이요”

또 한 모로이 가니 산에서 새영군(사냥꾼)이 월(犬)쪽 프로록 하거널

“새영군 새영군 여기서 세천 세역국이 가는 질이 어데요”

새영군이 말도 안하고 막다라 내려오며

“우리 오늘으 시영(先塋)에 제사 지낼라고 콩(雉) 잡으러 왔더니 시영에서 밀고<sup>279)</sup> 산천에서 도왔구나”

한녀석이 매를 받고 앉았던 것이 매 목아지를 쑥 빼던지고 내리 와서

“이 놓아 흰수도 모른다 뇌 상손이나 내 장손이다<sup>280)</sup>”

장손에 집으로 끌리여 가오

장손에 집이라고 가니 집을 돌아보니 거적문에 은 돌족<sup>281)</sup>이요

277) 할마이 하나 실을 낚다 당갔다: 할머니 한 명이 (물에) 실을 놓았다가 담구는 것으로 실을 찧는 모습이다.

278) 할머니 하나가 물 가운데 채를 쓰구: 할머니 한 명이 물 가운데서 술을 거르는 채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279) 시영에서 밀고: 선영, 즉 조상이 뒤에서 보살피 도와준다는 의미이다.

280) 뇌 상손이나 내 장손이다: '상손'은 '장손'의 오기로 보이며, '누가 장손이나 내가 장손이다'라는 의미이다.

281) 돌족: 죽담의 방언. 막돌에 흙을 섞어서 쌓은 돌담.

업디기<sup>282</sup>) 나가 업디기 두른 집이요 기물을 자랑한다 부러진 곶방 술<sup>283</sup>)이 누런 누런 노방상기<sup>284</sup>) 꺼뭇꺼뭇 지개 반상기 허여 멀뚝한 반상기 기물도 많기도 많다  
 니 여자 하는 말이  
 “여보 시영<sup>285</sup>)에 제사 있는 날 나조(夕) 예펜네 서나 자면 자식 없다”  
 “그러면 좋다는 대로 하지---”  
 “그런데 내일 나조는 우리 하라바이 제사고 모레 나조는 우리 할머이 제사고 글피 나조는 우리 아버지 제사요”  
 이렇기 해서 한 심일은 무사히 지냈소 장손은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었소 하로는  
 “여보 뒷동산에 있는 나무도 해 와야지 않소 가매 오여 있는 소곰도 죄여야<sup>286</sup>) 짜다 하지않소 가서 나무 해 오우다”  
 “나는 예펜네 갈가바 못가겠다”  
 “여보 성안에 떠러진 감투 성안에 있지 성밖으로 나가겠소 배랑감이라 飛上天하겠소. 따뚜라지 따를 뚜지겠소<sup>287</sup>) 당신으 시영 농모동이<sup>288</sup>) 있지 농모동이 내다가 한 끝은 내 손목에 매고 한 끝은 당신으 허리에 매고 맘농고가 나무 해오오”  
 세영 농모동이 내다가 한 끝은 제 허리에 매고 한끝은 예펜네 손목에 매고 산에 올라가 나무한다  
 한번 잡아 당겨 노니 엎어지며 자빠지며 짓디디며 곱디디며 헐덕거리고 네레 온다.  
 “웬 네레 왔소”  
 “나는 새끼 흔들거리게 당신 갔다고”  
 “여보 그렇게 미련하오 산에 가 댕기는게 색게 어찌 흔들리지 않겠소 날래 풀어 놓고 맘 놓고 가서 나무나 하오”  
 어저느 풀어 놓고 이 산 저 산 넘어가 맘 놓고 나무 한다

(노래)

그지간에 은다발에 노동이 바치고 시내 갱변에 나가서  
 “十年 빈구안(病救援)에 하리아침 비회재(不孝子) 난다더니 그지간에 우로마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애고 애고 내 어찌겠니---”

(말)

옥향에서 이 울음 소리 들어니 지하궁으 기집 울음소리가 열여으 울음이고 쇠자 충신으 울음 소리여서 연등<sup>289</sup>)을 가지고 가서 대릿구오라 했소

282) 업디기 : 아이를 업는 포대기를 말함.

283) 술: 술가락, 혹은 끄트머리.

284) 노방상기: 누런 반상기. 즉 낫그릇.

285) 시영: 선영. 조상의 무덤을 말함.

286) 가매 오여 있는 소곰도 죄여야: '가매'는 함경도 방언으로 술을 의미함. '술에 담겨 있는 소곰물을 졸여서'라는 뜻으로 집에서 소곰을 만드는 것을 의미함.

287) 따뚜라지 따를 뚜지겠소: 두더지라 땅을 파서 도망가겠소.

288) 농모동이: 함흥 이고본본에는 오래기로 되어 있음. 오래기는 노끈, 새끼줄을 북한의 방언임. 여기서 농모동이는 노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연등을 타고 하늘에 올라 가서 옥항상제 손녀<sup>290</sup>)하고 살림이 딱 됐소 그렇저렁 아들을 열둘은 낳고 열두해가 지냈소

하로는 일기도 잔잔하고 바람이 풍양한데 어머니 생각이 불붓듯 난다 거기앉아 날산하게 쓰러져 울었소 남편이 곳발에 물을 주고 두로며

“웨이 열두해 찌간에 내직없다(아무일 없다)가 오늘은 워여 이리 슬푸게 우시오”

“여보 우리 어머니 빙이 사병이 되어서 안다 하는데 가서 물으니 세천 세역국이 가약쉬물을 질어다가 자로 맥이고 자로 시츠라 해서 내가 약쉬물 질로 왔다가 이 모양이 됐시니 내가 오늘 어머니 생각이 와락 나서 우오”

“여보 그러면 약쉬물 질러 가지고 가시오”

“당신이 그래 옥항으 곧발에 물을 주는 사람인데 당신이 그래 열두해동안 곳발이라구 귀경시겠소”

“그러하다면 곧이나 귀경하지”

두리서 옥항 곳발에 나갔소

곳발은 이리 저리 다니는구나

“요고는 무슨 곧이요”

“그거는 죽은 사람에 놓고 약쉬물 뺨으면 빼 내끼는 곧이요”

그것을 도독질 해서 허리키 넣고

“요고는 무슨 곧이요”

“그거는 죽은 사람게 놓고 약쉬물을 뺨으면 살아 내피는 곧이요”

고것도 떼서웃치 소매에 엮소.

“또 요거는 무슨 곧이요”

“그거는 죽은 사람에 놓고 약쉬물을 뺨으면 말하는 곧이요”

그 곧도 도독질을 해서 머리썩에 꽂고

“이거는 무슨 곧이요”

“그거는 죽은 사람에 코에 놓고 약쉬물을 뺨으면 이어나 걷는 곧이요”

그 곧도 도독질 해서 바지 눈선닛<sup>291</sup>)에 뉘소

넌편이 하는 말이

“일 아침에 약쉬물이 세번 싱싱 끌어 번지면 세 바가지 퍼서 늦동이에다 담어라”

해서 다음날 아침 새벽에 나가서 물이 세번 싱싱 끌어 올라서 세박아지 퍼서 늦 동이에다 퍼 담았소 그래가지고 아들 열 둘을 시왕에 매겠소

맞 아들은 짐광대왕을 차지하고 두채 아들은 초광대왕을 차지하고 세채 아들은 싱계대왕을 차지하고 네채 아들은 오광대왕을 차지하고 다섯채 아들은 염나대왕을 차지하고 여섯채 아들은 병성대왕을 차지 하고 일곱채 아들은 태선대왕을 차지하고 야들채 아들은 평등대왕을 차지하고 아홉채 아들은 도시대왕을 차지하고 열채 아들은 절용대

289) 연등: 이고분본에는 영드등으로 되어 있다. 용두덩이라고 하며 용장식이 달린 가마를 의미함.

290) 손녀: 손자의 오기로 보임.

291) 바지 눈선닛: 함흥 이고분본에는 바지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관련이 있는 의미로 보임.

왕을 차지하고 열한채 아들은 열시왕을 차지하고 열두채 아들은 두명감을 매겨 놓고 약취물을 질러 가지고 집으로 돌아 옵니다.

한 모로이 네레 오니 채를 쓴 할머니가 네레 오고 있소

“할머니 상기<sup>292)</sup> 채를 쓰고 있소”

“애기 내 죄상이 어땀소”

“죄상이 좋습데다. 할머니 한 뉘(一生)을 탁취장쉬를 했소 처음에는 독하게 맥에서 맑은 마음을 흐르게 맨들어 놓고 밋물을 퍼 맥에서<sup>293)</sup> 그런 죄로 구륙년 아홉해를 고생하다가 이물이 구령이 돼 들어 갑니다<sup>294)</sup>”

그 말을 듣더니 할머니는

“내 언적에 구륙년 아홉해 고생하겠니”

하더니 외곳 듯이<sup>295)</sup> 네번 하다가 물이 구령이 돼 들어갑데다.

또 한 모로이<sup>296)</sup> 네레 가니 실 싯는 할머니 있는데 당진했소

“할머니 상기 실을 싯소”

“애 애기 불서 땡게 오오 내 죄상이 어땀습데”

“죄상이 좋습데다 할머니 손쥐 메느리하고 삼<sup>297)</sup>을 똑같이 노나 가지고 손쥐 메느리 해 도독질하고 손쥐 메느리 살<sup>298)</sup> 작다고 뜯어 먹었다고 욱하고 삼비<sup>299)</sup>를 놔 와도 노바귀를 주고<sup>300)</sup> 밥을 빌러와도 묵은 밥을 주고 간(반찬)을 빌러 와도 우(위에 것)<sup>301)</sup> 또(떠)주고 쌀 빌러 와도 싸락저 돌 무거리<sup>302)</sup> 주고 해서 그런 죄로 구륙년 아홉해 고생 하다가 이물이 실뱀이 돼서 들어 가랍데다”

그말을 듣더니 할머니는

“내 언적에 구륙년 아홉해를 고생하라”

하더니 외곤듯이 세 번 하더니 물이 실뱀이 돼서 들어 갑데다.

또 한 모로이 네레 가니 다리놓는 새원 있는데 왔읍니다.

“예 애기 불서 땡기 오오 내 죄상이 어땀습데까”

“죄상이 좃습데다. 한 뉘를 다라 뇌를 했소 헌 다리로 새 다리 놓고 새 다리로 헌 다리 맨들어 놔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떠러져 죽는다 병신 된다 진사 날띠 진사 못나고<sup>303)</sup> 백이 날 띠 백이도 못나고<sup>304)</sup> 그러기 때문에 구륙년 아홉해 고생하다가 이

292) 상기: 항상.

293) 독하게 맥에서 맑은 마음을 흐르게 맨들어 놓고 밋물을 퍼 맥에서: ‘술을 독하게 먹어서 정신을 어지럽게 하여 놓고 맹물을 술로 속였다’는 의미이다.

294) 이물이 구령이 돼 들어 갑니다: ‘이물에 구령이가 되어 들어간다’, 혹은 ‘이물, 즉 구령이가 되어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보임.

295) 외곳 듯이: 함흥 이고본본에는 ‘이도곤질’, ‘이곤도드리’으로 표현되는 것과 관련하여 ‘곤두박질’이라는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296) 한 모로이: 한 모퉁이로.

297) 삼: 삼베.

298) 살: ‘삼’의 오기로 보임.

299) 삼비: 삼베.

300) 삼비를 놔 와도 노바귀를 주고: 삼베를 해 와도 구박을 주고.

301) 간(반찬)을 빌러 와도 우(위에 것): 간장을 구하러 와도 간장의 뜯물만 준다는 의미이다.

302) 싸락저 돌 무거리: 쌀을 뺏아서 가루를 내고 남은 찌꺼기를 뜻하는 쌀무거리에 돌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함.

다리 다리직이 되어 들어 가랍데다”

“아이고 내 언적에 구륙년 아홉해를 고생 하라”

하더니 외곤도시 세번 하더니 다리직이 되어 들어갑데다.

또 한 모로이 네레 가니 나무꾼 들어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타불 소리도 검검<sup>305)</sup> 하다

(노래)

일급채 바리덕이느 약쉬물 질러 가더이 남방을 얻었나 서방을 얻었나 일급채 바리덕  
이 엄마 죽어서 영장산에 영장하고<sup>306)</sup> 견지하는데 귀공을 가자<sup>307)</sup>”

(말)

일급채 바리덕이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이요 한 마디 더 하오”

“그 아지마이 질을 가겠거던 거저 가지 뉘기 노래 하는데 빠치지나<sup>308)</sup> 말지”

“내 들을만 해서 그러니 한 마디 더 하오 그러면 내 치매 폭을 한 폭식 줄 것이니  
한 마디 더 하오”

그러니 나무꾼들이 아깨 하든 말을<sup>309)</sup> 다시 한다.

(노래)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타불 소리도 검검하다

일급채 바리덕이 약쉬물을 질러 가더이

남방을 얻었는지 서방을 얻었는지

일급채 바리덕이 엄마 죽어서 영정산에 영정하고 견지산에 견지하는데 귀공 가자”

(말)

그 말을 듣고 모시 치매 한 폭식 뜯어 주고 한 모로 두 모로 올라가니 피나무 대체  
여<sup>310)</sup> 엄나무 한단에 소나무 운각에 열두당궁이<sup>311)</sup> 홀터 저 불근이 명정대 흰 망사  
대<sup>312)</sup> 들리시고 어하 도하 나가는구나

---

303) 진사 날띠 진사 못나고: 진사 될 때 진사가 못 되고.

304) 백이 날 띠 백이도 못나고: 앞의 진사와 연관한 구비 공식구로 충신을 말하는 ‘백이가 될 때 백이  
가 못된다’는 의미이다.

305) 검검: 감감하다.(원문 확인, 견견?)

306) 영장산에 영장하고: 영장은 ‘安葬’을 뜻함. 앞의 영장산은 뒤에 나오는 견지산과 같이 구비 공식구  
이다.

307) 귀공을 가자: ‘공을 드리러 가자’, 혹은 ‘구경을 가자’라는 의미로 보임.

308) 빠치다: 참견하다. 함경남도의 방언.

309) 아깨 하든 말을: 아까 하던 말을.

310) 피나무 대체여: 피나무로 만든 크기가 크고 채색된 상여.

311) 열두당궁이: 당궁은 집을 메어 나르는 품팔이꾼인 ‘담군’을 말하는 것으로 ‘열두 명의 담군’을 뜻함.

312) 불근이 명정대 흰 망사대: 붉은 명정대 흰 망사대. 명정대와 망사대는 깃발을 의미. 자세히 찾아봐  
야 함.

뱀뱀 따라가서

“하던 네라 주오 하단 네라 주오”

하니

“그년으 행상 뒤에 머리채를 달아라”

“내가 약쉬물을 질러 왔으니 행상채를 네레 주오”

그러니 열두 당궁이

“우리 네레 놓고 싹 들어 가자 저 년이 문졌으문 문고 영장하겠으문 영장하고 건지  
하갔으문 건지하고 내 버리겠으문 내 버리고--- 싹 들어 가자”

행상을 네레레 놓니

(노래)

청개<sup>313</sup> 사재 청개를 풀어라

지개<sup>314</sup> 사재 지개를 풀어라

매끼<sup>315</sup> 사재 매끼를 풀어라

(말)

매끼 쨍쨍 풀리는구나

청개 쨍쨍 열리는구나

지개 쨍쨍 풀리는구나

뻬 이끼는<sup>316</sup> 곤을 놓고 약쉬물을 뿜어 노니 뻬 으즈으즈 이끼는 구나. 살이 내피는  
곤을 놓고 약쉬물을 뿜어 노니 살이 내 피는 구나

말하는 곤을 놓고 약쉬물을 뿜어노니

아-이구 내 자기도 잣다

걸는 곤을 놓고 약쉬물을 뿜어 노니 운썩 이러나 들어 가는구나

일급채 바리덕이 어머니 손목 아주 쥐고 집으로 들어가니

집이서는 딸이 여섯이 무새 둥구 깨개구<sup>317</sup> 뇌 큰 거 개리 내 작은 거 개리 서로 도  
두다가

여섯채 딸이

“나느 어머니 있어머느 큰 게 주겠는 걸”

大門 밖에 나오니 일급채 바리덕이 어머니 손목 잡고 들어 오거닐 집이 달아 들어  
와서

“너덜 어머니 들어오면 다 맞아 죽었네라 어머니 일급채 바리덕이 손목 잡고 들어  
온다---”

313) 청개: 천개(天蓋). 관(棺)의 뚜껑.

314) 지개: 앞의 천개 사재에서 天과 地를 축으로 한 구비 공식구이다.

315) 매끼: 매듭.

316) 뻬 이끼는: 뻬가 잇는. 뻬가 붙는다

317) 무새 둥구 깨개구: 무쇠 가마솥을 깨고서. 함흥 이고본본에는 둥구 대신 두멍으로 되어 있음.

“저 녀는 우리 나가면 더 큰 거 개질레 그러면 우리 모도 손목 잡고 나가 보자”  
손목 잡고 나가 보니 아니까나 어머니가 바리덕이 손목 잡고 들어 오거널 여섯이 다  
집에 다라들어 와서

(노래)

쥐 궁구로 들어 간디 다락으로 올라 간다 밖으로 들어 간다 굴둑으로 들어간다.

(말)

어머니 돌아보니 무쇠 등구 깨서 구들에 하나 넣어 놓고 콩 고버 먹은 자리고 허핀  
은 오래고 장울관 집안 아이고 돌아 보니 기 딱 매키거널  
“야들아 내 저승가 보배를 가지고 왔다 기물을 농가 즐것이니 너덜 모도 모아 오너  
라”  
기물을 농아 준다이

(노래)

밖으로 나온다.<sup>318)</sup>  
다락으로 네레 온다  
쥐 궁구로 나온다  
굴둑으로 나온다.

(말)

문지 부렇게 뒹아 앞에 오백나한 처를<sup>319)</sup> 쭈루루 뒹아 앉소  
상문 저이<sup>320)</sup> 농가 주는구나.

(노래)

맛 딸아 돌채, 세채, 네채, 다숫채, 여숫채  
상문 저이 가지라  
뇌채 저이 가지라  
괴경 저이 가지라

(말)

저이들 농가 주니 미궁서 썰이 모가지 투옥 미구서 여섯이 다 번더졌소(죽었다)  
구데이 파고 여섯을 담아다가 다 묻었소  
그런후에 일급채 바리덕이 그날부터 알소

---

318) 나온다: ‘들어온다’의 오기로 보임.

319) 문지 부렇게 뒹아 앞에 오백나한 처를: ‘먼지 뿌영게 모여서 (덕주아 부인) 앞에 오백나한처럼’의 의미임.

320) 상문 저이: 상문살을 저이(?)

(노래)

내 소재야 어데 아프느냐 그러기 옛말에 그런데 없다  
미분 팔(파리) 잠자면 고분 팔이 잡힌다더니 니 어찌 아프냐

(말)

그정 저령 죽기 형각이 됐소

“어머니 어머니 내 죽거던 샘일 고계<sup>321</sup>에다가 물어 주어요”

일급채 바리덕이 죽어서 샘일고계다 물어 놓고 샘일제 지내러 올라 가오 올라 가는데  
서인대사 네레 오며

“할머니 어디 가시요”

“일급채 바리덕이 매 지내러 가오”

“할마이 일급채 바리덕이 죽어서 생불이 돼 나 앉아서 할머니 오면 싹 잡아 먹겠다  
함네다”

“대사 그러면 이 책계 가지고 온 소물은 다 잡수시오 말뚝이 구부러도 이승이 제일  
이지 내 어찌 죽겠소 대사 그것을 다 잡숫소”

“할마이 우리 절에서 재를 하니 재 귀경 오겠소?”

“예!”

“윤 돈짓 달 스무 초 하루날에 재를 하는 터이니 오시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오늘은 아무날 내일은 아무날 하고 윤 돈짓달 스무 초 하루  
날을 찾아 댕기다가 三年 묵은 보리 그릇기에 업혀져 죽었습니다.

그래 죽으니 인간 사람이 사다가 노다가 명부 황천에 돌아 가면 그 터전 그 마전에  
와서 오기 탈을 받기 법을 냈소

(노래)

탈이로다 탈이로다

인생 탈도 탈이요

전생 탈도 탈이요

명도 탈도 탈이요

대탈광의 시절에

사람이 나도 크게 나고

짐승이 나도 크게 나고

소탈광의 시절에

사람이 나도 잘게 나고

짐승이 나도 잘게 나고

---

321) 샘일 고계: 샘일이면 수신의 모습. 삼일의 의미: 하늘과 땅과 만물의 근원인 신. 도가에서 말하는  
정, 신, 기의 셋의 섞여 하나가 된 허무의 도. 천지인이 미분화 되었을 때의 혼합된 하나의 도.

대탈광의 시절에는  
웃이라고 입은 것이  
짓이는 석자 세치  
섞으느 석자라  
소탈광의 시절에는  
웃이라고 입는 것이  
짓으느 세치로다  
섞으느 닷 분이요

(말)

대탈광의 시절에느  
가마귀 불러 내어  
신구심산 들어가서  
삼신산 불로초를  
파오라 하니 가마귀가 너울 너울 신구심산 들어가서

(노래)

불로초를 파 가지고 나오다가  
시내 갯변에 내따 보니  
개친 병 소친 병 났또진다  
그 불로초를 금당당  
자지 소나무(잣나무) 밑에 묻어놓고  
개친 병과 소친 병은  
삼으로 좇어 먹으라  
네레 가서 좇어 먹고  
금당당 자지 소나무 밑에 와  
불로초를 파 보니  
소나무가 다 집어 먹고  
짓을 남아 지텃구나  
그때부터 소나무가  
춘추 양절 가드래도  
검구 푸르고 있구나  
짓을 남아 있을 것을  
이 거 가주구 가  
뉘기 먹고 뉘 안 먹으라  
내나 훔 집어 먹자  
가마귀가 그 불로초를 먹고

그때부터 백 가마귀  
감동 가마귀 되었구나

(말)

할일 없다 이저는 명두국에 들어가서 명두 할머니나 데리구 가자

(노래)

명두국에 너울 너울  
너울 너울 들어 가세  
명두 할미 나가 가자  
깨울라 깨울라  
이 놈으 가마귀야  
내가 워짜 너가 가라  
내나 나무나 개시쇠나 다 먹고 너가 워찌 가겠뇌  
시내 갱변 나도 가  
우리 집 소지 메느리  
빨래를 하니라  
그 거 가서 데리고 가라  
한짝 눈이 멀었노라  
한짝 다리 바탤노라  
그것을 가서 데리고 가라  
시내 갱변에 가마귀  
너울 너울 나도 간다  
명두 각씨 나가 가오  
이놈으 가마귀야  
二八靑春 어데두고  
너랑 왔띠 가겠느냐  
우리 집에 들어 가면  
우리 집에 노할마이  
고자리가 히릉한다  
닭쟁이가 농정한다  
코를 풀어 영산하고  
똥을 나서 큰 굻 한다  
오송을 놔 조래 일군다  
저것을 가서 대루구 가라

(말)

방치를 훌 집어 던지시니 가마귀가 다리를 맞아서 그 때부터 훌쩍 훌쩍 땀을 서레  
명두국을 들어간다

(노래)

명도 할매 나가 다오  
할 일 없다 모멸 없다  
마간 가는 질이로다  
할 일 없다 모멸 없다  
질성 동이로 내어다 놓고  
배를 한치 띄어 내어  
앞이다가 막는구나  
또 한 치 띄어 내어  
뒤에 다가 막는구나  
할일 없다 모멸 없다  
마감 가는 질이로다  
아들 집이나 찾아 가자  
아들 집이 찾아 가네  
내 어머니 두로시오  
미누리가 점심을 짓는다  
가매뻥이 해피 도듬  
가마뻥이 영산 도듬  
찌각 찌각 하드니 마는  
점심이 지은 것이  
초속 밥은 밑이다가  
꼬기꼬기 담아 놓고  
이차 밥을 우이다가  
너설 너설 피러 났네  
이차 밥을 한술을 뜨니  
초속 밥이 감대 난다  
여게도사 못 있겠다  
딸 집이나 찾아 가자  
딸으 집이 찾아 가니  
내 어머니 어데루 가오  
어머니 어데 가오  
모시 다리 얹히 놓고  
점심을 짓는 것이  
가매띠비 재강 재강

가매뺨이 재근 재근 하느니만  
 점심을 지은 것이  
 밑이다가 이쳐 밥을  
 꼬기 꼬기 담아 놓고  
 서속 밥을 우에다가  
 너슬 너슬 퍼러 났네  
 초식 밥을 한술 뜨니  
 이찰 밥이 산태 나네  
 사우라고 저 높으느  
 장띠(작두) 버텨이 걸어 앉아서 검전 눈알은 간곳이 없고  
 힌 눈나마 남아 있구나  
 이 노친아 이 노친아  
 널게 덕석에 달그 한 번 몰았나 이차 밥이 웬 밥이나  
 여기두사 못 있겠다  
 손재 집이나 찾아 가자  
 손재 집이 찾아 가니  
 손주라는 저 높으니  
 찌기(대문) 딱 걸어 놓고  
 찌기 시장(대문틀)에 올라서서  
 “이 노친아 이 집으로 웬 왔네  
 내 집으로 웬 왔느냐  
 딸으 손재느 보손 신기 후양 씨워  
 떡을 지워(쥐워) 합(포대기)을 싸서 없구 서리  
 아들 손재는 발을 빠께  
 돌을 지워  
 엄동 설한 극한 날에 걸키면서 이 놈으 새끼 업언 아해 치버한다  
 떡 전 아이 배 고파한다  
 이러던 이 노친아  
 내 집으로 웬 왔느냐  
 내 집으로 웬 왔느냐”  
 거기 앉아 조삭 조삭 자부더니 깜짝 별세 하였구나  
 앞집에도 청 샅사리  
 뒷집에도 청 샅사리  
 월위 축축 바둑개들이  
 연지산에 연지 하고  
 건지삼에 건지 한다.  
 이 높으 개들아

개 빼대이도 조와 한다  
쇠 빼대이도 조와 한다  
쇠 똥 가래도 흘적 흘적 떠도 진다

(말)

어- 받을데 없읍니다. 오늘으느 오기 탈을 벗고 그 터전 그 마전에

(노래)

탈이로다 탈이로다  
인생 탈도 탈이로다  
전생 탈도 탈이로다

(말)

예- 인생 탈을 거두시소

(노래)

正月이 매월이라  
임신 사인네 개경탈이라  
二月이 개월이라  
진수층인에 개경탈이라  
三月이 중월이라  
자우되인에 개경탈이라  
四月이 매월이라  
임신산인에 개경탈이라  
五月이 개월이라  
진주층인에 개경탈이라  
六月이 중월이라  
자우되인에 개경탈이라  
七月이 매월이라  
임신산인에 개경탈이라  
八月이 개월이라  
진수층인에 개경탈이라  
九月이 중월이라  
자우되인에 개경탈이라  
十月이 매월이라  
임신사인에 개경탈이라  
冬至탈이 개월이라

진수층인에 개경탈이라  
셋달이 중월이라  
자우뫼인에 개경탈이라

(말)

에! 여보시오 탈을 거두셨읍니다 인생탈을 다 거두었소 전생탈을 걷어 가실 적에 오  
늘으 東으느 청(靑)게 살령 그 산하에 들어 가면 목신 글포 예주 통공 다스(五) 목렴  
화렴 수렴 뇌렴 정하름을 걷어 백골 안정을 시게 주오.

南으느 赤게 살령 그 산하에 들어 가면 목신 글포 여주 토공 다스 목렴 화렴 수렴 뇌  
렴 정하름을 걷어 백골 안정을 시게 주오

西으로 百게 살령 그 산하에 들어 가면 목신 글포 여주 토공 다스 목렴 화렴 수렴 뇌  
렴 정하름을 걷어 백골 안정을 시게 주오

北으로 黑게 살령 그 산하에 들어가면 목신 글포 여주 토공 다스 목렴 화렴 수렴 뇌  
렴 정하름을 걷어 백골 안정은 시게 주오

中央으로 黃게 살령 그 산하에 들어 가면 목신 글포 예주 토공 다스 목렴 화렴 수렴  
뇌렴 정하름을 걷어 배골 안정은 시게 주오

인생탈 전생탈 다 걸었소 상인 복인에 머리끝에 갱긴 탈 손톱 발톱 갱긴탈 오장 육보  
에 갱긴 탈 상문 탈을 걸어 주오 오기 탈을 걸어 주오 시왕 탈을 걸어 주오 인간탈을  
걸어 주오 황천 탈을 걸어 주오 인생탈 천생탈 다 걸었소

금일 망령 극낙 세계 인도 하오

(노래)

아- 사세팔원(四十八願?)을 다하면

아- 극낙 세계 인도하오

아- 청 세지(燒酒)라 흥 세지라

아- 흥산이라 백산이라

아- 산천 예단이 다리두 간다

아- 산천 질을 닦아두 가오

아- 높은 데르 지겨두 간다

아- 낮은 데르 미꿔두 가오

아- 구근 들으느 구부리고

아- 잔잔 들으느 쓰러도 간다

아- 추목 대싸리(帶)로 쓰러도 간다

아- 저기 가는 저 행차느

아- 어디서 오는 행차더냐

아- 항경도에 살아 가던

아- 금일 망령에 온다더니

아- 히나 만사택 들이시고  
 아- 관음 가치도 들어도 간다  
 아- 행차 같이도 나라도 오네  
 아- 풍수 답산의 시계도 간다  
 아- 걸양귀(羅針盤)을 옆에 차고  
 아- 마각목(杖)으로 짚으시고  
 아- 산신책을 등에다 지고  
 아- 등산 한산을 살펴도 본다  
 아- 걸양귀를 놓고 본다  
 아- 명산이라 명산이 될 듯하다  
 아- 우처개(表土)를 띠구 보니  
 아- 운이피고 등이폄다  
 아- 과연 명산이 분명하오  
 아- 실장비(墓役人夫)를 가초사라  
 아- 일곱 집이 집이 찌고(作組)  
 아- 아홉 집이 통시 맥이(作班)  
 아- 아양 노악(組長 또는 班長)을 꿈있구나  
 아- 실장비를 뽑았구나  
 아- 목이없다 저 가패여  
 아- 자리없다 저 호미여  
 아- 피나무 함지 한 채식 가지고  
 아- 똑똑 조와도 들어 간다  
 아- 중등 혀를 디리다 보니  
 아- 푸른 띠를 띠웠구나  
 어! 석자 시치를 디리 파니  
 아- 청사백이가 어여도 난다  
 아- 벽재 끝이서 불이가 나네  
 아- 황토 색기가 나는 구나  
 아- 째득 째득 이러도 난다  
 아- 과연 명산이 분명하다  
 아- 그대여 장손들이  
 아- 우리 아버지 보시겠소  
 아- 千年 伏葬을 들이겠소  
 아- 万年 횃집을 디리겠소  
 아- 이천서 텃징 밑에  
 아- 三千石 횃쪽 아래  
 아- 천지 굴함을 디릿구나

아- 우리 아버지를 모시 놓고  
 아- 우천개를 덮었구나  
 아- 지절(床石) 앞에다 문을 내고  
 아- 지절 뒤에다 질을 내고  
 아- 상들 놓고 상식 놓고  
 아- 左右 저 켄에 童子로다  
 아- 碑石文을 그렸구나  
 아- 名山에다 모서 놓고  
 아- 풍수 양푼을 도라도 본다  
 아- 앞 山이 좋고 뒷 山이 좋아  
 아- 경치 좋고야 물이 좃네  
 아- 靑龍 黃龍이 놀겠구나  
 아- 靑龍 白虎가 具存하니  
 아- 장손 질손이 가추 된다  
 아- 백 뽕이 복봉이면  
 아- 百子 千孫이 부기로다  
 아- 아들이 나며느 백이 나고  
 아- 손재 나며느 천이 난다  
 아- 노인 봉이 고수 하면  
 아- 八九十이느 절로 산다  
 아- 창고 봉이 등고하면  
 아- 万石 부재는 代代로 난다  
 아- 万石 부재가 나기 되면  
 아- 五百年으는 나리겠네  
 아- 감모 봉이 고재 하면  
 아- 文章 子孫이 代代로 난다  
 아- 촛대 봉이 등고 하면  
 아- 효자 충신이 절로 난다  
 아- 과연 명산이 분명하오  
 아- 깃대 봉이 안대히면  
 아- 검사 판사느 절로 난다  
 아- 인생탈으 검어 가고  
 아- 名山에서 모세 놓고  
 아- 五帝 山靈 사귀여 간다  
 아- 東方에 神靈에는 靑帝나 神靈  
 아- 靑帝神靈 사기왔소  
 아- 南方에 神靈 赤帝나 神靈

아- 赤帝神靈 사기왔소  
아- 西方에 神靈 白帝나 神靈  
아- 百帝神靈 사기왔소  
아- 北方에 神靈 黑帝나 神靈  
아- 黑帝神靈 사기왔소  
아- 中央에 神靈 黃帝나 神靈  
아- 黃帝 神靈 사기왔소  
아- 五帝 神靈 사기왔습니다

(끝)

④ 《산천굿》, <붉은선비·영산각시>

창: 김복순(女, 四一歲)

장구: 同人

양푼: 황복녀(女, 五一歲)

-처음에는 主巫가 장구만 치면서 唱誦한다. 그러다가 中間에서 부터는 양푼을 같이 치저서 合奏하게 된다-

(노래)

불그나 불그니요  
산다느...

(말)

아- 불근 선배느 그 어디미 근본이요  
옛날이면 옛 시절에 글이도 있고 판단에도 있음데다.  
불근 선배느 근본으느 선간 낙출이 분명하야  
옥항상제님 앞에서 엔적에 베릿 물로 나두시다 베레 돌으 지하궁에 네레뜨리 삼통객  
이 나가셨다느

(노래)

거기서 정배르 네리 오대  
영산국 고개 밑에 하덕 중군에 부산으로 五代 독재르 내레 왔다네

(말)

그러허니 영산이느 누여연이 女息이요  
그도 선간에 낙출이 분명하오  
옥항상제님 앞에서 아침이면 쇠씻물[洗手물]이 정 낮이면 양치 물이로다 기나기모 자  
리끼라  
떠두구 땡기시다 새시댁으 지하궁에 네리뜨리 귀신 정배로 네리 오대 불치 고개 밑에  
홀터 보니 여식이로

(노래)

네리 왔다네...  
어-아-아-

(말)

그러하니 불근 선배는 거기서  
초 三歲를 당진하니  
강남 재 빌상이 큰 손니미 적은 손님 편지 전해 보내시고  
어느 독수당[獨書堂]을 꾸미 놓고 글 工夫를

(노래)  
한다느...  
아-아-

(말)  
그러거니 천자이 아배 사랑 초공[史略 初卷?]에 논아 맹재[論語 孟子] 모신 선비 내이  
드며 거기서 工夫를 하옵시고 十四歲를 당진하니 서로 혼사 말을 건넸는구나  
말으[마을, 村?] 접쪽에 지연 아부님이  
말으 입쪽에 지연 어머니요  
지연 어머니는 지연 아부님하고  
인사이르다.  
부모이가 첫 말을 부치는구나  
첫 말 부치시니 막설이요  
이 말 부치시니 하설이요  
지연 어머니너 불거니 선배 연세르 논질하니 十四歲 열네살이 靑春이요 지연 아부님  
으너 영산이 연세르 논질하니 지해 十六 열 여섯이 호연[好緣?]이다.

(노래)  
판단을을 한다-

(말)  
그러허니 거기 삼번만에 산허락이 대홉네다.  
사번 채번 말 한 판에 천년 연한 곳에 꼬[꽃] 한 퍼기[포기?] 피엇서라  
거기서 불근 선배 아부님으 영산각씨로다 불근 선배 구합[궁합]으로 가리는데 납채  
가고, 장개 가고, 시가를 가신 날으, 오실 날, 가실 날으 자서이 꼬누시자 새박 조박  
일기하고 갑매라느 말으 타고 남이 따이르

(노래)  
간다- 너-어-어-와

(말)  
그러허니 선생이 마전에 당진하야 마당에다 말으 매고 선생이과 人事-르 하고 재피방

에 넘어 앉아 은돈 금돈 내어 놓고 사주 평논 구합이라  
신부 실랑이 오실 날, 가실 날을 고누시겠다고 하옵시니,  
선생님의 왼 손금으 디리시고 오른 손금 매디 품어 구합으로 가래는데

(노래)

甲子 乙丑 海中金에 丙寅 丁卯 炉中火라 戊辰 乙巳 대리무[大林木] 금과 불이 좋기  
르 끝이 없소

(말)

거기서 영산이느 납채 가실 날으느 四月이라 初 야드레에 날이 성자 지어 납채

(노래)

간다네...

(말)

그러하니 불그니 장개 가실 날으 六月이느 유두 날입네다 정낙(正) 年時네다  
시덕으로 영산이가 가실 날이 四月이느 초 야들엿 날이 정낙 年時며 시덕으로

(노래)

간다네...

(말)

그러하니 거기서 신부 실랑 모시러 가실 날으 자서이 골라 가지시고 집당으로 선생님  
과 가누라고 하직하고

집이 가서 날이 가고 달이 오니 거기 납채 갈 날으 四月에 초 야들애 날이 당진한다.  
무얼부터 가춤니까

밤이 짜던 일공단이 낮이 짜던 월공단이 해 그리던 일공단이 달그리씨 월공단이, 불  
기 불기 청 대단이 푸림 푸림 흥 대단이로다.

모시며 제 철이며 오록 조록 당 향나라

입맛 도년 거젓마리 석당 석비르 납채 싸고 납채 속이 청실 흥실 오리 답장으로 연  
三匹으 싸웁시고 납채느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裕?]한 사람 파이 골라

큰 지게르 지우시고 아 그르사느 아부님이 가시는구나

천방 지방 몰아 가서 영산이 맥이 당진하야 방중에다

山水 屏風 人物 병풍 펠체 놓고 납채르 도라 보니 忠臣님에 物이고 分明하다 子弟  
연애비가 分明하네

납채르 둘러 보고 아래구느 안방에다 주안상을 받아 물리시고

거시서 하직하고 사둔 댁이서 집당으로 도라간다고 人事라 하여 집을 간다.

(노래)

어-아-

(말)

그리가서 六月 유두날이 기영 기영 당진하니 무얼부터 가추드니가

(노래)

난호걸이여 실란선이 천에간에 뒤내기는 말석거리 일상이며 등 놓이며 해상 상 가는  
정배 된 정배라

(말)

어- 가치 가지시고 거기서 불근선배르 紗帽 角帶 간대 관복[官服]으 치쳐 입히시고  
오리 아부님[雁夫]으 오리(木○?) 한 쌍으로 紅○홍보에다 싸서 안으시고  
거기서 불근서배 아래꾼들이 백제[辟除] 소리 치는구나  
천방 지방 영산이 댁으로

(노래)

간다네

(말)

드러가니 十里에다 우막 치고 五리에다가 帳幕 치고 大門前에 나서 가니 요디섬이  
네리 서서 영산이 댁이서느 식염빔가[과] 한전법으 공노[公論]한다  
마당에다 천장 휘장 구름장으 치저 치고 상으느 매여 놓고  
만보정 제부중으 펠체 놓고  
유리병이다가 花草르 滿發을 시게 놓고 양푼에다가 물 떠 놓고 靑鶴 紅닭을 잡아 올  
레 놓고  
영산이느 七宝丹粧에 노이 홍삼[綠衣紅裳]을 시기시고  
연반매[蓮花鞋의 訛?]르 신으시고 앞에다가 몸종이르 앞 세우고 마당 동뚜르 나오는  
구나  
불건선배하고 영산각씨하고 마주 세워 놓고 쉬연법을 하는구나  
주연서 나오시다  
조롱박이다가 이연주[因緣酒?]를 메어 늦는구나  
불건선배느 만지 이연주르 부어서 그대 영산이한테 보내시니  
영산이느 마시재고 고이 들구 셧읍니다  
이래 불근선배 말씀하기르

“여봐라 그대 처자 들으라  
처재르느 이연주르 보내느 그릇든 그대 처자 내 家門이 올작치면 첫채르느 세영차제  
[先靈祭祀?]요 두채르느 자석으 뒤치고 父母르 거느리고 그 뜻드르 먼저 보낸다”고

(노래)

한다네- 아- 아-

(말)

그러니 거기서 영산이느 받아 마이시고 영산각씨 이연주르 부어 낭군에게 보내시니  
낭군님이 받아 마이신다.

서로 두분이 읍하신 후에 영산이느 후원으로 도라 들어가고

불근선배 房中에 마리전에 올라 오는구나

큰 상으르 받는구나 큰 상 챙기 맥기 받으시니

큰 상 받아 물리시고

(노래)

간다네- 아-아-아-

(말)

그러거니 거기서 七月七夕날에 영산이 왕세 시댁으로 네레가고

거기서 불근선배넌 처자르 대리다 놓고

“처자야 들으라 나는 工夫르 더 하여야 되겠으니 내가 안해산 금생 절관에 올라 가  
글 工夫르 하고 네리오겠으니 兩親 父母 모시고 편히 편히 잘기워라”

(노래)

한다네- 아- 아-

(말)

그러거니 거기서 불근선배느 절관에 올라가서 글 工夫르 참三年으 하는구나

한날으느 先生님이 학생들을 불러 놓고

“너이들이 들어라 工夫만 하면으느 못쓴다 어저 우리 날새도 좋고 일기도 양양하는데  
春三月이다 山 놀이다 꽃 놀이다 우리 지금 소풍이 삼아 山 놀이르 가자”

“글랑 그리 하시요”

거기서 山 놀이르 가는구나

山中에 짙은 차山中에 드러가니 三四月이 好時節이 진달이라 만달이라 있었다 봄 나  
우[蝶]르다 꽃속이서 해주 해주 웃으며 너울 너울 춤을 추어 큰 나무가 노는 것을 보  
더니만으 불건이 생각하되

영산이느 집당이서 三四年동안에 나르 보기싫어 어찌 살능가 고 이런 생각 영산이 생각  
이 푸른 듯이 올라

(노래)

온다네- 아-아-아-

(말)

東便으 살피 보니 江南 갔던 구제비느 九月九日 날이 제 江南에 들어 갔다 三月三  
날이 나오는데 높이 넘어 히열인다  
나추 뜨며 허무력 푸르러이는구나  
거기서 앞으 제비 뒤어[뒤에] 서구 어무 제비[어미 제비] 앞 서며너 새끼 제비 앞 세  
우고 굽별기가 소별기르 물어다가 너 먹어라 나 먹어라 우질 구질 하는구나  
그리서 불그니 칠평터 보고 나에 양친 父母님으느 집당이서 나르 보기싫으겠다느 생각  
이 푸른듯이 올라 오는구나  
거기서 그날 땡기면 놀다가 절관에 네리가서 야밤에 밤중에 부덩새느 우는구나  
그적에 영산이 생각을 하는구나  
야밤에 우는 새느 님으 생각이 나서 우니 영산이느 나를 보기싫어서 어찌능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한다

(노래)

는구나 아-아-

(말)

그러하니 아침에 일떠나 선생님전에 드러가서 참마나 대주가고 선생님이 절으  
“오늘이 집당이서 서신이 저리케 왔으니 저는 집당으로 네리가야 되겠읍니다 그러하  
니 그 간에 편이 편이 지우시요”  
선생님이 말씀혈기르  
“불그나 니가 무슨 일루 집당으로 브른듯이 가겠느냐 오늘어느 日기느 좋지마는 日辰  
이 나쁘니 못갈 길이 분명하니 다른 날이 가라”구

(노래)

한다네- 아-아-

(말)

그러니  
“선생님이 선빈데 무슨 일진이 있습니까 정이 나쁘시다며느 맥패나 시게 주십시요”  
“그러며느 정녕 가겠으며느 맥패르 시게 주마

어디만큼 네레 가다 목이 말으구 탁하시면 질 우에느 맑고 정한 물이 있고 질 아래는 흐리고 탁한 물이 있으니 맑고 정한 물으느 알간체 마르시고 그리고 탁한 물이 마이 라“고

(노래)

한다네- 아-아-안-

(말)

“그리고 십리만큼 네레가다가 멀기 다래 포도로다 아주 보암스럽게 익어 저자 저도 알간체 말고 네레가고 오리만큼 네레가다 악수가 네리 붓느리라 그러나 비르 궁굴지 말고 그양 가고 십리만큼 네레가면 동지역이 있느리라 거기 올라 서면 十年목은 나무로다 아지[枝]는 十萬 아지로다 질이[나무 높이]는 구천 질이로다 그 나무서 불이 천 불 지불 붙어며느 새파란 새 각씨가 불 꺼 달라고 병력같이 소래쳐도 **악과체 마르시고 그 불으 견어 주지 말라**”고 하였소

그런 맥패르 시계 주시능 거 알고 선생이서 하직하고 떠난다

(노래)

에- 에- 아- 아-

(말)

그러하여 어디만큼 네레가서 불연간에 목이 말으구 탁하시나 질우에 살피보니 맑고 정한 물이 있음데다 질 아래르 구어보니 흐리고 탁한 물이 있음데다 뒤에서 쪽배지르 떼어 쥐고 거기 흐리고 탁한 물으 마이자구 생각하는구나 그러다가 내가 맑고 정한 선배로다 내 속이 깨끗한 선배데 무삼일로 흐린 물으 마이갯네 질 우에 맑고 정한 물으 마이갯다

질우에 맑고 정한 물으 거퍼 세 배지르 마이시고 十里만큼 네레가니 멀기 다래로다 포도로다 아주 보암스럽게 익어 만발을 하였구나 그양 지내치자고 생각하니

내 어찌 저 열매로 보구 그양 갈 수 있겠느냐 한 송치르 떼어 한 손에 들고 또 한 송치 양 손에다가 들고 네리 간다

五里만큼 네리 가라

고장 날째 日氣 창창하던 날씨로다 天地가 맞붙는 것갯습데다 악수가 네리구는구나 내가 선생님으느 비르 궁구지 말라고 하였지마는 나는 선배로다 내가 왜 이 비르 맞구 가겠느냐

그리서 비르 궁궐소 그 비를 궁궐 가주 네리 간다

五里만큼 네리 가니 동지역이 올라 서서 十年 목은 나무로다

아지는 十萬 아지로다 질이느 구천 질이요 그 나무에 새파란 새악씨가 천불지불이 붙는구나

“거기 네리 오는 불근이 선배야 이 불 꺼 달라”고 병력같이 소래치니  
내가 선생님의 저 불으 끄지말라던 거 그러나 영산이 나르 오능가고 마중으르 나왔는  
지 모르니 도복을 벗어 들고 물을 무체 천불 끈다 물을 무체 지불 끈다  
그 불을 끄구 나니 새각씨가 세번 네번 도지하더니만으 이락이라는 大蟒신이 돼 와  
입으 다홍같이 벌리시고  
“내 입이 들라”고 병력같이 소래치니  
불근선배는  
“어리재 큰 습생이 불 꺼 달라고 하여서 불 꺼 주었는데 은혜뵈헤 원수 되었느냐”

(노래)

한다네- 아-아-아-

(말)

그러니 그 습생이 말씀하거르  
“여봐라 불근선배 들어라 오늘으 내가 이 나무 十年에다 옥황에서 정배로 네리 와  
서 十年 마추구 오늘이 내 몸 만지 먹겠느 물이로다 멀기 다래로다 내가 만지 먹고  
불이 붙어 천불 지불이 승천하야 옥황으로 올라 가겠는 걸 니가 모도 만지 먹었으니  
너르 잡아 먹어야지 나는 옥황으로 승천하겠다느

(노래)

한다네- 아-아-아-

(말)

그러하니 거기서 불근이 앙탈한다  
“여봐라 이 습생아 우리느 父母 兩親이덜 계시고 오늘으 父母兩親이가 나느 五代  
獨재[子] 외 아들이니 네레 가니 갔다가 오늘이 갔다 넬 아침에 해도지에 올 터이니  
그때 와서 잡아 먹으라“

(노래)

고 한다는… 아-아-아-

(말)

어- 오야 가고 지야 가고 거기서 집당으로 네리 가는데 그 습상이  
“불근선배 들어라 네가 올 시간에 아니오면 너에 집이 네리 가서 구족으로 망하기 하  
겠이니 그런 줄으 알아라”  
“글랑 그리 하라”고 하고  
집에 들어 가서 아부님 어머님한테 들어 가 인사하르 들이시고 內方에 들어 간다

영산각씨느 진지르 챙기서 다리 오는구나

불건선배 수심이 낙누하야 진지상을 아니받으시니 영산각씨 묻는구나

“여보시요 낭군님이 무슨 일이 생기길레 진지도 아니받고 수심이 낙노하십니까 저하고 말씀으 하시면으 제가 맥패르 들일 터이니 말씀이나 일레 주시요”

불건선배 하는 말이

“그대 처자야 그란 것이 아니오라 선생님이가 집당으로 네리 올 때 여러가지 방법으 가리키는 거 내가 반델 하야 그거 다 그대루 못하시고 물도 흐린 물으 먹으라는 것 맘고 정한 물으 마이시고, 멀기 다래 뜯지말라 하는 것 하두 보암스러와서 두 송치르 띄어 먹고 비도 궁굴지 말라는 거 비도 궁굴렸소 거 돈지역이 올라 서서 十年 묵은 나무로다 아지 十萬아지 질이 구천 질이 그 새파란 새각씨가 천불 지불이 붙어 불 꺼 달라 하여도 알관체 말라던 거 영산이가 나르 보기싫어 마중으르 오는 걸어서 불 꺼 주구 왔더니 세번 네번 도지하더니마느 대망신이가 돼 와 한다치느 고내부치 입을 다 흥같이 벌리시고 내 입이 늘라고 병력같이 소래치니 거기서 은에벤에 원수더야느냐 하니 저르 잡아 먹어야 옥황으로 승천한다 하니 오늘 저녁이 연기르 하야 널 아침에 해도지에 간다고

(노래)

한다는... 아-아-아-

(말)

그러니 이르 어찌하면 좋겠는가“고 으논하니

“여보시요 낭군님아 여역 걱정 말으시고 어서 날래 진지르 받아 물리시요 제가 맥패를 하오리다”

그 밤에 잔다는 게 그양 뜯 눈이 바키고 새벽토락 오드니만이

영산각씨 배르 짜더 배틀이 가서 쑥새칼으 떼어 처헿것티다가 싸서 품이다가 품는구나

“여보시요 낭군님아 내가 먼저 가고 한참 있다가 손목으르 흔드시면 그대 낭군이 네리 오시라”고

(노래)

한다네- 아-아-

(말)

“글랑 그리 하라”

영산이느 여러가지 준비르 하야 그 시간에 네레 간다

네리 가니 그 습상이 스투르 하고 오는구나 묻는구나

“여보시요 아가씨 여기 밑에서 쪽고만 최립을 쓴 선배가 오시는 거 못봤는가”하고 물

으시니

“여봐라 어리채 큰 습상이로다 인간으느 왜 찾느냐”하니

“그렇것이 아닙네다 나는 十年 네리 와 정배루 있다가 옥향으로 승천하는 거 그 선배  
가 불 꺼 주니 잡아 먹어야지 승천하겠다고”고 하옵시니

“여봐라 이 즘상아 그 분이가 내 남편이 분명하다 그러니 내가 낭군이 없이 살자면  
으 이 핑생이 쓰구 입구 놀구 먹구 할 것 대처하고 주옥 잡아 먹어라”

“글랑 그리 하시요”

그 즘상이 목으 찢룩거린다 세번이 탁 하니 팔 마 양강지[八모가 난 夜光珠?]르 게우  
는구나

“이 거 아가씨 가주 가면 일핑상이 놀구 깨까지 먹구 사니 받아 가주구 가시요”

“여봐라 이 즘상아 아무리 용천금이라도 불릴 주르 알아야 불리지 이 것 중돌산나 어  
찌 쓰년 법으 알아야 되겠이니 절 절이 가르키라”

(노래)

고 한다네- 아-아-아-

거기서 아가씨 첫 모로스 저너지면

하산이가 명산이 되고

절로 나는 모이외다

두 채 모로이 저너지면

명산이가 하산이 되느

절로 나는 모이외다

세 채 모로 르 저너지면

없던 금전도 절로 난다

절로 나는 모이외다

네 채 모로이 저너지면

없든 사람도 절로 나고

절로 나는 모이외다

다섯 채 모로이느 저너지면

없던 집두 나 지고

절로 나는 모이외다

일곱 채 모로이 저너지면

끈텔양이 절로 나고

절로 나는 모이외다

거기서 한 모느

아이 가르케 주는구나

이 습상아 이 습상아

이 모로르 어서 바빠

한 모로이 가르키라  
 그러허니 그 습상이  
 아이 가르키구 있음데다  
 거기서 영산이느  
 가슴이서 네르 짜던  
 속새칼르 꺼내 쥐구  
 그 짐상이 텍죽이르  
 두번 세번 감아 진다  
 어디제 큰 습상이  
 어약으르 어이 겹느냐  
 어서 바빠 가르케라  
 그 습상이 습성이너  
 눈물을 바우 바우  
 바우 바우 흘리시며  
 아가씨 아가씨 텍죽이르 느처 주시요  
 어서 바빠 가르키겠소  
 거기서 한주르 한주르 감은 거 느○ 주니  
 한 모로느 쓰는 거느  
 미분 사람기다가 전주시면  
 절로 죽는 모이외다  
 이 습상아 이 습상아  
 너 보다 더 미분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 짐상이다 전주시니  
 지긋 나가 자빠진다  
 거기서 영산이느  
 고개 한정에 올라 가서  
 손목으로 꺾덕거리니  
 불근 선배 네리 오네  
 어디 재 큰 증성이 죽은 거  
 그양 무당이 버릴 수 지양없다  
 거기서 탁상궁내  
 탁상궁내르 드러가네  
 하 나무두 이천지요  
 저 나무두 이천지요  
 이깎 나무두 이천지요  
 삼 천지 네라다가  
 우물 井재르 짜게 놓고

그 증성이 거기다 올려 놓고  
 하장으르 시기는구나  
 하장시기느 재느  
 어찌 무당이 버리겠니  
 그래서 그 재르느  
 여들 봉지르 싸 놓고서  
 한 봉지르 얻어다가  
 함경남도 던진다  
 白頭山 살령이 나두 난다  
 또 한 봉지 들어다가  
 피안도다 던지시니  
 모란봉 살령이 절로 나네  
 또 한 봉지 얻어다가  
 가완도에다 던지시니  
 금강산 살령이 아랬는구나  
 또 한 봉지르 들어다가  
 쟁기도에다 던지시니  
 三角山 살령이 절러 나네  
 또 한 봉지 들어다가  
 황해도에 던지시니  
 九月山 산령이 절로 나네  
 또 한 봉지르 들어다가  
 절라도에 던지시니  
 지리산 살령이 절로 나네  
 또 한 봉지를 들어다가  
 충청도에 던지시니  
 계룡산 살령이 절로 나네  
 또 한 봉지를 들어다가  
 경상도에 던지시니  
 太白山 살려이 절로 나네  
 그 담에 기튼 것 가져다가  
 사오방에 뿌리시니  
 사대큼시 살령님이  
 살령님이 되는구나  
 나무에다 뿌리시니  
 곳신 살령이 되는구나  
 돌이다가 뿌리시니

石神 살령이 되는구나  
 물이다가 뿔이시니  
 각사 즘성이 되는구나  
 거기서 두 분으느  
 이 땅으로 네리 가서  
 불건선배 실낫같은  
 이내몸이 태산같은  
 사병이가 이르렀소  
 경찬모로 대사천택으로  
 거기서 병점을 가네  
 병점 절로 네리 가서  
 은돈 금돈을 내어 놓고  
 병점으로 가래시니  
 왼 손금을 디어 잡고  
 오른 손금은 내리 굽어  
 이 복을 부치더니 여보시요  
 불근선배 불근선배  
 山川 동토가 이르렀소  
 八道 山川에 살령님이  
 山川 동토가 이르렀으니  
 산중에 고양매르  
 새영매를 찌어다  
 삼정 구정때르 찌어다가  
 가완도에 함경도에  
 八道 山川 山川에다  
 살령 기도 디리시구  
 피묵 보시 山川에 들어 가서너  
 젓 상으르 배설해 놓고  
 山川 곳을 디리시며  
 불건선배가 나사 나네  
 거기서 선생님으  
 하직하고 집당에 가서  
 집이 가서 준빌 한다  
 오백미르 다시 다시  
 열 두 벌을 쓰러 가주  
 마지 불기 새영매 지어서  
 각 곳에 八道山에

피묵 보시 山川에 들어가  
 山川 곳으로 챙기는구나  
 山川 상은 여들 상이요  
 여들 상을 배설해 놓고  
 山川 ○내르 디리시니  
 山川 곳으르 디리시니  
 불근이느 나사났소  
 아랐는 듯 마랐는 듯  
 아주 예영 나사나니  
 받아 노다가 기양 못가고  
 기양 못노고 가시니  
 지부왕 염나대왕이  
 두루 왔길레 千秋萬代  
 代代 전송에 살기늑이  
 익히 먹기 근본을 낸다  
 지하궁 인간덜이  
 山川 동토가 이를 적에  
 山川 곳으르 받기 하오  
 山川 곳으 받아 놓고  
 家戶마다 집집마다  
 山川 곳으 디릴 적에  
 영산이야 불근선배야  
 山川 곳으르 받으시구  
 오늘에 가신 금일 망자  
 그 山川에다 가년  
 山川이라는 거 있음데다  
 이십대 무처 있년 山川어느  
 어느 도이라고 아이있겠소  
 이십대대너 山川하이  
 백골이던지 나무던지  
 현대목이 돌이던지  
 동토 안정을 시겨 주구  
 아주 무상이 시계 주구  
 그리하야...

⑤ 《돈전풀이》, <궁산이·영산각시>

구송: 강춘옥(女, 七四歲)

장구: 同人

양푼: 백가야(여)

제금: 김금복(女)

(말)

山川下에 들어 와서

(중략)

많은 사람 많이 주고 적은 사람 적게 주고 거게 있는 맥에 놓은 사람덜어 몇 万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든 다 내 주는데 망령으느 오늘이 가주고 나와서 잡수구 살아 노이러 가다가

세상 떠난지 x年이 되었읍네다. 그런데 슷탄 빛을 가지고 환전도 못 바치고 벤전도 못바치니 오늘 날으느 망령에 초흔날이 되기를 예납으로 드리놓고 각삭 제사를 다 멘 하고 정상에서 가주고 나온 본전을 환전을 바치고 벤전으느 대왕님전에 모두 바치니 그 대왕이 열매를 되겠습니다.

이 돈을 디리는 근본이가 궁주섬에 궁산이가 장안 부짱니다. 부재 득명하구 잘 삽니다.

그런데 그 궁산이는 못나기로 못났지요 쪽박 쪽박 얹어서 시찌리 곰보양 곰보 이런 곰보질 하오다 그런데 돈으느 육오 만양이 많아서 평생에 노는 직업인즉으느 장기 놀이요 바둑 놀이요 골패 놀이요

그런데

매월각시라 잘 나고 어여쁘고 사사 삼경(四書三經) 通達하고 그런 여자에게 궁산이는 돈이 많으니 결혼하자고 말은 건넵니다. 첫번 말에 허사렸읍니다.

또 다시 가서 형세를 구어 보고 다시 말을 한적으느 이번에는 半許諾을 받았소.

세 번차만에 사지 박기 되었읍니다. 이래서 사지 받아 가지고 시집 가고 장개 가고 뎡월각시 궁산에 집에 들어 와서 몇해 몇年을 살았읍니다.

그런데 자식으느 간네 없구 열여대 살았읍니다.

그때으 배 나라 배 선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놈은 역적놈이요 도둑놈이요 살상하는 놈이요 칼로찔러 찍이는 놈이요

그런 놈이가 쇠식을 들은 적으느 궁주섬에 궁산이가 장기 놀이 바둑 놀이 골패 놀이 선수라 하이재매떠 보자 하구

종선 하나 무어 쪽선 하나 무어 배를 무어 음울을 가차 가지고 궁주섬에 와서 물가에 다 배를 띄워 놓고 등등 울리면서 소리 합니다.

궁주섬으 사람들이가 저게 천상 선관이 네렛구나 어떠하이 저렇기시라 물에서 소리도 잘 하고 말도 잘 한가 저런 게 예 어디 있겠느냐

궁주섬의 사람들이 쪽배를 타고 나가서 모도 귀경 합니다.  
 궁주섬의 궁산이 어이 없은지 못난지 어떤 사람이 왔는가 나가 보자 하고 나가 본 적  
 으느 어이 찬 놈들이 그렇게 와 있소  
 이 거이 궁산인줄 알고 역적놈이 ‘아 이기 날래 들어 오십시요’ 받들어서 칩 디리 놓  
 고 통성합니다.  
 어느 나라서 왔느냐 하니  
 「예 배 나라에서 왔읍니다. 말을 듣자니 당신이 궁주섬이어서 골패 놀이 선수로다 바  
 독 놀이 선수로다 장기 놀이 선수로다 그러나 선순데서 좀 배우자고 배 나라에서 왔  
 읍니다. 궁산이요 우리 장기 한치 때워 봅시다. 내 궁형으그 내 재간을 뵈일러 앓읍  
 니다.」  
 어여뿌 안기 잘 추어 대니 궁산이 좋와서 장기 판을 내 놔라 했소  
 장기 판을 내 놓니 배선비가 「장쉬느 어느기야 즐이는 어느기야 차는 어느기야」  
 모도 이래서 배나라 배선비란 놈이 궁주섬의 궁산이한테 졌소 부러 졌소.  
 한번 지고 두번 지고 세번 지고 여남번 지고 나니 저거 궁산이느 입이 딱딱이 되며  
 그 못난이 웃느라고 씨름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집당에 들어 앓거덩 매월 각씨  
 「어째 나가서 무신 일도 나가서 이렇기 여러 날 나가 있습니다」  
 「뭐 내가 아무렇기 나가 있다가도 돈을 많이 먹어 디리문 되잔느냐 말은 무슨 말이야  
 」  
 장기 때워서 얻은 돈을 갯다 쓰러 났읍니다.  
 그 다음에 배선비한테서 통기와서 궁산이 나와서 다시 한치 더 뛰어 보자 했소  
 궁산이 돈이 여 가지고 나가서 뵈니다.  
 이번에는 이 놈이 손을 쓰니 졌읍니다. 한치 지고 두치 지고 세치 지고 여남번 뵈두  
 다 졌소 그놈의 돈 먹었던 거 다 게워놓고 또 한치 뵈뵈읍니다. 위쟁기를 다 엮소 돈  
 이 半半 나게 지어졌읍니다. 배나라 배선비는 「구형이야 이저느 세간 드무새를 다 열  
 고 가장집매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여재라도 다 열고 나는 종선 하나 쪽선 하나 져대  
 군 다숫 노릿군 다숫 보시꾼 다숫三五十五 열 다섯을 다 열고 우리 대매 띠 봅시  
 다.  
 내가 지머는 다 디리고 구형이 지므느 여자던지 쇠던지 그 안에 물건 다 넣고서 우리  
 대매 뵈시다」 궁상이 이 놈과 대매 뵈읍니다.  
 뵈구 나이 궁산이 졌소 배나라 배 선비놈이 이겼소  
 맹월 각씨 아이들이 내 보내여 본즉으느 궁산이 씌은 곳이 사구 죽기 형상이 되고 죽  
 도 못한단 말이요  
 맹월 각씨느 궁산이가 여자도 모도 여쿠서 대매 뵈다는 말을 듣고 종놈을 모도 내 띠  
 뵈소 「남 준 쇠를 너 가 한짝씩 가주 오너라」  
 그래 남으 쇠 줘던 거 갯다가 이 쇠를 잡아서 부육을 뵈소.  
 쇠괴기 모두 잘 이키 가지고 궁산이 옷을 세볼 했읍니다.

쇠괴기 소개를 넣고 하고 이래 세불을 졌습니다.

괴기 지튼 거 고름 질에다 착착 열고 바가지 하나 함박 하나 짐에다 엮소 함박에는 종이 주머니에다 소곰 수절 한 매 실 한때 바늘 낙시를 꾸려서 여서 두고 낙씨를 꾸려서 모두 보따리에 여 주었소 그리고 시집 올 때 어머니 집이서 거주온 봉학이를 맥이던 것을 묶어 놓고 있었소.

공산이가 거승코 시부시 들어 와서 「이 거 보시오 간밤에 공식에 자리에 불이 붙고 원앙금침이 허리 끈에서 나가 바다 물에 가압데다 이 것이 무엇이요 생전 이별이 되오 웨 그리 나가 있습니다. 할시 없소 거 이제느 나가기 됐이니 다 고렇게 꾸려 냈습니다」

이저느 배나라 배선비가 들어 오오

맹월각씨는 숨 우리<綿衣>을 입구 거든 맵씨를 하고 오양도 친다 재깨도 친다 모다 나 거두고 종을 옷을 잡 입해서 치장을 시켜서 방중에 들어 가 얹히 놓고 있었소.

배나라 배선비라는 역적놈이 들어 와서

「구형이 내기는 그렇게 졌지마는 내 남으 마누래를 어찌 가져 가겠읍네다. 저게 저기 뇌비를 가져가겠읍네다」

매월 각씨 할시 없소

종이를 아홉권 디리서 옷을 한번 지어 입고 종이칼을 만들고 종이 단치를 해서 달은 옷을 아홉벌을 해 놓고 공산이 입던 구슬 옷을 봉학이와 함께 싸가지고 갑니다. 나 갈 적에 맹월각씨 맹월각씨 이 놈보고 「선배님이 나와 같이 가는데 저공산이를 여기 다 두어 두면 우리들이 못살게 되오 저거 데리고 갑시다」

이 간나 새끼 배선배란 놈이 맹월각씨 보더니 침이 꿀떡 꿀떡 너머 가고 여중 일색이 양귀비같이 곱구 말을 해도 곱구 이래도 곱구 저래도 곱구 정신이 나가서 맹월각씨 죽으래도 죽기 됐는데 말 아니 듣겠소. 데리고 가자 해서 데리고 가는데 공산이 옷이랑 보에다 싸서 공산이 어깨에 메워서 간다.

공산이를 종선 배 전치에 얹히고 가는데 세간 나서기 가다가 공산이를 도쳐서 물에다 집에 넣고 가면 어찌겠니 했읍니다.

이 간나 새끼 이걸 듣고 「존 노래나 불러 보자」

(노래)

얼싸 좋다 가는 구나

샘일 삼천 쇠 하늘에

휘여 올라 하날님이 아옴소사

아이구 아이구 공산이야

못난 공산아 어찌겠니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배 나라에 배 선비야

어이 차라 잘 낫도다

배 나라에 가는구나  
궁산이야 궁산이야

(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가는데  
수힐이 명명성이요 등령은 수고성(東嶺은 秀孤松?)이라  
강이 달이 밝아서 질이 밝아진다. 외로운 城에 멩월각씨는 속에서 서름이 올라와서  
눈물이 저 짠 노래로다.  
노래 분다.

(노래)

얼사 둥둥 가는구나  
가는구나 가는구나  
신전 노래를 불러 보자  
적선재야 학을 타고  
맥오 흥영이 나귀를 타고  
동방석이야 비파를 타고  
노자성이느 소를 타고  
가는 구나 가는 구나  
안기산이라 난초를 타고  
얼싸 둥둥 가는구나  
북해 흑용이 여이쥐 물고  
채흥간으로 날아 간다.  
얼싸 둥둥 가는 구나  
등상 鳳이 竹實을 물고  
오동으로 날아 간다.  
얼싸 둥둥 가는 구나  
아이구 아이구 궁산이야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서양모는 여지 찬지  
동방석을 부르신다.  
궁산이야 얽은 궁산아  
못난 궁산아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배 나라의 배 선비야  
얼싸 좋다 같이 같다.

(말)

이 간나새끼 멧월각씨 노래 부느 세월 간 줄 모르지

그령 저령 온 적으느

어떤 섬정이 나셨소

저 간나새끼 멧월각씨보고

「궁산이 물속에 집어 넣면 어찌겠니」

「이거 보시요 어저그 내가 본 적으느 불과 열매 머지안는데요」

근데 성정이 있어서

「궁산이 여기 네라 늦습니다 예물에 빠져 죽기시리」

그래서 거기서 궁산이를 물에다 네라 놓고 갔읍니다.

배 나라 배 선비 집에 들어 갔소

이 놈이가 첫 날 밤이라 떡 자겠다고 했소

멧월각씨 하는 말이

「이 종이 칼로 종이 단추를 베어야 동품합니다.」

이 간나새끼 종이 칼을 가지고 서리 종이 단추를 슬근 슬근 하니 어떻게 종이 단추를 들겠소 나 날 밤을 밝혔소 또 이튿날도 자겠다고 하는 것을 종이 칼로 종이 단추를 베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이 놈이 이렇게 종이 단추를 벨라다 밤을 밝혔소 그령 저령 하더이 석달이가 떡됐거덩 이 놈으 간나새끼 멧월각씨 못데부르구 자서 쇠피만나 되니 심새를 쓰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멧월각씨가 「봉학이야 니 궁산이 있는 궁주섬 알겠니」

알겠다 하오 「그러면 니 나가서 궁산이 있는데 가서 니 업어서 무전이다. <물깃에다> 내놓고 오너라」 봉학이를 보냈소

궁산이느 배에서 네리워서 섬정이 올라 갔지마는 갈데 올데 없고 배는 고푸고 해서 옷으 셔를 빨아 먹었소 그랬더니 괴기 맛이 났소 옷 고름 씹으니 찢근 찢근 하고 쭈 즐하고 구수무레 하고 맛이 있었소 고름 치는 다 씹어 먹구 그 담에 옷티를 씹어 보았소 쭈쭈하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백날동안 옷티 세 벌을 다 씹어 먹고 지냈읍니다.

함박에 담은 종이 주머니 속에는 소곰 수절 실 낙시가 있거덩 「예 이것을 물이다 너 어 보자」 낙시를 물에다 연 적스는 괴기 한나 올라 오오

「이 거 먹자」 그 괴기를 먹었소 이래 바늘 낙시로 괴기 잡아 먹구 생명을 다랐는데 그 못난 몸이서 털이 한 지식 나왔소.

그런데 하루 아침에는 봉학이가 스르르 날아 왔소

「니 봉학이야 워데 갔다 왔닉」 봉학이 부플구 만단 사연하고 읍니다.

그런데 눈물이 네리 오잔이 먹지 못해 공간 거이 어찌 눈물이 네오겠소.

못내 오지 탄식 하오 「네 오레미 어디메 있는지 야니?」 봉학이 네 오레미 어디 있다는걸 안다고 고개를 까딱 까딱 하며 양 날개를 빠치오

「그러면 나를 데레 오라 하디?」 봉학이 또 양 날개를 빠치오. 「네 잔덩이에 내 업히

여 가자」 궁산이 봉학이 잔등에 업히고 서러 너울 너울 날아 가오 가다가 궁산이도  
기가 맥히고 봉학이도 기운이 없어져서 물에 떠러지게 됐소 그적에 궁산이 「너 이 물  
에 떠러지문 너도 죽구 나도 죽는다 이제는 멩월이 다시 못보겠다.」

궁산이 멩월각씨 보고 싶어서 다리 살을 입으로 끌어서 한점 떼서 봉학이 입에다 쑈  
세 냈음이다. 봉학이 녕겼소 이래서 복슴을 타 가지고 다 나와서 궁산이도 물역에 나  
와서 처지고 봉학이 처졌소 한참만에 궁산이는 최기를 챙겼소 봉학이도 챙겼읍니다.

「봉학이야 니 가가라 네 오레미 있는데 가서 내 여기 나왔다고 그레라」

궁산이는 그레 일버 놓구, 이리 저리 땡기며 이걸이 청이 들었읍니다.

유인청에 들어서 함박을 가지고 이집 저집 밥을 빌으니 그 소곰해서 수절 가지고 그  
렁 저렁 살아 가오

멩월각씨는 하루는 봉학이과 물었소

「봉학이야 궁산이 있다?」

봉학이 있더라고 했소.

「내 왔닉?」

「내 왔다.」

내 왔다 해도 어저느 이걸이 대니겠다 생각하고 수탄 이걸이 잔치를 챙가 각고 한번  
만나 보자 했소. 한날은 배선비 놈과 「여보시요 남으 나라에 가서 여자도 가서 오고  
남으 짐을 다 아사 빼 왔는데 어전 당신도 성도를 하자 오다」

「무슨 성도 하면 좋다 말이요」

이걸이 잔치를 사흘 하라 했소

「어떻게 하라 나바?」

남 준 쇠를 부틀어다가 갑구 사흘 잔치 잘 챙기구 이걸을 청해다가 회문 돌리고 아무  
날 아무 때에 배 나라 배 선비 집이서 유인 잔치 챙긴다.

샘일동안에 모도 오라고 했소. 각청 각방에다 모다 회문을 돌가 났읍니다.

잔치를 챙기노이 슯한 유인들이 모다 왔소.

멩월각씨 내다 보적으느 궁산이 저 옷 굴에 와 앉았소. 오늘은 잔치상을 책 책 책 올  
리 적다가 우를 한 상 빼라 했소.

하인들이 상을 창기며 궁산이 차례 와서 빼서 궁산이 못 먹었소 궁산이 시르사 하고  
나갔고 이튼 날 아척이느 내 꼬리가 앉차 좀 얻어 먹겠다 하고 다음날에는 꼬리에 나  
가 앉아 있었소. 멩월각씨 내다 본적으느

궁산이 아레 와 앉아 있거널

오늘은 우우로 네리 적거라 했소 네레 적다가 아래서 한 상 뺏소

그러니 궁상이 또 못먹었소 슯한 유인들이

「생일 잔치 한 상도 못 얻어 먹은기 저 작이 물러 나라」하며 슯탕기 천대를 하오

궁산이 씨근고 시르사하무 나갔소 이튼날 잔치는 가운데 있으문 한상 얻어 먹겠지 하  
고 궁산이는 다음 날에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소.

멩월각씨 내다 본 적으느 가운데 궁상이 앉아 있소.

오늘은 아래로 네레 적고 아래서 위로 올레 적으라 했소. 우에서 아래로 적고 아래서 위로 올레 적는데 또 궁산이는 빼 놔서 또 먹지 못했소. 숫한 유인들이 다 먹고 나갈라 하는데 궁산산이는 그 대로 앉아 있었소. 숫한 유인들이 나 갈라 하며 「심청같은 기, 충신같은 기, 썩악별같은 기, 썩악별같은 기, 샘일 잔치의 상도 하나 못받고…하며 모다 야지를 하오, 맹월각씨가 이 걸 보고

「저기 저게 앉은 저 사람은 어떤 유인이기 저러느냐」

「샘일 잔치 얻어 못먹었소」

「응 그래 오냐 그러며느 너 아숫더라… 샘일 잔치르 한 상이 점해라 잘 챙겨서 저 유인 한상 챙기 보내라」

샘일 첫던 거 한데다 한상 모다 적거서 궁산이 줬읍니다.

궁산이 큰 상을 모도 받아 놓고 먹는데 한번 물고 한숨 짓고 두번 물구 울음 울구 이렇게 탄식하니 숫한 삼천명의 유인들이 가겠다고 나서오

맹월각시 이 걸 보고

「이 삼천 유인들아 가지말고 여기 있거라 저기 저 유인이 저 유인이 다 먹을 때까지 있거라」

궁산이 먹는 놀음 하다가 상을 물에 노니 맹월각씨

「여기 온 유인들아 나뚜 서라 배나라 배선비야 나가 유인처럼 서 있거라」

그러더니 구슬 옷을 하나 내 놔 주며

「삼천 유인들아 이 구슬 옷을 짓을 찾아 입는 이는 내 금수다 내 금수이면 너 입어라」

유인들이 그 구슬 옷을 헤 보고 당게 보고 해도 어떻게 구슬 옷을 짓을 찾을가 모도 못찾소

「배선비도 찾아라」

어떻게 찾겠소 못찾지 다 헤 보다가 구슬 옷을 놀적에 못나고 뒤흔러지고 아무것도 애인 그릇 씨앗북이 와서

거저 척 쥐더니 구슬 옷을 잡아 척 입었읍니다.

「三千 유인들아 다 가거라 배나라의 배선비야 역적놈아 강적놈아 도둑놈아 너는 남의 가문에 와서 니 성관이 어디 되겠느냐 이놈 너를 총을 쏘서 쥐이겠다만해도 우리 신세 내서 너를 못 쥐이고 있다 이놈」

그리고서러 맹월각시 궁산이를 데리고 갑니다. 삼십리쯤 나와서 무릉천이란대 와서 함박에다 밥 빌러 땡기요

어느 각담에다 궁산이를 앉차 놓고 한 집 들어가 두 집 들어가 세 집만에 들어 가니

「야 저러한 여자 어떻게 하여 밥 빌러 왔느냐 明沙十里 海棠花같은 저 여자는 어디서 들어 온 女子냐」

그래 첫번에 밥 빌어다가 궁산이를 맥이고 저도 먹구 각담에서 자구 이렇저렇 하문서 한 댕새 고생을 부는데 어떠한 높은 사람들이 잘 사는 이 사람들이기 아침에 밥 빌러 들어 오는 이 여자를 보고

저 女子를 통 생뎡무러 가자구 어떡하기 여기 있는가 그 거 적어 가지고 ‘집이 없으  
문 우리 집 한 칸 쥐서 사는 날까지 살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 자내는 밥을 비채 아닌 女子-데 어떻게 해서 밥을 벌구 다니요」

「그렇것이 아니라 참변을 만나 이렇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쥘 있는가?」

「쥘 있습니다.」

그러면 집 한 칸 줄것 설랑 저기 와서 살문 밥도 얻어 먹고 우리 일해 주며느 우리  
잘 거더 줌마

그래 그 집이서 집 한 칸 주어서 살기 됐는데 궁산이 밖알 일 하자니 신침이 같아이  
일을 할줄 알아야지 멩월각씨 밖에 일도 하고 안에 일도 하며 그렁 저렁 하이 맨 달  
이 됐거덩

할 날으느 궁산이 하는 말이

「나는 어디가 산보를 하다 들어 왔소 나는 돈이 한돈칠푼 있으문 하고 싶은 일이 있  
오」

「흥흥 돈이 한 돈 칠푼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러면 내 한 돈 칠푼 주지」

엽전 한 돈 칠푼 쥐서 그 돈을 가지 나가서 그 날 하루 종일 있다가 해가 너머 간 연  
후에 고양이를 하나 싸 가지고 왔소

「내 고양이를 하나 싸 가지고 왔다」

「그래 고양이를 어떻게 싸는가」 하이

「고양이 쥐이 갔다 그러는 거 그거 내기 파우다 어찌 쥐이 갔읍니다. 아이 거저라도  
가져 가라 그런 거 남으 해를 어찌 거저 가지겠소 돈을 한돈 칠푼이 거 받소다 그래  
가지고 왔다.」

멩월이 뱀이 생긴 즉 궁산이 맥이고 고양이 맥이고 지 먹구 이래 그렁 저렁 살아 가  
는데 또 한 달이 너머가이

「나는 그저 돈이 돈반이 있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흥! 돈반만 있으면 맘 대로 할수 있소? 내 돈 돈반 주지」

돈을 열 다숫 잎이 준 적으느 거 가지고 나가더니 뱀이를 하나 싸 왔소.

뱀이를 하나 싸 오니 멩월각씨 뱀이를 밥을 맥예 고양이를 밥을 맥예

궁산이를 밥을 맥예 멩월각씨 지도 먹고 그렁 저렁 하무 석달 열흘 백날이 떡 됐읍니  
다. 그런데 할 날은 뱀이가 없오다.

「이거 어찌 뱀이 어드러 갔느냐」

멩월각씨 뱀이 맥이던 거이 없다구 실피 운다.

또 할 날은 궁산이 뱀이르 나가 얻어 봐야 것다 고 나갔소 이틀이 나가도 못 얻어 보  
고 사흘이 나가도 못 얻어 보고 있는데 할 날은 뱀이 왔소.

「세상에 네 어디데 갔다 왔니 나는 너를 잃어 버리고 눈이 불케 울엿다. 어디메 갔다  
왔느냐」

뱀이 뱀이 꺾질을 찍 베끼고 새파란 새 서방이 되오

「어떻가이 이리 되느냐」

「내가 지중에 도에 감중 지부왕에 아들인데 죄를 저서 인간에 나가서 이 죄를 뼈자르느 인간으 火食을 먹어야 해서 뱀에 행용을 씨고 용곡 천자에 갔다가 용곡 천자가 이 시상에 내다 놔서 여기 팔레 왔읍니다. 그런데 어머니과 아버지가 나를 잘 거더주구 맥에주어서 내 집으 갔다웁니다. 아버지 나와 같이 갑시다. 들어가서 아버지 기물으 멧 백 멧 千양 은과 금을 주겠다 해도 모다 받지 말고 구색이으 빈 건망중태 한 태 있는 거 그것 달라 하시요」

「하 하 그러 것다」

물 전에 나 가니 고양이 새끼 딸아 오오

물이 짝 갈라지니 백 모래 사적이요, 그 백 모래 사적으로 들어 가니 시불 부처 용곡 천자가 있습니다.

天子께 들어 가서 인사한 즉 천재하는 말이

「내 자식이 득죄를 지어 나갔다가 어머니 아바이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어와서 말하니 나는 어떻게 인혜를 갚으면 갚겠읍니다.」

금을 내 늦는다 은읍 내 늦는다 이런 보화 다 내 냈소

「나는 이런 보화 갓다 쓸대 없읍니다. 저 구색이 건망중태나 내주면 얻어 먹을 적에 잘 쓰겠오」 그런 것 못 주겠다 하며 아이주오

「그럼 내 가겠읍니다.」

나 오는 시간에 고양이 어느 째에 들어가서 그 건망중태 축 물고서리 장 나왔읍니다. 그 건망중태를 집에다 걸어 냈더니 하리 밤 자고나이 돈이 가뜩하오 다 쏘았소 또 하리 밤 자고나이 또 돈이 가뜩하오 또 쏘았소 거저 건망중태 담아붓고 담아붓고 했더니 윈 천하으 돈이 궁산에 집에가 무지웠소

그런데 그 나라으 천자들이 모아서 이게 어떻게 하이 금돈이가 다 없어지느냐

그래서 조사를 한 적으느 궁산이 네 집에 그런 돈이 가아뜩 채와 있다 합니다. 할 날으느 궁산이 데레 갔소

「네 어떻게이 나라으 돈을 모도 갖다 늦느냐?」

「예 그런 것이 아임네다.」

그 연유를 다 왕겝소 그 건망중태를 내 보이니 건망중태에 돈이 담이 붓고 담아붓고 했읍니다.

「그 건망중태를 가 주 오너라」

가지 왔소 갓다가 걸어 냈거덩 상감 집으 걸어 놓이 하루 밤 자고 보니 거게 거저 티가 검불이 가뜩하오 쏘아 줬소 또 하루 밤 노니 흑이가 잔뜩 채왔소 또 쏘아 냈소. 또 하루 밤 자고 나이 쇠 똥이 마루기 가뜩 있습니다.

「야 이 거 궁상이네 집이서나 돈이 나오지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데다 이 건망택이 궁산이 집에 되로 개 가거라 개 가구서리 궁산이야 멩월각씨를 불러 오너라」

그래 상감에 올라 가서 멩월각씨가 궁산이가 그 사실 연유 생긴 근본꺼정 다 왕겝소

「그렇겡다 그러며는 너이들이가 선간으로 올라 가라 선간에 올라 가서 돈 찾이를 해

라 인간 사람이라 옥황상제께서 명을 빌어 준다 칠셈이란것은 복을 준다. 너는 많이  
줄 사람은 많이 주고 적기 줄 사람은 죽기 주고 금상에 나온 사람으느 다 돈을 조라  
그러니 너 돈 찾이를 하여라 멩월각씨는 한전을 찾이하고 궁산이느 벤전을 찾이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벤전 본전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벤전 본전을 찾이하니 궁  
산이가 멩월각씨는 돈전 불림에 들어가 있는 법입네다.

⑥ 《대감굿》, <짐달언>

구송: 지금섭(여 54세)

장구: 동인

양푼: 황복여(여 51세)

제금: 김복순(여 41세)

장구 양푼 제금 치면서

(獨唱)

南山이면

千年山이라

어허- 어-

漢江水여 萬年水라

어허- 어

(습창)

鳳鶴은 만 福이야

우리 금조임은 만만세라

어허- 어- 하-

(창)

일월이 명낭한데

아- 어-

모세나 왔오

에헤 어- 아-

백사장 널은 뜰에

챙기신 잔차

에- 아-

(합창)

기 어찌 하시던 잔차던고

(창)

잔차더냐

(합창)

하시야 세상천하니  
예 왔는 대감님은 별 잔차요  
아- 어- 아- 어- 아-

(창)  
일월이 명랑한데 모소나 드어  
야들 칸 대 평풍이 그려진 글씨에  
아- 어- 아- 어-

(합창)  
그 어찌 하시던고

(창)  
글쎄드냐

(창)  
하시야  
세상천하니  
효재 충신이 글쎄로다

(창)  
일월이 명랑한데 모서나 왔오  
하늘 한판에 대를 세워  
에- 헤- 아-  
그 대 끝에 여름이 열대  
마늘 한쌍이 열리시라  
일월이 명랑한데 모세나 왔오  
양주목산 효적간에  
지정대감  
만조 백관 호적간에  
신장대감

(합창)  
노대에 소사 조상대감.  
어- 어- 아-

(독창)

대감님이 오시는 질이  
올줄 알면 마주 가라  
이와 신에님아  
성 문없이 하망 오라  
아- 어- 어-  
모서 왔오  
대감님이 사주나 잡소  
잡으시오 열 삼배라  
백사 만사 무멸하고  
시조 정성을 시구나 주오

(말)

자차 자차 한들산아  
천지 동지 서낙 잔차도 아니요 예순 하나 한갑 잔차도 아니요 새선달이 도문잔차도  
아니요 실랑 신부 열락 잔차도 아니요 가는데 선문(宣文?) 없고 오는데 방수 없고 (理  
由없이) 구름으로 비여 타고 바람으 으지하고 허여무저 피고

(獨唱)

떠여 땡기느 상사또 예 왔는 대감님 잔차 올세  
에-

(말)

대감님 드실적에 인간도 선차 있고 임으 종신도 선차 있습니다.  
대감님 나신 근본으 따라 드실적에 안신장 두목은 정왕이 두목이요 발신장 두목은 태  
세장군이 두목이라  
안으로 열두달 밖으로는 열두달 수물네 신장 차지하신 대감이 드실적에 대감님이 말  
으만 따라 드실적에 지정대감 나신 근본

(노래)

저 안당에 분이요  
에-

(말)

신장 대감 나신 분이 터전 마전 분이요  
산령대감 나신 분이 골룬 백두산이 분이요  
호기대감 나신분이 저 나라 가양산이 분이요  
조상대감 나신 근본으

(노래)

족사나이 근본이요  
삼재대감 나신 근본 삼노중이 본이요  
에-

(말)

당상대감 나신 근본 경주 곳발이 본이요 혼수대감 나신 본이 내수 변이 본이요 용신  
대감 나신 본의 해수변이 본이요 전쟁대감 나신 본의 탈으 새벽이 본이요 선상대감  
나신 근본으

(노래)

피안도 도청(平安道 德川) 따이 본이로다  
에-

(말)

대감임 말으만 따라 드실적에 연추는 추진대로 내리실저  
하늘 생겨 天皇時代가  
따 생겨 地皇時代가  
人間 생겨 人皇 時代가  
귀신 생겨 매왕時代가  
자천자 대가 예천자 대가  
골운천자 대가  
개천천자 대가  
이 나라 저 나라 양 나라 두지간에 조공을 받고 승전하던  
앞산에 죄씨 대감  
뒷산에 이씨 대감  
감백산에 채씨 대감  
소함산에 권씨 대감

(노래)

마흔 야들 상도군은  
설흔 야들 중도군  
에-

(말)

수물 야덜 하도군의 열야덜 질양천 흘 야들 팔양천 샘이 도치 사신과나 실이 도치 저

백귀너 서울 원마침 서거던 兵曹에 兵曹판사(判書) 戶曹에 戶曹판사

(노래)

六曹에 육조판사 六道에 지망구 대감임 네리시오

어-

(말)

대감임만 대리소소 당상대감 별성대감 저 강남서 건너 올소 구술 닷말 연지 닷말 분

닷말 三五 十五 열닷말을 실고서 두지 豆滿江을 건너

올제 열기 잇은 떼어서 이잇선(葉船) 무어타고 산치덩에 올라서서 골골 이이 샷샷치

면면에 촌촌에 坊坊 谷谷에 떠올아 땡기며 아그 面相에 곧(花)을 도쳐 아그 面相에

잇(葉)을 도쳐 구술로 표정내고 연지(臙脂)로 뺨을 써서 粉으로 성적(化粧)하던 샷샷또

대감이 두옵소서

전장(戰爭)에 都元帥

전장에 마元帥

전장에 副元帥

날로진장 기법진장

기와진장 유리진장

전장 대감 두옵소서

호기별성(湖鬼別神?) 대감임이 두옵소서

엮치면 육손(陸地産의 肉饌)을 받고

뒹치면 소선(水中産의 魚饌)을 받고 (巫女는 “소”를 ‘水“로 일러주었지만 ”素“가 아닐  
까)

소부한 신도 행치(痘神名)

남아산성 소하나던

소행치 소대감이 두옵소서

(노래)

북하산성 소하나던

소대감이 두옵소서

(말)

북하산에 소행치 소대감이 올시다 대감임네 병세 파문에 (貧家富家로 다기는 대감 이  
름) 네리실 저(적에)

병인 각각(各家?) 벼인임아

위시청감(신장名) 고지서 하고 (꽃과 같이 곱게 하고)

목지간에 기체방석하고

위거선이 부조리 떠먼  
제면 예수근 시집 도움하고  
무은 장군 지어는  
부문 천자지재라  
장군의 명대로 행하라 같으면 東은 靑대요 죄령낙대요 호호비요 南은 격(赤?)대요 가  
량장막의 녹사이요

(노래)

西는 白대요 하하 북술은 양겨이로다  
어-

(말)

北으느 靑대요 구렁 치기 오이 하늘 그릇이라 행지 장이하면 시시 재배하고 무블통지  
하면 대에 오도 친빈하고  
장이라느 말으느 千人之長에 萬人之首라 千人장수 千人軍兵을 거느리고 萬人之首 千  
人장수 거느리고 남도칠성(南斗七星?)에 조상당도하라(하려고) 軍奴 한쌍(한쌍) 퇴인  
(通引) 함쌍 아전 함쌍 기상(妓生) 함쌍 기패관 함쌍 미도끼 기패간도 함쌍이요

(노래)

마도기기 대감 모두 한쌍이로다  
어-

(말)

대감임으 연춘으 지전대로 네리시오 앞다리 先脚이 뒷다리 后脚으  
양주머리 칼을 뽑고 쇠괴기 맛을 보던 대감이 두옹소사  
小 양푼에 영계 찜이 大 양푼에 가리찜이 호생하던 대감이 저 한편 두옹소사  
귀주여 몸 대감 대주여 지성 대감 정정 대감 재수 대감 툷 대감

(노래)

네리나 주소  
에-

(말)

옛날에 옛 시절에 글에도 있고

(노래)

율(律)에도 있고 법에도 있소다 말에도 있소

에-

(말)

짐 달언이느 자수(아주처음) 어리서부터 시자나(지금) 옛날이나 진중 법으느 있었읍네  
다 지금으 이남이북이 한가집니다 짐 미련씨느 진중에 나가 敗軍將이 되었[는데 파일  
깨짐] 짐미려느는 짐달 오 달언이 어머니느 매사람 夫人이요 아버지느 진중에 나가  
敗將軍이 되었읍니다 어머니느 열달을 고이 설어 이려 산적을 받아내니 달간튼 남자  
애기 낳읍니다 젖은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혀 유공나무 봉황상성같이 길은 애기 初  
세살이 잡으시니 첫 말이 번지자는 “엄마 나는 아버지 원수로 가겠읍니다” “닉가 그  
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은 한번 내고 다시 내지 말아라” 네살에 잡으시니 거름밭을  
타이 자다가 깨니 달언이 없읍니다 밍지(明紬)를 꾸리를 족다가 농기(농은것)이 꾸리  
없어 꾸리 진(실)을 찾아 나가이 갱변에 내다가 썩국(??)에 싸리국에 콩국에 이리저리  
걸어놓고 검 뛰기 총 내애(銃쏘기) 불 내애 활 쏘기 하고 있거널 “달언아 달언아 너  
거기서 무엇하니” “하아 나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아버지 원수를 갹겠소” “야 야  
쌀국에서 쌀이 나고 콩국에서 콩이 나고 썩국에서 썩이 난다더니”

(노래)

니가 거기 무슨 말이냐 다시 다시 말을 마라

에-

(말)

그런 저런 날이 가고 달이 가三五는 十五 열다섯이 되니 “엄마 나는 아버지 원수를  
갹겠소” “닉가 가며느 시영사(先靈祭祀) 봉제사(奉祭祀)는 님기 찾아할거나 사당절 종  
무사절(宗廟祀節)은 님기 찾아하겠느냐

(노래)

달언아 달언아 님 못간다 님가 가면 나는 어떠라니……“

에-

(말)

기영 천리용매(千里龍馬)를 타고 떠났읍니다 떠나서 한모로니 칭기산 모로 내려가서  
東으로 입쌀 한 줍 뿌리시니 馬兵이 일어나고 西으로 좁쌀 한줌을 뿌리시니

(노래)

砲兵이 이러나오

에-

(말)

北으로 콩을 한줌 뿌리시니 陸軍軍事가 이러나는 구나  
내앞에 軍師를 매어가지고 저 나라를 건너갑니다 두지 豆滿江 역에 가서 “내 군사들  
여기 잠깐 앉으라 천리용매야 니가 두지 豆滿江을 못건너가면 니가 첫 칼에 죽고 내  
가 두채 칼에 죽는다”  
철리 용매 거기서 앞발을 쭉 허리를 질룩 하더니 마느 두지 豆滿江을 혹 건너가니 뒷  
쪽이 물이 조금 묻었습니다.

(노래)

저나라르 철리 용매에 타고 저 나라로 올라두 간다네  
에-

(말)

저 나라 올라가는데 마귀 할미 나와 “야 너 아버지 원수 갚아 죽어 가는 구나 너의  
아버지 陣中에 나갈적에 내 말안듣고 가더니 陣中에 나가 敗將軍패군장이 됐다” 달  
언이 네레서 꼽사 꼽사 절하며 “할머니 아는대꺼져 가르키 주시요” “그렇게 아니라  
니 이리로 올라 가다가 새파란 각씨님 나오면서 낭군님 장군님 사람 살려주시요 같이  
가자. 하며는 사정 보지말고 용천검으로 낚다 쳐서 천지 따지 인지 고지 뚝지. 지내  
고 올라가라”  
거기서 철리용매를 타고 올라가니 아니까나 새파란 각씨 나오며느  
“낭군님 같이 가자 장군님 사람 살리시오” 하니 용천검으로 냅다 치니 아 꼬리 아흠  
가진 구무여우거던 거기서 천지 따지 인지 고지 뚝지 지내고

(노래)

저 나라로 올라두 간다  
에-

(말)

저 나라에 올라가서 “너 아버지는 구간장대(軀幹長大?)하고 헤닌丈夫(힘이 센 丈夫)  
돼서 우리 한테 와서 敗將軍패군장이 됐다 네가 머야”  
죄고(?) 소공(?) 짝을 낫이(곳) 없는데 코로 빠진 대추 씨만한 게“ 하하 그말으 말아라  
아이고 호초느 작아도 쇠괴기 진철에 들고 고치는 커도 호박국에 드느니라 너 내 재  
간 한번 보겠니?”  
용천검으로 달언이 지 목을 뚜옥 따니라 “너 내 목이 있냐 없냐?”  
저 나라 군사들이 녀얼(을) 먹었습니다.  
거기서 저나라 군사들의 뒷짐을 진게 가지고 “우리버지 신치 장치를 내노라” 서드시  
니 멀기단 멀기모로 열기단 열기모로 올봉가시 줄봉가시 아가우가시 정괘가시로 이빠

르 나들(낮을) 삼고 뜯어 들어 갑니다.

뜯어 들어 가디만 아버지 뵈가 나십니다.

“니가 이빨으 쾌기(광이)를 삼고 세(舌)를 함지(??)르 삼고 이뵈를 파라 거기서 이빨을 쾌기를 삼고 세를 함지를 삼고 뵈를 파느니 아버지 신체가 낮습니다. 오랑케 놉덜 개 발어(犬足)千金같은 우라버지 신체에다가 대거니 뒤짐을 징기 지으 내놓고 달언이 팔을 거두고 아버지

(노래)

신치장치르 그 자리에다 감장하게 문었구나

에-

(말)

거기서 그 나라 군사들이 아버지 복수하고 철리용매를 타고 네레왔읍니다 네레와서 두지 두만강을 건네와서 “철리 용매야 니가 두지 두만강을 못 건너가면 니가 첫칼에 죽고 난 두채 칼에 죽는다

말이 철리용매 거기서 앞발을 쭉 빼 허리를 찔룩하디만 두지 두만강을 다 건너가 뒷 쪽에 물이 쪼금 문었읍니다 두지 두만강을 건너 가이 군사들이 탁탁 다 죽어 갑니다 “하 야 군사덜아 이 우으 멀기단 멀기모로이 열기단 열기모로이 멀기 다래 오복 수복 이 열었드 구나”

군사들이 입이 군침이 돌아 가지고 그것 다 먹고 다 살아 낮습니다.

(노래)

그 군사들은 지 나라 지 집으로 톨가 보냈오

에-

(말)

안산에(우리 나라 안으로) 들어 왔오

“내가 아버지르 진중에 나가 敗將軍패군장이 된데 아버지 원수르 갓았으니 내가 지 집이 가서 무엇 하리” 용천검으로 지목을 따 죽었읍니다. 철리용매느 달언이 머리 물고 집이르 찾아 들어 가니 어머니 베를 짜는 베앞에서 치마앞을 푸푹 푸푹 허 기시니 “철리용매야

(노래)

네가 오는데 달언이는 어디 가서 못오니

에-

(말)

달언이 머리를 조매 앞에 기어 노니

(노래)

이구 산천도 무정도 하오  
에-

(말)

“세상에 시영 봉조사를 뉘기하고나 사당절 종무사절을 뉘기 찾이 하고 항구에 빛인  
술으 뉘기 맛을 보겠느냐 달언이 없구 내가 살아 무엇하라”  
달언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노래)

옷고름에 목을 매어 [주장?] 죽었구나  
에-

(말)

달언이가 달언이 아버지느 장군으 선상긋이 장군으로 받기 법을 내고 달언이 어머니  
는

(노래)

안땅 나서 성양 받기 법이오  
에-

(말)

앞 선산 우 병매(馬) 밭 선산에 좌 병매 德物山 최열장군(崔瑩將軍)을 받기 법을 내어  
줍니다.  
장군 대감을 다 올렸습니다. 대감님의 오셨다가

(노래)

아 風月짓고 이러 날저  
아- 소대선에 노래로다  
아- 전국적 시절이야  
아- 살기도사 무공한데  
아- 흥문연으 저 잔차느  
아- 파한지도 오라도다  
아- 한장에 날랜 칼이  
아- 쓸곳이 지양 없네

아- 대택이 쟁긴 용이  
 아- 구름으느 어둡도다  
 아- 초산에 모진 멍이  
 아- 바람으르 이러나서  
 아- 장년(張良?)에 통쇄 소리  
 아- 횡벽이사 놀냈다도  
 아- 원앙이사 슬피 울어  
 아- 오강수야 너흔 물에  
 아- 역빠산으(力拔山)의 기가서라(氣蓋世라)  
 아- 수이산으 정맥이요  
 아- 산중에 잠든 패왕이  
 아- 횡벽이사 또 놀냈다도.  
 아- 가다가 봄 비 서러  
 아- 손도부를 떠나 비구 가오  
 아- 원앙이서 실피 울어  
 아- 春風에 뜬 그러기  
 아- 성상강을 어데 두고  
 아- 밤낮 없이 울고 가네  
 아- 가련토다 이장소야  
 아- 닉갈 집이 거 열매냐  
 아- 가다가 돌따서  
 아- 선도 불도나 닷아 가오  
 아- 항구에 빛인 술으  
 아- 올에 뉘기 맛을 보며  
 아- 사당조 종묘시절으  
 아- 올에 뉘기 찾이 하며  
 아- 시영이 봉조사도  
 아- 올에 뉘기 찾이 할까  
 아- 드령(두령 )높은 눈에느  
 아- 어네 뉘기 살마 줄까  
 아- 선도 불도 여기로다

\* 추후 보완하여 『함경도 망목굿 서사무가 자료집』으로 간행할 예정 \*